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Min Final Project Approval Sheet

This DMin Final Project entitled

**A STUDY ON LEADERSHIP TRAINING & DEVELOPMENT FOR
CHINESE CHURCH LEADERS:
FOCUSED ON KINGDOM BUILDER CENTER MINISTRY IN
CHIANGMAI**

written by

Eunsoo Ji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has been read and approved by the undersigned member of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entor: Christina Kang, PhD

April 2018

Date _____

**A STUDY ON LEADERSHIP TRAINING & DEVELOPMENT FOR
CHINESE CHURCH LEADERS:
FOCUSED ON KINGDOM BUILDER CENTER MINISTRY IN
CHIANGMAI**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과 개발에 대한 연구
(치앙마이 킹덤빌더 센터사역 중심으로)

By

EUNSOO JI

A D.Min Fi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April 2018

ABSTRACT

Ji, Eunsoo

2018

“A Study on Leadership Training & Development for Chinese Church Leaders: Focused on Kingdom Builder Center Ministry in Chiangmai.”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52 pp.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velop an effective contextualized training program and to set the direction for Kingdom Builder Training Center (KBTC) in Chiang Mai, Thailand. The purpose is to develop the leadership of Chinese home church leaders by analyzing the current ministry and applying Robert Clinton’s Leadership development theory.

The main questions addressed in this paper are: 1. What is the current situation of home churches and leaders in China? 2. What are the biblical and missiological perspectives on leadership training in Chinese home church leaders? 3. What is the mission situation of the Kingdom Builder Training Center in Chiang Mai? 4. What is the direction of effective education and training in leadership and development of Chinese home church leaders?

Based on these questions,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Chapter 2 explores the concept of the Biblical perspective leadership. It also examines the examples Old Testament leader and the examples of Jesus and Paul as a leader in the New Testament. Chapter 3 reviews the history and missionary challenges of the Chinese Church Leaders. Chapter 4 contains the background, purpose,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Chiang Mai Kingdom Builder Center (KBTC) and the current training situation, and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evaluation of leadership training for the first to fourth stage of Chinese trainees. In addition, it presents the problems, solutions and to which direction it should go. In chapter 5, I have examined the validity of what lessons should be applied to leadership development and training by looking at the

sovereign foundation, internal growth, ministry growth, maturity of life, convergence, process, and analyze Robert Clinton's theory of leadership development. Chapter 6 presents a model for developing and modeling a contextualized training program suitable for the training of Chinese home church leaders. Chapter 7 concludes with a summary and suggestions.

The final conclusion of this Thesis is to build a healthy worker for Christ through the development and training of balanced leadership programs to help the leadership of Chinese home church workers.

Mentor: Christina Kang

338 words

개요(ABSTRACT)

지은수

2018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과 개발에 대한 연구(치앙마이 킹덤빌더 센터사역 중심으로).”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52 pp.

본 논문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돕기 위해 치앙마이 리더십 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역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킹덤빌더(Kingdom Builder Training Center- KBTC) 리더십 개발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재 사역의 상황을 로버트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 이론에 조명해서 분석하여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주된 질문은 1. 중국 가정교회와 지도자들의 현황은 어떠한가? 2.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리더십 훈련에 대한 성서적, 선교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3. 치앙마이 지역 안에서 ‘킹덤빌더 훈련원’ 선교사역 상황은 어떠한가? 4.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리더십 개발과 훈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야 할 내용과 방향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리더십 개념을 연구하고, 구약에서는 모세의 리더십 사례와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바울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지도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교훈들이 현재 킹덤 빌더 사역에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 보았다. 3장에서는 중국가정교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교회의 역사와 선교적 도전 그리고 중국교회의 지도자들의 현황을 살펴 보았고 제4장에서는 태국 치앙마이 킹덤빌더(KBTC) 지도자 훈련원 설립배경, 목적, 발전 과정 및 훈련 현황을 살펴보았고, 중국 지도자 개발 훈련생 1기부터 4기까지를 대상으로한 훈련원 평가에 대한 설문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도자 개발 훈련에

대한 문제점과 문제해결 방안의 필요성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제 5장에서는 로버트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 이론을 바탕으로 주권적 토대, 내적 성장, 사역성장, 생의 성숙, 수렴과 과정, 회상의 단계를 살펴보면서 리더십 개발과 훈련에 적용할 교훈들을 찾아 보았다. 제 6장에서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훈련에 적합하고 상황화된 훈련 프로그램의 모델 개발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7장에서는 본 논문의 요약과 필자의 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얻는 최종 결론은 균형있는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과 훈련을 통해 중국가정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 개발을 도와 그리스도의 건강한 일꾼을 세우는 것이다.

Mentor: Christina Kang

260 words

헌정(DEDICATION)

이 글을 중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동역하고 있는 중국의 중경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이민정 선교사와 사랑하는 자녀들 예성, 한나, 예준에게
바칩니다.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15년간의 사역을 회고하며 학문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하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 복음화를 위해 함께 수고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선교사역에 동역하고 있는 부모님과 동생 지정수 집사에게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교 동역하는 일에 최선의 힘을 보태고 있는 믿음의 친구 이송배 집사에게 말로는 표현 못할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현장에서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 동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5년 선교사역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성실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성, 한나, 예준이와 신실한 동역자 아내 이민정 선교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으로 제자를 지도하시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풀러 신학교 박기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친히 치앙마이까지 찾아와 격려해 주시고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귀한 도움을 주신 크리스티나 강 박사님과 피터 강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제자의 논문을 끝까지 사랑과 격려로 지도해 주신 크리스티나 강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ABSTRACT.....	ii
개요(ABSTRACT).....	iv
헌정(DEDICATION)	vi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vii
목차(TABLE OF CONTENTS).....	viii
표 목록(LIST OF TABLES)	xii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목표	3
연구의 중요성	4
연구의 중심과제	4
연구의 질문들	4
연구의 범위	5
용어의 정의	5
연구의 방법	5
연구 개관	5
제 2 장 리더십의 성서적 관점.....	7
리더십에 대한 몇가지 정의들.....	7
리더십에 대한 구약성경의 이해.....	8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개념	8
구약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 사례.....	9
모세의 리더십	9
리더십에 대한 신약성경의 이해.....	19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개념	19
신약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 사례.....	20
예수님의 리더십	20
사도바울의 리더십	32
요약	39

제 3 장 중국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	41
중국교회의 역사적 이해	41
중국교회의 종류	51
중국교회의 선교적 도전	53
중국교회 지도자 이해	56
가정교회 지도자 양성 과정	57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점	58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와의 갈등문제	58
바른 목양교육의 결핍	59
지도자 수의 부족 문제	59
교회간 연합과 교제의 어려움	60
목회실제에 대한 행정과 인식 부족	60
지도자들의 리더십 역량의 부족	61
요약	63
제 4 장 태국 치앙마이 킹덤빌더(KBTC) 지도자 훈련원의 현황	65
태국 일반현황	65
치앙마이(ChiangMai)의 현황	66
치앙마이 킹덤빌더 리더십 훈련센터사역 현황.....	67
치앙마이 킹덤빌더 훈련원 목적	67
훈련원 설립의 배경이 된 비전.....	68
킹덤빌더(KBTC) 훈련원의 발전 과정과 훈련 현황	69
1 단계, KBTC 태동기.....	70
2 단계, KBTC 1기 훈련사역	70
3 단계, KBTC 2기 훈련사역	71
4 단계, KBTC 3기 훈련사역.....	72
5단계, KBTC 4기 훈련사역.....	73
훈련 목적	74
훈련원 핵심 가치	74
모집대상	74
모집 방법	74
오리엔테이션	74
교육과 훈련 내용	75
일과	75
아웃리치	76
킹덤빌더 훈련생들의 지도자 개발훈련에 대한 설문과 결과.....	76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에 있어서 한계와 당면한 문제.....	84
균형있는 통합적 전인적 훈련의 부재.....	87
개인별 맞춤형 훈련의 부재	87
지속적 후속 관리의 결여	89
문제점 해결 방안의 필요성.....	89
요약	91
제 5 장 로버트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 이론 이해.....	93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 이론.....	95
1단계: 주권적 토대	97
2단계: 내적 성장	98
진실성 검증	98
순종검증	99
말씀검증	100
믿음 검증	100
3단계: 사역성장	102
초기사역	103
중반기 사역	104
후기 사역	106
유대 관계 학습단계	107
4단계: 생의 성숙	109
일생 동안 지속되는 훈련	112
인도 과정	112
기타 과정	115
5단계: 수렴과정	116
6단계: 회상의 단계	118
요약	118
제 6 장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바람직한 리더십 개발전략.....	120
지도자 평생 개발 개념을 적용하여 훈련한다.....	121
시간선	123
은사를 개발하여 지도력 개발을 돕는다.....	125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 도전한다.....	130
선교적 삶과 선교적 교회를 향해 도전하고 훈련한다.....	135
요약	145
제 7 장 결론	147
요약	148
제언	151
ENGLISH SUMMARY	153
TEXT OF SUMMARY	154
Chapter 1 introduction	154
Background.....	154
Purpose of the research	154
Goals of Research	155
The Importance of Research	155
The Central Task of Research.....	155
Research Questions.....	155
Scope of research	156
Definition of Terms	156
Method of study	156

Research Overview	156
Chapter 2 BIBLICAL PERSPECTIVES ON LEADERSHIP	158
Chapter 3 UNDERSTANDING CHINESE HOME CHURCH.....	159
Chapter 4 CURRENT SITUATION OF KINGDOM BUILDER (KBTC) TRAINING CENTER IN CHIANGMAI	160
Evaluation of training center and seeking solutions	160
Chapter 5 UNDERSTANDING ROBERT CLINTON'S "LEADER SHIP THEORY"IN LEADERSHIP TRAINING.....	162
Chapter 6 PROPOSAL FOR LEADERSHIP DEVELOPMENT STRATEGY FOR HOME CHURCH LEADERS IN CHINA	163
Chapter 7 CONCLUSION	164
Summary	164
Suggestions	164
인용 문헌(REFERENCES CITED)	165
약력(VITA)	172

표 목록(LIST OF TABLES)

<표 1> 지도자 개발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결과	77
<표 2> 지도자 개발 훈련의 적절한 기간에 대한 결과	77
<표 3> 중국문화를 고려할 때 선호하는 훈련 형식에 대한 결과	78
<표 4> 중국 교회 상황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훈련영역에 대한 결과	79
<표 5> 지도자 개발 훈련시 훈련 분위기에 대한 결과	79
<표 6> 영성훈련에서 중요한 훈련분야에 대한 결과	80
<표 7> 인격훈련에서 중요한 훈련분야에 대한 결과	81
<표 8> 사역훈련에서 중요한 훈련분야에 대한 결과	82
<표 9> 생활 훈련에서 중요한 훈련에 대한 결과	82
<표 10> 지식훈련에서 중요한 훈련분야에 대한 결과	83

제 1 장

서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대 위임령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부하셨다.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세계선교의 가장 핵심적 실천 부분이다. 제자가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상상 할 수 없으며 그 생명력과 영향력을 상실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전하는 사람이다. 제자를 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결국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하기에 지도자를 만드는 일인 것이다. 선교를 수행하는 자는 지도자이다. 피선교지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누군가를 제자를 삼는 일이기 때문이다.

선교사역은 결국 전하는 자의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바람직한 리더십 개발과 훈련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선교교육, 선교 훈련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본다. 지도자 한 개인의 바른 리더십은 한 지역의 예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고 더 나아가 선교적 영향력을 확장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헨리 블랙커비는 그의 책 ‘영적 리더십’에서 조지 바나의 지적 즉 “미국 교회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이 죽어 가고 있다. 전례 없이 풍부한 이 시대에 교회는 사실상 영향력을 잃고 있다. 원인은 리더십 부재다. 리더십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지도자가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였다(블랙커비 2017:38).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바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연구의 배경

필자는 복음 전도와 특히 해외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다. 특히 중국인을 향한 선교적 부르심을 받았다. 중국은 세계선교의 중심에 서 있다. 중국선교는 곧 세계선교의 지름길임을 믿는다.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2002년 GMTC(Global Missionary Training Center) 해외 선교사 훈련 과정을 25기로 수료하고 2003년 2월 중국 충칭 지역에 파송되어 수년간 교회개척과 제자양육, 중국인 전도자 자녀 돌봄 사역을 하였다. 공홀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을 때 진심이 통했고 그들은 친구이자 제자이자 동료이자 가족의 관계가 되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계속 확산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사역 진행이 한창인 가운데 중국 공안국의 감시와 개입에 의해 필자는 더 이상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필자에게 비자문제가 발생하였고 본부의 결정 속에서 태국 치앙마이로 선교사 재배치가 되어 오게 되었다. 치앙마이에서의 사역은 중국 사역의 연계선상에 있었다. 중국 내에서는 교회개척 위주의 사역이었다면 치앙마이에서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와 예비 타 문화 선교사를 모집하여 교육과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이 사역은 중국교회의 급변하는 교회 상황과 맞물려 중국 가정교회가 세계 선교의 부름에 반응하여 중국선교에서 선교 중국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 이루어진 사역이라 중국교회를 위해 또 중국교회와의 미래적 협력관계 속에서 선교적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필자는 중국 내에서 교회개척 사역과 함께 충칭 지역의 가장 큰 가정교회 그룹과 협력사역을 한 경험이 있기에 가정교회의 상황과 지도자들의 현황에 대해 깊이 있는 경험을 갖고 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리더십이 공동체에 얼마나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십이 공동체에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제 중국교회는 세계 선교에 공헌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왕쓰웨는 2006년 ‘중국을 주께로’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교회는 세계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이들 교회들이 중국교회의 선두주자로서

세계선교에 참여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고 말하면서 특히 중국교회가 세계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왕쓰웨 2006:29). 중국 교회는 고난 속에서 내적으로는 영적 야성을 지닐 수 있었다. 더불어 양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다. 중국 교회도 세계 선교의 부름에 부응하려는 비전을 품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른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지도력이 문제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선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깊은 생동감 넘치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영적, 감정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사역에 선한 영향력이 흐르게 되기 때문이다.

로버트 클린턴의 리더십 이론의 핵심은 “사역은 인격에서부터 흐르고, 잘 마치는 삶을 살기 위해 나 자신부터 먼저 인격적으로 되자”(클린턴 2011:58)는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찾아야 할 바른 길이 아닐까? 이 물음이 이 연구의 배경이 되었다.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킹덤빌더(Kingdom Builder Training Center- KBTC) 리더십 개발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재 사역을 로버트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 이론에 조명해서 현 상황을 분석하여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목표

- 1) 중국 가정교회와 지도자의 현황을 고찰한다.
- 2) 세계 선교에 있어서 중국교회와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 3)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리더십 훈련에 관한 성경적, 선교학적 관점을 연구한다.
- 4) 태국 치앙마이 에서의 킹덤빌더 훈련원 사역의 현황을 평가한다.
- 5)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리더십 훈련의 중요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중국 충칭 지역에서 복음화 사역에 헌신했던 나에게, 중국의 충칭 지역에서 일하는 선교사들과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한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세계 선교의 선교적 부름에 부응하려고 바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교회와 중국 선교에서 선교 중국으로의 시대적 전환 속에서 중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사역의 새로운 방향을 연구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논문을 연구하면서 이제까지 했던 필자의 사역을 돌아보고, 평가하여 깊은 통찰력을 얻어, 좀 더 효율적이고 시대에 맞는 리더십 훈련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둘째, 현지에서 사역하는 지도자들에게 실질적인 문제들을 제시함으로 그들이 실수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을 이해함으로 중국 교회 지도자들과 중국 교회를 심층이해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의 중심과제

본 연구의 중심 과제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리더십 훈련에 관해 성경적, 선교적, 상황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효과적인 리더십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질문들

- 1) 중국 가정교회와 지도자들의 현황은 어떠한가?
- 2)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리더십 훈련에 관한 성서적, 선교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 3) 치앙마이 지역 안에서 “킹덤빌더 훈련원” 선교사역 현황은 어떠한가?
- 4)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리더십 개발과 훈련에 있어서 교육하고 훈련해야 할 내용과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첫째로, 중국의 충칭 지역 가정교회와 현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둘째로, 본 연구는 본인과 치앙마이 소재 “킹덤빌더 훈련원” 사역으로 제한한다.

용어의 정의

1. 가정교회란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말한다.
2. 삼자교회란 정부에 등록한 교회를 말한다.
3. 백투예루살렘 운동이란 중국 가정교회의 “복음을 서쪽방향으로 전하여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하자”는 선교운동을 말한다.
4. 선교중국이란 중국교회를 동원하여 선교에 헌신하게 하자는 의미를 말한다.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참여자 관찰 방법과 문헌자료, 그리고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 연구에는 무엇보다 필자의 중국 충칭 지역 선교사역과 태국 치앙마이 소재 킹덤빌더 훈련원 사역 경험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 문헌적 자료의 수집은 풀러신학교, 치앙마이 파압대학 신학교 도서관이다.

연구 개관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리더십 관한 성서적 관점을 다룰 것이다. 먼저 성경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 구약에 나타난 리더십의 사례를 살펴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 나타난 리더십 사례를 다루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리더십에 대해 살펴 보겠다. 제3장에서는 중국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중국 가정교회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고, 중국 가정교회의 일반적 현황과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알아보면서 현재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태국 치앙마이 킹덤빌더(KBTC) 지도자

훈련원 설립배경, 목적, 발전 과정 및 훈련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 지도자 개발 훈련생 1기부터 4기까지를 대상으로한 훈련원 평가 에 대한 설문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도자 개발 훈련에 대한 문제점과 문제해결 방안의 필요성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한다. 또 제5장에서는 로버트 클린턴 ‘리더십 개발’ 이론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개발 훈련에 클린턴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제5장에서 다루었던 클린턴의 리더십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 개발 전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7장은 결론 장이다.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서 특히 클린턴의 지도자 이론의 핵심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이론이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개발과 훈련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그리고 적용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려 한다.

제 2 장

리더십의 성서적 관점

리더는 단지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다. 권위나 지위 또는 엄청난 지식이나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지도자라 부르지 않는다. 리더십은 어떤 권위를 사용하여 명령만 하달하거나 지침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필요들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다. 리더십에 대한 성서적 관점을 살펴보기 전에 설득력 있는 정의들을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리더십에 대한 몇가지 정의들

조지 바나는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공 해야 비로소 리더로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리더십이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동원하며, 방향을 제시하고,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생각하기에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바나 2003:34).

빌헬름은 제자도의 관점에서 제자 또는 지도자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는 “제자가 된다는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날마다 그분과 잇대어 살아가는 데 있다. 제자도, 곧 제자가 되어 다른 제자들을 또 길러 내려고 분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가치가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헬 2009:24).

블랙카비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그의 책에서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한다. 이것이 영향력이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을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추구하는 삶으로 옮겨가게 한다”라고 말했다(헨리 블랙카비와 리처드 블랙카비 2002:35-39).

로버트 클린턴은 그가 쓴 ‘리더 만들기’에서 “리더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 잠재력에 대한 책임감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특정한 그룹으로 하여금 그 그룹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로 나아가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클리턴 2011:120).

리더와 리더십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몇가지 리더십에 대한 정의들은 매우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리더십에 대한 구약성경의 이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개념

구약성경에서 리더를 뜻하는 단어가 있다. ‘집안의 어른’(출 6:14), ‘무리의 우두머리’(느 7:2), ‘지파의 두령’(신 1:15; 5:23; 왕상 8:1; 출 18:25), ‘군사적, 사법적 기능을 가진 자’(신 1:13)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타인에 의해 임명되었거나 아니면 스스로 지도자가 된 경우도 ‘지도자’를 나타낸다.

구약성경에 지도자를 대장, 감독, 두목을 뜻하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였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는 왕과 위치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역대상 9장 11절에서 족장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 그 의미 ‘앞에 선 것, 두드러진 것’을 말한다. 의미론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존재를 의미한다(강병훈 1992:98). 통치자, 치리자, 방백의 의미로는 시편 76장 1절; 잠언 18장 16절; 욥기 29장 10절 등에서 쓰여졌다. 이스라엘 왕에게 쓰여진 것은 사울(삼상 9:16), 다윗(삼상 13:14), 솔로몬(대상 29:33), 여로보암(왕상 14:7), 히스기야(왕하 20:5)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성전과 관계된 고궁 관리에게도 쓰여졌다. 그 외에 성읍의 지도자나 지파들의 관장에 적용되었으며(대상 27:16; 12:28), 군대조직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대상 13:1)과 장관(대하 11:11)에

적용되었다. 리더란 사람은 어떤 목적이나 목표에 이끌려 가는 자를 말한다. 배움에 있어서 상대방보다 앞서 배웠다는 의미에서 ‘스승’, ‘교사’란 뜻도 지닌다(1992:98-99).

구약에서 지도자에 대한 개념이 “집안의 어른, 무리의 우두머리, 지파의 두령, 군사적, 사법적 기능을 가진 자, 대장, 감독, 두목, 족장, 앞에 선 자, 두드러진 자, 누구보다 더 뛰어난 자, 통치자, 치리자, 천부장, 백부장, 장관, 배움에 있어서 앞서 배웠다는 의미에서 스승, 교사 라는 뜻도 지닌다” 라고 정리하면서 이러한 모든 개념의 공통점은 앞서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를 칭 하는 여러가지 개념이다.

그러나 구약은 세상의 통치자는 유한성이 있는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다. 그 분은 시간의 처음을 창조하신 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창 1:1).

구약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 사례

앞에서는 리더에 대해 말하는 구약의 용어와 정의에 대해 살펴 보았다. 구약에 나타난 리더십의 사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친히 세워 나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한 지도자가 세워지기까지 통과해야 할 수많은 과정이 놓여 있다. 구약성경에는 많은 지도자와 리더십 사례가 나온다. 필자는 그 중에서 모세의 리더십 사례를 살펴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셨는지, 모세는 어떤 리더십 과정을 거쳤는지, 모세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 보기로 한다.

모세의 리더십

구약성경에서는 다양한 리더들의 다양한 리더십 예를 볼 수 있다.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때론 국가를 살리고 때론 국가를 망하게 하기도 한다. 리더 한 사람을 통해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도 하고 때론 백성을 죄악으로 방종하도록 방조하기도 한다. 이런 리더십의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구약 성경의 리더십의 사례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 알아보면서 그가 끼쳤던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리더십의 준비와 훈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생부터 섭리하시고 모세의 인생 한 가운데서 그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애를 붙드시고 당신의 계획에 따라 지도자 훈련코스로 모세를 집어넣어 그를 결국 사용하셨다. 태어나자마자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 죽임 당했어야 할 모세를 하나님은 애굽 왕국의 공주에 눈에 발견되게 하시어 나일강에서 살려 내셨고 공주의 양자가 되어 왕족의 신분으로 40년간을 이집트 왕궁에서 최상류층이자 최고 권력자 중 한 사람의 신분이 되게 하시어 이집트 왕국의 최고의 학문과 학식을 섭렵하고 누리게 하시면서 지도력을 준비 시키셨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지도자 과정 1단계인 준비과정이라 볼 수 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지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 노예로 힘겹게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 무언가를 공헌할 수 있을 것 같은 가장 힘있는 자리에서 그 힘과 권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 보내셨다. 애굽인을 죽인 것이 발각되자 바로가 무서워 도망한 것이지만 이 사건 조차 모세를 두 번째 단계 지도자 훈련을 하시고 다듬어 가시고자 의도하신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 진 것이었다. 말과 행사에 능했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왕족신분의 기풍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을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창 46:34)목동의 신분으로 볼품없이 꿈도 야망도 없이 목동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야 했을 것이다. 미디안 광야 생활의 관점에서 지난 왕궁에서의 40년을 바라보면 모세가 배우고 경험했던 왕궁에서의 모든 것이 결국 헛것이였다고 평가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모세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결국 사용하시어 앞으로 모세로 장정만 60만 명 아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지도자로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이다. 전에는 최고의 신분이어서 강대한 애굽 군대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강대한 권력이 있었다. 그가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이었기에 군 최고 통치권자로서의 훈련도 받았을 것이다. 그런 모세가 군인이 아닌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경험을 40년간이나 하였다. 하나님은 모세가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이끄시고 다듬어가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기에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부단히 듣는 훈련을 해야 했다(Cleland 2000:187).

광야의 환경은 거칠다. 힘들고 외로울 수 있는 곳이다. 적막하다. 고요하다. 매일 자신과만 대화할 수 있는 곳이다.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런 곳에서 40년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것도 기약이 없었다. 광야란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달하시는 장소 라고 할 수 있다(Charles R. Swindoll 2001:108-109). 이런 광야의 경험이 없다면,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며 살아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모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왔기에 그는 광야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며 살았을 것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고, 그의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곳이기에 모든 지도자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다. 하나님의 때가 차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는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출 3:4절)라고 응답하였다. 모세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미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하나님은 척박한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셨다. 인간에게는 무의미하게 흘러 보낸 헛된 40년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운 지도자훈련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된 기나긴 40년을 광야생활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때 받은 훈련 때문이었을 것이다.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지도자는 결코 값싸게 세워지지 않고 값비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힘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김상복 목사는 “리더십은 훈련의 열매”라고 하면서, 리더십에 있어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큰 승리는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승리를 통하여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 온다는 것이다(김상복 1998:70).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의 생애 첫 40 년과 광야에서의 40년, 전체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도자로서 필요한 것들을 갖추는 준비와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지도자를 훈련을 거쳐 만들고 세우신다는 것이다.

모세 리더십의 특징

하나님은 모세의 삶 전체를 섭리하셨고 이끄시면서 지도자로 훈련하시었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통해 지도력을 발휘케 하셨고 그를 사용하셨다. 모세의 삶 속에 나타난 리더십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주 바라기 리더십,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가진 리더십, 선교적 리더십,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리더십, 성숙한 인격에 바탕을 둔 리더십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주 바라기 리더십

히브리서 11장 24-27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화려하고 안락한 왕궁생활 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모세는 비록 애굽의 물질문명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리더십은 변화무쌍하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끝까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버팀목이 된다. 세상이 날 버려도 주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사는 주 바라기 인생이 지도자의 삶이다. 즉 이 땅에서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임을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가진 리더십

리더십은 하나님의 소명에 근거하고 있다. 소명의 확인 없이 리더십은 발휘 될 수 없기 때문이다. 40년 동안 무명의 삶으로 지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신다. 오스왈드 알리스는 그의 책 “모세오경약해”에서 모세가 받은 소명의 부분을 “작은 길에서 실패한 사람이 큰 길에서 시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였다(알리스 2002:87).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 오셔서 친히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도우셨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모세를 부르셨다(출 3:1-2). 모세는 기나긴 40년간의 미디안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소명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리더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구체적이고 분명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모세를 부르시어 사명을 맡기셨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발견해 갈 수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경험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확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비로소 영향력 있는 지도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을 모세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다.

선교적 리더십

모세는 선교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였다. 모세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그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았고 또 선교적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점에서 출애굽기 19장 4-6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찌니라”

선교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선교의 계획을 진행해 가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기근의 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한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셨다.

애굽으로 팔려간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나라의 모든 곡식 창고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극심한 기근이 찾아 왔고 야곱의 가족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모든 가족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의 가족은 애굽에서 거대한 가족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하시었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사로 이스라엘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맡겨진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

출애굽기 19장 4-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다른 나라를 위한 제사장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다른 국가 사이에서 하나님의 통로와 대사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감당할 사명이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거룩하고 구별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이방나라에 전해져야 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만을 따르는 민족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공동체의 좋은 본보기인 것이다(톰슨 1992:69-70).

출애굽기 19장 4-6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세 가지 사역을 말해주고 있다.

첫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 소유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땅에 붙어 있지 않은 모든 종류의 갖고 다닐 수 있는 물건 즉 보석 등을 의미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다닐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제사장 나라”라는 소유격 구문은 왕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족 제사장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의미를 전달해 준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선교적 역할에 대한 증거가 된다(원터 & 호돈 2009:34). 이스라엘은 공동체로서 전체가 민족과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했다. 이 제사장 역할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 이시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 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인 것이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역할은 거룩함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온전함을 가져야 했다. 이것은 어원적으로는 같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드러져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과 말씀을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전해야 했다. 이런 이유에서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전체로 삶과 예배에서도 구별되어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함으로 단장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 이 기록된 율법은 경제, 사회질서, 인간관계, 국가의 역할, 정치, 사회 등 모든 삶의 국면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툼슨 1992:70).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430년 전의 사람이었다(갈 3:17).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룩함과 구별을 위해 율법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나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의 참된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인간 스스로는 근본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이 완전한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하신 일과 거룩하심과 영광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사역을 갈망하게 했다(박영호 2004:91).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다 같은 연속성에 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참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 모세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품으셨던 뜻은 출애굽기 19장 5-6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놀라운 소망을 품으셨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고자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고자 하셨으며 나아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경고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도록 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그의 말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출 8:1). 즉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는 뜻과 목 가운데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기 원하셨다. 그리고 모세는 이 역사에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 선교 비전은 먼저 모세의 것이 되어야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야 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 주셨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출 3:7-8). 그리고 이 일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하셨다. 모세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험난한 40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이 선교 비전을 붙들었으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강하게 도전했다. 홍해 바다라는 불가능한 장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때도,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출 14:13)고 말씀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놓치지 않도록 격려했다.

지도자는 선교적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선교적 비전을 품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선교적 비전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사람이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하고 죽었지만 그의 선교적 비전은 여호수아에게 전수 되었고 결국 여호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게 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리더십

지도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모세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을 보여준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었던 지도자였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하시며.” 민수기 12장 8절에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는 대목이 있다. 신명기

34장 10절에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껍질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 얼굴의 이 광채로 인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이 때문에 모세는 수건을 취하여 자기 얼굴을 가릴 수 밖에 없었다(출 34:30-35).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지도자였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도자는 평생에 걸쳐 유지해야 한다. 전가화는 그의 책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에서 지도자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히 행하며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전가화 1988:30). 필자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해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지도자는 더 이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생에 걸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모세의 리더십이 이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성숙한 인격에 바탕을 둔 리더십

존 맥스웰은 그의 책 ‘리더십 불변의 법칙’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언제나 내적 성품에서 출발한다고 말하면서 성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맥스웰 2017:54). 성숙한 인격을 지닌 지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진한 향기가 난다. 품성은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이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평가하고 있다. 모세는 내적으로 성숙한 품성이 준비된 지도자였다. 지도력은 지식이나 지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에 바탕을 둔 리더십은 영향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리더십이 사람을 결국 변화시킨다. 그리고 성품에 기반한 지도자의 비전을 보고 사람들은 비전을 향해 함께 가게 된다. 모세의 리더십은 인격과 품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모세의 인격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전 생애를 통해 다듬고

훈련한 리더십 훈련의 작품이다. 내적으로 성숙한 품성에 기초한 모세의 리더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리더십에 대한 신약성경의 이해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개념

신약에서 리더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 다스리는자, 조성사, 주인, 바로 놓는자, 앞에 서 있는자, 안내자, 두목”으로 표현하고 있다.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이종영 1992:2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스리는자: 고린도 전서 12장 28절에 나오는 의미로서 이 말은 본래 ‘배의 키를 잡은 자’를 뜻한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란 대중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자이다.

조종사: ‘조종사, 선장’을 의미한다(행 27:11). 역시 배의 질서와 나아갈 길을 결정하며, 운전하는 자이다.

주인: ‘주(主)가 되다’는 뜻이다(롬 14:9). 이 말은 위에 주인으로 군림한다는 뜻이다.

바로 놓는자: ‘질서있게 비치하다, 바로 놓다, 혹은 재생한다’는 뜻이다(엡 4:12).

앞에 서있는 자: 이 말은 ‘앞에 선다’는 뜻이요, ‘앞에 둔다’는 뜻이다. 이 용어는 본래 ‘관장하다, 지도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은유적으로 쓰일 때는 ‘위에 군림하다, 권위를 주어 임명하다’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앞에 서는자, 혹은 보호자, 후원자’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롬 16:2).

안내자: ‘안내자, 선생, 교사’란 뜻이다. 즉 리더란 바로 가르쳐 안내하며, 인도하는 자이다(마 23:8-10).

두목: ‘머리, 두목’으로서 이 말은 인간이나 동물의 머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또한 점, 끝 등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뱃머리, 벽의 꼭대기, 강의 하구 또는 원천을 의미하였다. 소중한 사람, 위대한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때로는 건축물의 머릿돌을 의미하기도 한다. 구약과 달리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리더라는 용어가 조금 더 다양한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 사례

신약 성경에는 수많은 리더십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필자는 그 중에서 예수님의 리더십과 사도바울의 리더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님의 리더십

4복음서는 예수님의 리더십의 모범들로 가득 차 있다.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리더십은 성숙한 제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찾아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자가 또 같은 일을 반복함으로써 리더십의 효과를 누리게 한다. 즉 사역의 중심이 제자를 만드는 것임을 보여준다. 마가복음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양육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복음을 먼저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누가복음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의 부흥과 개인의 부흥을 통해 선교적 부흥을 기대한다. 회개 없는 회심은 불가능하다. 죄의 깨달음과 사함이 없는 목회사역은 죽은 것이다. 회심은 개인의 부흥이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그들을 섬기는가에 대한 그리고 삶의 모습을 통한 생활복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리더십은 리더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육신적인 리더십을 통해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요한 복음은 이런 리더십 방법을 말하고 있다(이재환 2007:233-234).

위에서 언급한 4복음서의 주님의 리더십 방법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 이 관점을 전제하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님은 리더십의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셨다.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행동으로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배가 운동을 마련하셨다(윈터 & 호돈 2009:115).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제자를 삼는 것이고 킹덤 리더십을 통해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그 길을 향해 이끄시는 것이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리더십에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예수님은 선택, 동거, 헌신, 분여, 시범, 위임, 감독, 재생산에 집중하셨다는 점이다. 특히 예수님은 소수에게 집중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Coleman 1987:24). 이것은 리더십의 본을 보여 주신 것인데, 리더는 결국 또 다른 리더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예수님의 리더십 특징을, 수용성 있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움을 통한 리더십, 사랑과 생애를 쏟는 제자양육을 통한 리더십, 순종의 삶을 통한 리더십, 성령을 통한 리더십, 기도를 통한 리더십, 전도의 본을 통한 리더십, 실제 훈련을 통한 리더십, 코칭(Coaching)과 멘토링(Mentoring)을 통한 리더십, 역동적인 배가운동을 통한 리더십, 세계선교의 비전을 통한 선교 등 열 가지로 정리하였다.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리더십의 특징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수용성 있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움을 통한 리더십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눅 6:13). 그리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주님을 따랐다.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적 목표는 그가 아버지께로 되돌아 가신 후 그의 생애를 증거하고 그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이었다. 주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노동자들이었다. 중심인물이 될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없었다. 직업에 필요한 지식 외에는 아무런 전문적인 훈련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제자들 안에는 유대인들이 무척 싫어했던 세리, 열심당원, 학식이 부족한 어부들이었다. 세배대의 아들들처럼 부유한 가정에서 오기도 했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참으로 부유했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은 갈릴리 주변의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 자라났다. 세련된 문화도 철학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때론 충동적이었고, 신경질적이고, 쉽게 노하며, 환경으로 인한 갖가지의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다.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룹이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참으로 무식하고 무지했지만 그래도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배움에 있어서 수용적인 사람들이었다. 비록 판단에 실수가 많았고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는 데에 더디기는 했지만 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필요를 기꺼이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의 생애의 실재들에 대한 진지한 열망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눅 6:13-16). 예수님은 지상에서 남은 생의 대부분을 소수의 제자들에게 바치셨다. 자신의 전 사역을 그들에게 집중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일들도 잊지 않으셨다(마 14:13-21).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또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마 4:23-24).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우셨다(요 11:34-35).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의 생애를 비교적 그렇게 적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셨는가? 주님은 수많은 추종자들을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셨다. 강력한 신앙의 군대를 조직하여 세상을 강타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감동시키려 하지 않고 한 하나님의 나라를 안내하려 하셨다. 주님은 군중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셨다. 양들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에 무리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셨다. 주님은 그를 대신하여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양육하여 그들을 통하여 양무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한 사람의 제자가 중요하다. 한 사람의 예비 리더가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과 열방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생애를 쏟는 제자양육을 통한 리더십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요 16:9). 예수님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만들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 생명 공동체로 세워져 세계 선교의 모판이자 리더십 훈련의 모판이 되기를 소망하셨다. 이 소수의 무리를 통해 세계선교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 예수님의 리더십 전략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처럼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생애를 나누는 살아 있는 교제를 하셨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요 13:1).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은 예수님 존재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 나왔다. 억지나 인위적인 것이 아니었다(마살 2011:99).

함께 하심으로 생생한 시청각 교육을 하셨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양육 방법이었다.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법은 자연의 모든 것이 시청각 자료로 사용되었다(요 6:26-30). 형식이 없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할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다. 요한과 안드레에게 주님 “와 보라”(요 1:39) 고 초청하였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의 성품과 사역을 친밀하게 투시해 볼 수 있었다. 주님은 빌립에게도 “나를 좇으라”(요 1:43) 하며 초청하셨다. 후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잡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막 1:17; 마 4:19; 눅 5:10)하며 부르심의 이유를 말씀하시며 부르셨다. 마태도 세관에 앉아 있었을 때 “나를 좇으라”는 같은 초청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막 2:14; 마 9:9; 눅 5:27)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믿음이 더욱 확고하게 될 수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주무셨고, 대화 하셨고, 나누셨고, 함께 여행하셨고,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으며, 함께 사막과 산에서 기도했으며, 함께 회당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함께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은 함께하시는 방법을 통해 제자들이 주님의 삶과 리더십의 방법을 배우게 되길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다. 작지만 이 공동체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진정한 하나되기를 원하셨다.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이 전 삶을 다해 쏟아 부어 만든 12명의 제자 공동체도 삼위일체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의식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원하셨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다. 예수님은 중보기를 하시면서 “우리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삼위일체 공동체가 최초의 공동체라면,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도 이 하나됨이 가능하기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다(도나휴 & 로빈슨 2004:43).

이처럼 주님의 사역의 모든 현장에는 항상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제자들은 주님의 생명을 쏟아 부으시는 타오르는 구령의 열정과 사랑 그리고 헌신적 사역을 가까이에서 온몸으로 배울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소수를 선택하시고 집중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신 것은 계획적인 리더십 전략이었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처럼 제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 지도자는 걸어 다니는 교과서와 같다. 삶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삶과 사역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순종의 삶을 통한 리더십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여 주셨다(요 4:34). 하나님 뜻에 대한 절대적 순종은 주님 자신의 생애를 지배하는 원리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통해 일하는 것이 사역의 핵심이기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마 26:42). 또한 예수님은 함께하는 제자들이 순종할 것을 기대하셨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른 어떤 지식이나 경험보다 우선적인 것이다. 제자들이 요구 받은 것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뿐이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부르심에 대한 순종함이 있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전 생애를 그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으로 주님에게 항복하는 것을 뜻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훈련에 따르며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지도자를 따르는 것을 먼저 배우기 전에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훈련의 필요와 권위에 대한 존경을 훈련시키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훈련되어 갔다(마 4:19). 제자들은 그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에게서 순종을 배워야 한다. 지도자들은 순종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순종에는 희생을 포함하는데 제자들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

성령을 통한 리더십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마 3:16).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권능과 함께 한 사역이었다(눅 4:1, 14).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관련하여 그의 행한 것이 “주의 영”과 협력하여 한 것임을 선포함으로써 처음부터 이 진리를 강조하셨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령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눅 4: 18-19).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말했다(마 3:11). 복음사역은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예수님은 자신도 성령과 함께 일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도 성령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 성령님은 성도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진리의 영 이시기에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사람들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또한 장래 일을 말해 주시며 무슨 말을 해야 할까를 알려 주신다(요 14:16, 26; 15: 26; 16:7-14; 마 10:19-20).

예수님은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행하신 사역의 끝이 다가오자 더욱 상세하게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 나라로 되돌아가신 이후가 문제였다. 바로 이런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주님은 성령 안에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요 14:17). 예수님과 똑 같은 “다른 보혜사”는 그들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 주실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해 하였고 제자들에게 바로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요 20:22). 그리스도는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꽃을 일으키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듀웰 1993:25).

복음사역은 인간의 지식, 경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역 현장에서 모든 장벽과 영적 방해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힘이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다. 모든 형태의 복음사역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은 선교를 가속시키는 촉매적인 역할을 한다(김진호 1989:59). 성령님의 권능은 리더십의 최고의 전략 중 하나이다.

기도를 통한 리더십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다(막 1:35). 바쁜사역 중에서도 기도를 하셨다(마 14:23). 제자들은 기도가 주님의 삶과 사역에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강요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계속 기도하심으로 마침내 제자들도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다. 주님은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셨다(마 6:6-13).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내용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해 달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처럼 기도의 삶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그리고 가르쳐 주심으로 사역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막 9:29). 이런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의 삶에서도 기도는 우선순위가 되어갔다(듀웰 1993:275). 복음사역은 무릎으로 가능하다. 즉 시역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 기도의 지원이 없는 사역은 힘이 없고 영혼을 변화 시킬 수 없다. 기도는 사역의 현장에서 영적싸움의 강력한 무기이다(단 9:20-23).

전도의 본을 통한 리더십

예수님은 친히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마 4:17-25; 11:1; 요 4: 1-30).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품고 계셨고 그것을 삶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교육하셨다. 예수님은 동네에서 동네로, 마을에서 마을들로, 지역에서 지역들로 다니며 영혼구원에 전력을 다하셨다. 각 성들과 각 촌들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주님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삶을 사셨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해 끊임없이 찾아 다니셨다. 병자들, 귀신 들린자들, 세리와 창녀까지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4장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유대인들이 가기를 금기시하는 사마리아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열정을 보여 주고 있다. 사마리아 수가 성 우물가에서의 한 여인과 나눈 생명의 대화는 선교관점에 비추어 볼 때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사마리아인들은 700년 전에 앗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온 외국 민족으로 이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말았다(할레이 1991:576). 그로 인해 유대인들과 이들 간의 반목은 1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관계를 깨고 금기의 지역을 찾으셨다. 이것은 구원이 육체의 혈통이나 국경을 초월하여 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자 이 구원의 사건은 사마리아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요 4:39).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열정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진정 부흥을 원한다면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과 불타는 열정을 소유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없이는 세상에 대한 궁극적 승리도 없다. 복음사역은 리더십의 발휘는 한 영혼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가는 리더십 전략을 실천하셨다.

실제 훈련을 통한 리더십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부여하셨다. 그러나 혼자 사역을 감당하게 하지않고 짝을 만들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막 6:7). 자들은 먼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갈 것을 예수님께 명 받았다. 이스라엘 같은 동족은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그들과 비슷한 사람들 이기 때문에 동질감이 있다. 선교를 그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선교학적 용어로는 M-1이나 E-1에 속하는 접근이었다. 이 용어는 문화적 거리에 따른 선교유형을 말한다. 즉 M-1은 같은 문화와 같은 모국어 환경을 말한다. M-2는 약간의 문화적 거리가 있는 환경 즉 자국 안에 있는 다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교 환경을 의미한다. M-3은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의 선교적 환경을 뜻한다(Winter 1970:22). 이 용어는 후에 선교(Mission)를 뜻하는 M에서 복음전도(Evangelism)을 뜻하는 E 채택되어 E-1, E-2, E-3으로 전환되었다(Winter 1973:10-13).

이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 8장의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과 주님의 만남은 E-2에 해당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좀더 구체적인 전략과 원칙들을 말씀해 주셨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마 10:11-12).

이것은 복음에 수용성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으라는 사역전략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 10:16).

다양한 상황과 영적 방해 등이 예상되는 현장에서 이것은 리더십 전략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7-8).

오늘날 이런 사역이 절실히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순종할 때 이 보다 더 큰 역사도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큰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거저 주라고 하신 말씀에 복음사역은 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것은 리더십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지도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피와 물까지도 다 쏟아 주셨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마 10:9-10).

이것은 재정원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다. 재정원리의 기본은 믿음선교(Faith Mission)에 있음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이다.

사역 현장에서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면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원리를 주님은 강조하셨다. 지도자들은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한다(마 6:25-34). 복음사역을 명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또 완성하실 하나님께서 재정의 원천이시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버지 이시기에 또 기업이시기에 지도자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한다. 복음사역은 구걸이 아니다.

제자들에게 사역을 부여하시면서 예수님은 고난도 따를 것을 말씀해 주셨다(10:17-23절). 사역을 감당하면서 배척과 미움 그리고 핍박이 따를 수 있다. 주를 위한 고난은 영광이다. 우리가 날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고난도 함께 하는 동역자가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실제 훈련을 통한 리더십” 부분 서두에서 언급한 돌씩 보낸 의미를 다시 살펴 보기로 한다. 함께한다는 것은 사역에 큰 버팀목이 되기에 그만큼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돌씩 돌씩 보내시며...”(막 6:7).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역지로 보내실 때 돌씩 돌씩 짊을 지어 팀으로 일하시게 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님은 다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 할 때도 두 명씩 보내셨다. 복음사역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의 사역환경은 지도자들이 협력으로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함께 일할 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함께 할 때 서로 돕고 위로할 수 있다. 팀 사역은 복음사역의 추진력을 제공한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복음사역을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사역의 지역과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셨으며(행 1:8) 결국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의 범위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성령님과의 동역함으로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과 성도들과의 협력과 동역과 함께 그리고 동료들과의 상호 협력과 함께 동역함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임을 예수님의 리더십 방법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코칭(Coaching)과 멘토링(Mentoring)을 통한 리더십

코칭과 멘토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인격이다. 멘토링의 기본 원리는 인격이 지도자의 영성에 묻어져 나올 때 사역의 열매가 풍성해 진다는 사실이다(Barna

2000:427-432).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보고도 들으며 사역의 축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셨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역에 대해 보고하였다 (막 6:30; 눅 10:17). 예수님은 제자들의 복음의 승리에 대한 보고를 듣고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충고를 잊지 않으셨다. 그것은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었다(눅 10:17-24).

예수님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보람과 기쁨의 이유가 사역현장에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다. 사역 현장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자칫 복음 전도자들은 교만해질 수 있다. 능력과 기적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비전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비전을 공유하기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을 전폭적인 승리를 경험하도록 그들을 격려하며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사역을 나누고 점검하셨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코칭이나 멘토링을 포함한 Fathering 즉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로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이들의 사역과 삶을 살피시고 올바른 방법과 방향을 향해 가도록 하셨다. 리더십의 최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아버지 심정을 갖는 것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역동적인 배가운동을 통한 리더십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셨다. 사역에 있어서 재생산 혹은 배가운동, 번성과 증식운동은 무척 중요한 말이다. 모든 살아있는 건강한 생명체는 계속해서 자라고 증식하기 때문이다. 자라지 못하고 증식하지 못하는 것은 병들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 공동체는 강력한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고, 부흥하고, 증식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열매 맺을 것을 기대 하셨다(요 15:1-8).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불러낸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 재생산을 하게 하셨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그들이 주님의 생애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열매를 맺어야 했으며(요 15:5, 8),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열매는 낚아야 한다(요 15:16).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으로 요약된다(마 28:19). 이 명령은 헬라어 본문을 살펴볼 때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는 단어들은 모두 분사로써 “제자를 삼으라”에서부터 그 의미를 가져온다.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만 목적을 나타내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이다. 즉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도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라는 의미인 것이다(박영호 2004:125-126). 즉 이것은 영적 재 생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사역 과업의 완수는 계속적으로 예수공동체들이 왕성히 자라가며 성장하고 또 증식하며 계속해서 열매를 생산해 내는 재생산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이 배가운동은 리더십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리더십 전략인 것이다.

세계선교의 비전을 통한 선교

예수님은 점진적으로 세계 선교 비전을 말씀하셨다. 즉 나사렛- 다른 동네 - 다른 마을- 다른 지역- 모든 족속-땅 끝의 순서를 제시하였다(마 11:1; 막 1:38; 마 9:35; 행 1:8). 또한 마태복음 8장에서 로마 백부장과 만남을 통해 이방 선교가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예표적으로 알려 주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사역의 흐름과 방향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이재환 2007:221).

필자는 예수님의 세계비전을 통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비전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하셨지만 세계를 품은 제자 또는 예비 리더를 길러내어 예수 공동체를 세계 곳곳에 만들어 가게 하시는 방법으로 세계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선교 리더십을 완벽하게 발휘하셨다. 예수님은 리더십 분야의 최고전문가이시다.

사도바울의 리더십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다. 교회 역사에 끼친 그의 영성과 지도력과 영향력은 지대했다. 그는 위대한 변증가였고(행17: 18-34), 위대한 설교자였다(행19: 10). 그는 디모데, 아볼로,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가 같은 지도자를 길러낸 위대한 지도자였다. 존 맥스웰은 “사도바울이 없었다면 1세기의 세상은 전혀 다른 곳이 되었을 것”(맥스웰 2017:367)이 라고 말하면서 사도바울이 끼친 리더십의 위대성을 강조하였다. 사도바울의 주를 향한 열정의 삶, 인격, 깊은 영성, 설교, 타 문화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제자훈련, 목회적 지도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고 배워야 할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루셨고, 어떻게 리더십을 훈련시켜서 그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바울의 리더십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에서 출생했으며(행 21:39)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고(빌 3:5), 히브리 신앙의 규율 안에서 성장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행 23:6),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 그는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 엄한 교육을 받은 히브리인중에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다(행 22:3). 따라서 바울은 학식이 많았으며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 헬라의 문화와 철학을 배웠다. 바울은 자기의 학식과 총명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데 앞장서게 되었다. 바울은 스테반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에 있었으며(행 7:54-60), 스테반의 처절한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행 8:1, 3),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행 9:3-19).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 죽음(행 9:20-25)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제1차 전도여행(행 13:2-14:28), 제2차 전도여행(행 15:36-18:22), 제3차 전도여행(행 18:23-21:14)을 거쳐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 바울이 이처럼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인정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영향력 있는 리더십에 근거하였다고 본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적 리더십

헨리 블랙커비는 영적 리더십을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라 말한다(블랙커비 2017:18). 필자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도바울의 리더십 중에 중요한 특징은 그가 영적 리더십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영적 리더십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기인하고 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이 소명을 붙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위의 바울의 말에 근거할 때에 그가 사람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우선시 하였고 또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영적 합일의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보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서신서의 사도바울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의 정수라 볼 수 있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 20).

사도바울이 지녔던 영적 리더십은 말씀을 전하거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자를 양육할 때 등 사역 전반에 영향력을 주었다.

리더를 세우는 리더십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8절에서 그의 사명을 말하였는데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었다. 데이빗 라고 왓슨은 바울의 이 고백을 제자 삼기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왓슨 2009:120). 즉 바울은 지도자를 찾아 지도자를 훈련하여 세우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사람을 세우려는 열정을 가진 지도자였다. 그는 가는 곳 마다 몇 칠, 몇 달, 몇 년에 걸쳐 공동체와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였다(행19:9-10).

사도바울은 리더가 될 재목을 찾아 훈련하였다. 그 중에는 이미 지도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던 실라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친 자식처럼 키우고 양성한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었다. 사도바울은 사람을 선택하여 지도자로 세움에 있어서 배경을 따지지 않았다. 예비 지도자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가르치고 보게 하고 동참하게 하였다(맥스웰 2017:368).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셨다. 사도바울도 사역 내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였다. 바울은 사람을 세울 뿐 아니라 그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세운사람들과 협력하여 목회를 하였다(Wilkes 2006:32).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고 말하면서 세운 제자에게도 자신과 같이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리더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리더를 온전히 세우는 사도바울의 지도력에서 얻은 교훈은 추종자를 모으는 지도자와 참된 리더를 양성하는 지도자는 그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사도바울은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넘겨 줄 수 있는 지도자였다. 예비 지도자들의 약점을 보기 보다는 강점을 보았다. 자신의 삶과 시간을 예비 지도자를 위해서 쏟았다. 예비 지도자들에게 큰 헌신을 요구하였다. 이 세대만이 아닌 다음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사랑의 리더십

사도바울은 사랑의 사도였다. 그는 사랑의 리더십을 갖고 있던 지도자 였다.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사도바울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고 고백하였다. 바울의 리더십은 전통적인 권위형 리더십이 아니었다. 사도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한 사도였다. 예수님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요15:9).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바울은 온전히 실천하였다. 사도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면서 그의 사역이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고린도 전서 13장은 대표적인 사랑 장이다. 사도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사랑의 지도력은 성경이 제일 강조하는 지도력임을 알 수 있다.

사도바울은 눈물의 지도자였다.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눈물로 양들을 돌본 눈물의 지도자임을 알 수 있다. 이 눈물은 자신의 죄와 부족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흘린 눈물이다.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낮춰서 그 어떤 섬김의 일도 감당하고자 하였고, 사람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수고를 값없이 내어 주고자 하였다. 그는 친밀한 교제와 공감으로 구성원을 섬기는 사랑의 리더십을 소유한 리더였다. 바울의 사랑에 기반을 둔 리더십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자들아 이와 같이 주안에 서라”라고 전하고 있다.

사랑의 리더십은 리더가 그에게 맡겨진 조직 안에 영향력을 발휘할 때 기본 전제가 사랑을 통해 조직 안에 구성원 간에 긴밀한 교제와 공감으로 구성원을 섬기는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바울의 사랑의 리더십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다(요 13:1). 지도자는 바울과 같이 사랑의 리더십에 기초해야 한다. 사랑의 리더십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섬김의 리더십

사도바울은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겹손을 볼 수 있다. 본문 19절에서 사용된 겹손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직역하자면 ‘겸비한 생각’이다. 이것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두며(롬 12:16),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Dunn 2008:761).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겔옷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당부하셨다(요 13:14-15). 섬김의 리더십은 지도자의 성품 즉 본성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며, 다른 사람들과 능력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전가화 목사는 그의 책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의 자질을 열거 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자질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다(전가화 1988:89-90). 섬김은 결국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마음 가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도바울은 전혀 동떨어진 화려한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수준에 맞추는 방법으로 사역을 한 지도자였다.

성경은 분명히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마 23:12; 눅 14:11; 18:14).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 겸손할수록 지도의 능력은 그만큼 증대되는 것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기꺼이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크리스천 리더는 예수님과 같은 겸손의 본을 배워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

본을 보이는 리더십

사도바울은 디모테전서 4장 12절에서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되라”고 말하였다. 본을 보이라는 사도바울의 당부는 디모테가 리더십을 인정 받기 위해서 좋은 본을 보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본을 보이는 리더십의 원조는 예수님이셨다. 굴림이나 독재가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방식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의 정수이다. 존 스토틀트는 “지도자들이 때로는 권위를 의심 받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저항을 겪을 때 더 강하게 나가려는 유혹을 크게 받는다. 하지만 지도라는 그런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도자는 철저히 본을 보이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스토틀트 2016:84).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가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고 당부하였다. 지도자는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사도바울은 본을 보이면서 즉 모델링을 통해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본을 보이는 지도력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 리더의 모본은 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리더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기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한 때 한국 기독교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아 한국 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도자는 말한 바를 실천으로 보여 주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리더가 모본을 보이는 것은 리더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이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알았다. 에베소 사람들은 모두 바울이 진실 되고 은혜가 깊으며 하늘에 속한 심령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자들처럼 사람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빌레몬서도 바울이 본문과 같이 모본을 보이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직접 모델이 되어주는 모델링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다. 권위형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들은 카리스마를 과시하면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대해 권위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기 자신은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명령을 통하여 구성원들을 통제한다. 그러나 바울이 보여준 리더십은 그렇지 않다. 그는 자신의 개인생활에 그리스도를 따르며 본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사도바울의 모델링 리더십은 지도자는 믿음, 사역, 가정, 인간관계, 성품 등 등 삶의 전체를 통해서 본을 보여야 한다는 점과 본을 보여주는 리더십은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다음세대를 세우는 리더십

하나님의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지도자를 세워 리더십을 이양하는 능력은 지도자의 리더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도바울은 수많은 지도자들을 세운 지도자였다. 지도자를 만드는 지도자였다. 지도자가 다음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은 없다. 오늘날 정치, 회사, 교회, 기독교 기관 등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지도자들이 다음 지도자를 잘 세우지 못해

공동체과 조직이 와해 되는 일들을 쉽게 접하게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리더십 원리이다.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디모데 등등 성경에서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리더십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을 뿐 아니라 그들을 교육하여 함께 협력하여 목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리더는 좋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주위에 두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과 책임을 분담시키는 위임의 기술을 사용했고, 이를 위하여 새로운 리더를 계속 개발시켰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비롯한 많은 감독과 집사들을 세워 그들을 가르쳐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다. 바울 자신이 교회의 리더였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많은 리더들을 가르치고 발굴하여 키워낸 것이었다. 그가 길러낸 리더들을 손꼽아 보면 수없이 많음을 발견하게 된다. 디모데, 실라, 누가,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볼로, 디도 등의 인물들이 있다. 바울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동역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에게도 이것을 명심토록 하였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고 하였다. 바울은 자신도 그렇게 했지만 자신이 세운 제자에게도 자신과 같이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리더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의 사역을 살펴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아 놓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였음을 깨닫게 된다. 회당이나 학교 등에서,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달씩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리더가 될만한 제목들을 발굴하여 사역을 맡겼다. 이처럼 지도자양성은 어느 시점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바울이 다른 리더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결과는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였다.

사도바울의 리더십은 이처럼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후진 양성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줄 아는 것이 참된 리더십임을 말해준다. 이처럼 지도자는 타인의 성장과 성공에 일시적

도움이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유익을 제공하면서 예비 지도자들을 성장 시키는 사람이다(맥스웰& 도넨 2010:182).

리더는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위대함과 성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리더십을 소유한 참된 리더이다. 바울도 이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사람을 세우는 위대한 리더였다. 지도자는 다음세대를 위해 지도자를 세워야 하고 세워진 지도자는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의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을 통해 살펴 보았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바울은 영적리더십, 리더를 세우는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본을 보이는 리더십, 다음 세대를 세우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닮는 리더십을 추구하였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요약

제2장에서 필자는 리더십에 관한 성서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 그리고 사도바울의 사례를 살펴 보았다. 모세의 리더십 특징은 1.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주 바라기 리더십, 2.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가진 리더십, 3. 선교적 리더십 4.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리더십), 5. 성숙한 인격에 바탕을 둔 리더십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 보았다. 예수님의 리더십의 특징은 1. 수용성 있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움을 통한 리더십, 2. 사랑과 생애를 쏟는 제자양육을 통한 리더십, 3. 순종의 삶을 통한 리더십, 4. 성령을 통한 리더십, 5. 기도를 통한 리더십, 6. 전도의 본을 통한 리더십, 7. 실제 훈련을 통한 리더십, 8. 코칭(Coaching)과 멘토링(Mentoring)을 통한 리더십, 9. 역동적인 배가운동을 통한 리더십, 10. 세계선교의 비전을 통한 선교 등 열 가지로 정리하였다.

사도바울의 리더십의 특징은 영적리더십, 리더를 세우는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본을 보이는 리더십, 다음 세대를 세우는 리더십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리더십 훈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성서적 관점 연구를 통해 살펴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나님께서 양성하신 지도자였다.

둘째, 하나님은 지도자를 길러내시기 위해 예비 지도자의 삶 전체에 개입하시어 이끄셨고 훈련하셨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훈련자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받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셋째, 훈련자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지도자 훈련 과정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고 훈련에 참여하였다. 바울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변하여 수많은 지도자를 길러내는 지도자가 되었다.

넷째, 예비 지도자들을 길러내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였다.

다섯째,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평생을 통해 유지하였다. 존재로부터 사역이 흘러나와 사람들과 공동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제 3 장

중국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

중국교회의 역사적 이해

중국의 교회역사는 중국의 선교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라토렛은 최초의 중국 선교역사를 주 후 50년 사도 도마와 연관 지어 추정하였다(Latourette 1929:48). 또 어떤 중국의 학자들은 동방박사 중 한 사람은 중국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나라 시대 궁정 천문학자였던 리유상이 당시 왕의 별이라고 불리던 새로운 별을 발견하고 그는 2년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당시 리유상이 이 별을 따라 실크로드(비단길)를 통과하여 예루살렘까지 갔다 왔다고 믿고 있다(헤터웨이 2005:33-34). 놀랍고 흥미로운 사건이다.

중국선교역사는 크게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당나라 시대의 경교선교, 원나라 시대의 서구선교, 16세기의 예수회 선교, 19세기의 개신교 선교이다(전호진 1995:116-125). 중국선교의 시초는 당대의 경교선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것은 동방교회라고 하는 네스토리우스교 선교(618-907년)를 말한다(아이크만 2005:46).

중국의 기독교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은 시안 비림박물관에 있는 대진경교중국유행비석(大秦景教中國流行碑石)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비석의 기록에는 635년에 기독교가 최초로 중국에 전파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중국에 처음 기독교를 전한 사람은 알로펜 중국식 발음으로는 아라본(阿羅本, Alopen)이었다. 이들은 천 년 동안 중국과 지중해권의 주요 통로이자 교역로였던 고대 실크로드를 거쳐서 페르시아로부터 왔다(2005:44-45). 그는 당나라 장안에 처음 도착하여 당시 태종 황제로부터 환영을 받고 궁중 도서관에서 경전을 번역하였는데 당 태종은 이 경교를 무척

존중했고 국가에서 이 경교를 공인하게 하였다. 태종에 이은 고종 황제의 통치기간에도 경교는 더욱 견고한 지위를 얻어 당시에 국내 13도 358주에 경교 사원을 하나씩 건축하게 하였다. 그러나 고종이 죽은 후 불교의 숭배자인 즉천무후가 집권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경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박해는 무종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었다(이장식 1990:222-223). 그러나 무종 전 현종 때는 박해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네스토리우스 선교사들은 중국어에 능통하지는 못했지만 중국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려 했다. 그리고 이들은 지나치게 황제를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문에 지방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는 실패하였다. 네스토리안교는 금욕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또 경교비의 내용을 보면 창조, 타락, 메시아의 출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어 기독교적인 것처럼 보이나 구문과 단어, 연꽃모양 등에서 도교적인 성향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아이크만 2005:48). 즉 네스토리우스 선교사들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또 동쪽을 향하여 절하고 예배시에는 목탁을 치는 등 경교는 이단 혼합종교와 다를 바가 없었다(전호진 1995:117-118). 당나라가 쇠퇴하자 비단길의 여행도 위험하게 되었다. 결국 네스토리우스교는 모교회로부터의 고립과 중국인들로부터도 버림받고 10세기경 중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김학관 2005:34-35).

원대에는 광범위한 정복으로 인해 이미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게 되었고 원나라는 포용정책을 쓰기도 하였다. 마르코 폴로의 중국 여행과 여행문을 통해 로마의 관심은 중국에 쏠렸다. 로마 교황청은 원 조정에 사절단을 보내어 화친하고자 하였다(傳樂成 1979:723). 프란체스코 수도사 요한 몬 콜비노를 필두로 원에 대한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몽고 시대의 선교는 복음의 열정 보다는 정치성을 띤 선교가 강했다. 예를 들면 몽고의 쿠빌라이가 로마 교황에게 종교와 예술에 있어서 탁월한 선교사 100명의 파송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많은 백성들이 개종할 것이라고 했으나, 교황이 파송한 선교사들은 선교보다는 정치에 목적을 두었으며 몽고군의 사정을 파악하는데 더 열심이었던 경향이 있었다. 선교역사에서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몽고시대의 선교에도 교회들이 설립되었고 약 6,000여 명의 신자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성공하였다(전호진 1995:119-120). 그러나 원 말기에 반 외세 감정으로 인해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원나라도 명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다. 원에 대한 적대감의 표시로 원나라에 이어 세워진 송은 기독교를 야만시 하였고 개종자들도 추방해 버렸다(김학관 2005:35-36).

명나라 시대와 청나라 시대에는 예수교 선교사들의 선교의 도전이 있었다. 1583년 마태오 릿치에 의해 예수회 선교사업이 시작되었다. 릿치는 선교회 방침에 따라 상류층에게 관심을 갖고 전도하였다. 리치와 동료수도사들은 중국의 학자, 관리들과 친분을 갖고자 노력했다. 이들은 중국문화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결국 많은 학자들이 기독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들 기독학자들은 릿치의 사역에 도움을 주었다. 황제 또한 리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릿치와 예수회의 활동으로 프란체스칸과 도미니크교회들의 선교가 뒤를 이었다. 또한 중국 최초의 성직자 로웬샤오가 주교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회와 도미니크교회와의 의식논쟁에서 교황이 예수회에게 불리한 재판을 내리자 황제는 이를 황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릿치를 따르는 수도사 이외의 선교사들을 추방하였다. 그 이후 많은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졌다. 예수회 소속 선교사들의 선교에 문제점도 드러났다. 비단사업에 선교사들이 깊이 관여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성도들을 선교사들의 특재 아래 두어 살게 하면서 일반사람들과 구별하게 한 것도 문제가 되었다. 반 외세 감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따랐을 때, 중국인 성직자들은 생명을 걸고 몰래 전도를 하기도하였다.

19 세기말과 20 세기 초의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은 중국선교사에 큰 영향을 남겼다. 물론 한계는 있었다. 개신교 선교역사는 서양의 중국 침략사와 맥락을 같이했다. 바로 이점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 되었다. 선교사들의 중국 선교를 두고 19세기 서양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한 부분으로 중국인들은 여겼다는 것이다. 중국의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 개신교 선교사들은 중국에 들어 왔다. 런던 선교협회의의 파송을 받은 1807년 중국 광동에 도착한 모리슨 선교사를 시작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들어 왔다. 천주교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선교사들은 많은 노력과 헌신,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에 지속적 신앙의 기초를 마련했다. 개신교 준비기에는 마카오나 싱가포르가 중국선교의 전초 기지역할을 하였다. 영국인 윌리엄 밀, 프러시아인 구즈라프, 미국인 피터 파커등의 선교사들이 이 시기에 중국선교를 준비하며 언어와 문화를 익혔고, 학교, 병원 등 세워 의료 교육 분야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전도되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생겨났다. 리앙아파(1789-1855)는 이 시기의 중국인 최초의 목사요 선교사가 되었다(김학관 2005:57). 이런 준비기는 중국과 영국 사이의 아편전쟁으로 막을 내린다. 중국은 패배했고, 영국은 그 댓가로 중국과 조약을 맺어 광주, 상해, 푸주등 5개 항구에 개항을 보장받게 되었다. 홍콩은 99년간 영국에 양도되었다. 선교사들은 개항된 항구에 상주하며 그곳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 만주왕정을 몰아내고 태평이라는 이름의 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난이 생겼다. 1848년에 시작된 이 난은 결국 외국세력과 청의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1861년 베이징 조약으로 인해 선교사들은 중국 내륙에까지 들어가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854년에 영파와 산둥지역에 들어와 선교활동을 했던 미국 북장로회 소속의 네비우스(John Nevius 1829-1893)는 그의 중국 사역활동 중에 1890년 6월 7명의 장로교 선교사들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자신의 10가지 선교원칙을 제시했다. “당시 한국에 온 초기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선교사들이었으나 선교의 경험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당시 중국에서 사역하던 네비우스목사를 부부를 초빙하여 두 주간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원래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영국의 헨리 벤(Henry Venn, 1796-1873)과 루퍼스 앤드슨(Rufus Anderson)에게서 연유한다. 그러나 당시 네비우스의 저서 “선교교회의 설립과 발전”(The Plann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을 읽은데 원인이 되어 당시 한국에서 사역하던 원두우 선교사가 초빙한 것이다. 당시 한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은 이것을 ‘네비우스 선교정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원리로만 제시되고 많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나 한국에서는 중요한 선교원칙이 되어 복음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다(김해연 2006:547).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핵심은 자급(自給. Self-Support), 자전(自傳. Self-Propagation), 자치(自治. Self-Government) 삼자원칙(三自原則)을 말한다.

당시 콕안런(C. A. Clark)선교사는 네비우스 방법(Nevius Methods)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개인전도와 순회전도를 장려한다.

성경 중심의 사역을 실시한다.

자립 전도로서, 모든 기독교인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과 전도에 힘쓴다.

자립 정치로서 무보수로 일하는 전도인의 지도하에 교회를 운영하며 전도한다.

자립 경영, 교회건물은 자체 내의 자금조달, 교회가 조직되면 전도인의 사례를 지급한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로 각 기독교인이 성경 공부 반을 지도하거나 도울 수 있도록 한다.

다른 교회와의 협조를 장려하며 지역을 분할하여 일하도록 한다.

소송 문제나 유의 사건에 대해 선교사는 관여치 않는다.

주민들의 경제문제에 언제나 도와 줄 자세를 가진다(김해연 2006:547-549). 반면 1865년 허드슨 테일러(1832-1905)는 내지선교회(China Inland Mission)를 설립하고 1866년 절강성 항주에서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원칙:

- 1) 하나님의 충족하심을 의뢰하라.
- 2) 아직 아무도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라.
- 3) 그곳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라.
- 4) 믿는 자들을 가르치며 자국인 지도자를 훈련시키라.

또한 허드슨테일러의 지도를 받던 중국 내륙 선교사를 포함하여 많은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 선교를 하게 되었다. 기독교는 크게 확장되어 갔다(김학관 2005:89-91).

그러나 이와 함께 대두된 것이 반 기독교 운동이었다. 일부 중국인들은 선교사들이 외국의 군사력과 팽창주의에 의지하여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일부 선교사들은 제국주의 세력과 결탁하였고 심지어 조종당하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나치게 고압적인 자세로 중국인들을 다루었던 선교사들도 있었다. 이것은 중국인들에게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급기야 의화단 운동이 1899년경 산둥지역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 운동은 1900년에 전국적으로 번져갔다. 의화단 운동(1900-1901)은 중국인들의 서양에 반대하는 운동이자 선교사와 교회에 대한 전국적인 대항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나중에 청을 몰아내고 명나라를 다시 재건하자는 운동으로 발전되기도 하였다. 이 의화단 운동으로 수천 명의 기독교인과 선교사가 학살 당하였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00년경 말기에는 개종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이 되었다. 중국의 교회는 모든 면에서 성장했다. 복음은 중국 전역에 거의 전파되었다.

유럽의 1차대전의 패배로 서양의 제국주의는 급속히 쇠퇴하였다. 지도력 이양도 급속히 이루어 졌다. 독립교회의 수가 증가되었다. 토착교회들은 복음전파에 효과적이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도 배출되었다. 기독교 문화도 전파되었다. 기독교는 중국에 큰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박해도 어어 졌다. 그로 인해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나게 되었다.

중국 내에서는 내부적 갈등과 충돌이 이어졌다. 손중산에 의해 시작된 신해혁명은 1911년 10월 성공을 거두었고 결국 청조는 멸망되었다. 그리고 1912년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세워 지면서 전쟁과 정치, 문화적 격변을 중국은 겪어야 했다. 이 가운데 대두된 것이 민족주의다. 중국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 자활, 자치, 자선의 필요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중국의 내부적 격변(국공 내전) 이후 1949년 중국공산당은 중국을 이끌 수 있는 권력을 잡게 되었다. 1949년 중국정부는 중국 공산당에 넘어 갔으며 같은 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중국공산당은 철저히 반 서양, 반제국주의, 무신론을 표방했다.

이 당시 모든 선교사는 공산당 집권 이후 발생할 종교적 변화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기독교 긴급 위원회를 세우고 향후 중국 교회의 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논의 결과의 주요내용은 각 교파는 가정교회와 독립교회로 나뉘어 각 지역에서 자유전도를 실시할 것, 교회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흩어질 것, 교회는 가정으로 들어갈 것

등이다. 그 후 중국 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세포적이고 은밀한 교회, 그리고 흩어져 전도하고 도처에서 모임을 갖는 독립교회 형태로 나아가게 되었다.

1966년 5월-69년 4월 에 있었던 문화혁명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지는 핍박은 더했다. 문화대혁명은 4구 운동 즉 구 사상, 구 문화, 구 풍습, 구 습관을 타도하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은 모택동이 사회주의를 공고히 하고 반대파들과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을 청산할 목적으로 실시된 폭압적 정책이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모택동 우상화 작업도 병행되었다. 모택동이 조직한 공산청년 조직 홍위병들은 전국을 돌면서 모든 문화 유산을 파괴하는 일을 전개했다. 1954년에 제정된 헌법에는 종교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1958년 대약진 운동 이후 종교와 사상에 대한 철저한 제제가 실시 되었고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모든 교회건물이 파괴 되었다. 상해의 200여 개 교회는 8개로 축소되었고, 북경의 66개 교회는 4개로 합병. 감소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중국 교회는 모트 선교사의 예상대로 공산당의 조직적 핍박을 받게 되었다. 중국 내 모든 선교사는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 없었다. 결국 1950-1951년 사이에 모든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나야 했다. 1949년 이후 중국 교회는 기나긴 암흑기를 통과해야 했다. 특히 1966년 5월 16일부터 시작된 문화혁명은 교회의 존립을 어렵게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박해를 교회에 가했던 시기였다. 1971년 중국 공산정부는 교회를 박해하면서도 정치적 교회를 세워 중국에 마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외부에 보이려는 정치적 행보를 이행 하였다(이병길 1993:152).

중국의 새 지도자 덩소평은 1978년 공산당 제 11기 3중전회를 통해 4개 현대화 노선 즉 과학 기술의 현대화, 농업의 현대화, 공업의 현대화, 국방의 현대화를 주창하면서 이른바 중국식 실용주의 혹은 수정 자본주의 형태의 경제개혁을 실시하면서 계급 투쟁강령이라는 사회주의식 구호를 버리고 실사구시와 일치단결이라는 지도 방침을 세우고 개혁개방을 실시하게 된다. 급기야 1979년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되었고, 1982년 12월에는 개혁 개방의 정책들을 담은 신 헌법을 채택하였다. 1992년 8월에는 한국과 국교를 수교 하였다. 1992년 10월 제 14기 공산당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방침을 결정하고 헌법을 수정하게 되었다.

중국의 문이 개방되자 많은 외교관들과 사업가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종교에 대한 제제도 완화되기 시작했다. 1978년의 헌법에는 종교신앙자유 정책이 수록되었다. 1982년 신 헌법에는 중국 인민의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여 중국인들의 종교활동에 대한 묵시적이고 임시적인 허용정책이 실시 되었다. 그리고 수교가 수립되자 여러 나라들의 선교사들이 비밀리에 중국에 들어와 선교활동을 비밀리에 재개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많은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거의 줄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증가해 왔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대 핍박의 시기에 투옥된 성도들은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서도 비밀스러운 교제를 이어갔다(Chao 1995:63).

중국 교회는 지금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2년 자료를 기준으로 중국교회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교인 포함 성도수가 거의 8천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아이크만 2005:28). 그렇다면 2017년에는 중국의 교회부흥과 성도 증가율 속도를 감안했을 때 1억이 훨씬 넘는다고 예측이 가능하다. 중국의 기독교는 어느 때 보다도 크고 강해졌다. 기나긴 고난을 통해 중국교회는 견고히 확립되었던 것이다. 중국 교회가 힘든 격변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 한 가운데는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고난 중에도 복음의 사명을 생명을 걸고 전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국교회 역사와 중국교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경존영은 예수가정교회를 시작한 지도자이다. 그는 1890년 산둥성 태안현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외국 종교인 기독교와 선교사들에게 적대적인 인물이었으나 나중에 기독교 학교와 제도에 서서히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부친의 영향 때문에 경존영은 1912년 22세의 나이로 미국 감리교 선교부 태안의 취영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기독교와의 첫 만남을 갖게 되었다(이병길 1993:127). 어느날 “남편들아 네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을 통해 심경의 변화를 받아 별거한 아내와 새롭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후에 20년간 신앙증진에 집중하였다. 그의 아내는 예수 가정운동에 중심적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다(Rees 1993:48). 경존영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였다. 그리고 남은 한 필지의 땅에 예수가정 공동체를 세웠다. 이것은 후에 가정교회에 좋은 모델이 되었다. 예수가정교회는 경존영을 가장으로 하고 예수가정에 가입한 회원들을 가족으로 삼았다. 예수가정은 자립, 자양, 자전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 어떤 외부의 원조나 도움을 받지 않았다(이관숙 1995:290).

왕명도(1900-1991)는 1923년부터 20여 년 간을 중국의 24개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1955년 8월 체포되어 잠시 석방되었다가 1958년 다시 투옥되어 1980년 1월 출감되었는데 그의 아내도 복음전파의 이유로 15년간을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다. 왕명도는 기나긴 수감 생활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의 삶을 잊지 않았다. 그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했다. 허드슨 테일러의 손자인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3세는 왕명도를 일컬어 “그는 20세기의 어떤 중국인 기독교 지도자보다도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으며, 사도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더 통렬하게 경험했다”고 말한다(아이크만 2005:89). 왕명도는 교회의 독립과 자급자족을 강조하였다. 그는 교회의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은 중국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데이빗 1993:33-34).

송상절(1901-1944)은 미국 유학을 통해 받은 화학박사 학위와 보장된 미국에서의 생활을 뒤로 하고 1927년 10월 4일에 중국으로 돌아와 3인 전도단과 베들레헴 전도단을 세워 전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는 중국 및 대만, 동남아 지역의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지까지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는 동남아시아와 중국복음화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중국의 영적 지도자들은 그를 가리켜 요한 웨슬리, 윌리엄 케리와 같은 위대한 부흥사요 선교사였다고 칭송한다.

양소당(1889-1966)은 1934년 화북신학원 교수로 일하면서 영공단이라는 전도단을 만들어 복음을 전했고 영공단의 회원들은 중국 내지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지도적인 인물들이 되어 중국 복음화 운동에 큰 업적을 남겼다. 양소당 자신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1966년 문화대혁명 시기에 그는 감옥에 수감되어 많은 고초를 당하다가 출소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건강이 악화되어 하나님 품에 안겼다.

워치만 니(1903-1972)는 1920년 복주의 삼일 학교에서 열정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고 1921년 형제회 소속 바버 여 선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영적 영향을 받게 되었고 1922년 그는 복주에서 지방교회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의 영적 체험을 기록한 책 ‘영에 속한 사람들’을 발행하며 배포하면서 그 후 1928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구원의 중생과 영적 생명의 성장을 중요시 하였다. 워치만니의 영적운동의 결과로 중국의 지방교회는 특정한 교파를 반대하여 각 지역마다 지방교회라는 집회처를 세워 복음 운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신자들의 집에서 떡을 떼는 소규모 친교모임은 공산정권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예배 공동체가 유지되게 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워치만니는 다음 세가지를 주장했는데 이것은 그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였다. 첫째, 교파는 성서적이 아니며, 교파의 결과는 부패다. 둘째, 교회는 자립해야 하며 외부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셋째, 중국교회는 성서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도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이관숙 1995:297). 워치만 니는 1956년 체포되어 15년 형을 받아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소하였으나 1972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김학관 2005:162-167). 워치만니의 신학과 사상은 가정교회 안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가 세운 ‘지방교회’안에 목사나 전도사는 없고 모두 형제 자매로 불린다.

조나단 차오는 중국민족의 복음화, 중국 교회의 하나님 나라화, 중국 문화의 그리스도화의 비전을 가지고 평생을 헌신한 중국 선교의 선봉자요 신학자였다. 그는 중국복음선교회를 설립했고, 1977년 홍콩의 중국신학대학원의 초대 교무처장으로 일했고, 1987년 홍콩에서 복음전도를 지향하는 신학원인 중국선교신학원을 창설하였다. 그는 중국선교의 도전을 감당하고 중국의 문화와 정치, 교육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 이후 1988년 대만 도생신학원의 교수사역과 대만 그리스도 대학의 학장직을 수행했고 2001년 중국 대륙에 최초로 대학졸업자를 위한 신학원을 설립하여 중국 선교에 큰 공헌을 하였다. 특히 그는 중국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을 신학 훈련하는 일과, 중국 교회를 세계에 알리고 선교동원을 하는 일 그리고 대도시의 대학교수와 공산당원 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왕쓰웨의 지적처럼 지금 중국교회의 부흥은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고난 중에도 복음의 타오르는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왕쓰웨 2004b:32-38). 역사는 단절된 것이 아니다. 과거역사는 오늘을 있게 했으며 과거역사를 외면한 오늘과 미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과거역사의 교훈은 오늘과 내일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오랜 동안 중국선교의 발걸음들이 있었다. 많은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과 고난과 순교로 이어진 그 선교역사의 토대가 있었기에 순탄치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날 중국교회의 부흥이 가능한 것이다. 허버트 케인은 기독교에 있어서 희생과 순교의 피는 교회 부흥의 씨앗으로 평가 하였다. 핍박과 희생이 기독교를 말살하지 못했다. 오히려 부흥의 초석이 되었다(케인 2007:45)는 그의 평가는 명확한 사실이다. 중국의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중국선교의 역사는 단절이 아닌 계속적인 선교의 역사였다. 그 선교의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선교역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람은 중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중단하시지 않았음이 오늘 우리는 지금 중국의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선교사들과 중국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피 위에 오늘 중국교회가 세계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다.

중국교회의 종류

1949년 중국의 공산화 이전의 기독교인 수는 250만 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약 1억 명까지도 추정할 정도로 중국의 교회는 놀랍도록 부흥하고 했고 또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다. 오랜 고난을 통해 오히려 중국 교회는 더 강하게 세워졌다.

중국의 교회는 크게는 중국 공산당 도구역할을 해온 정치적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로 구분할 수 있다. 박화목은 2004년 ‘중국을 주께로’에 기고한 그의 글에서 중국 가정교회의 종류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개별형 자립교회: 1906년 상해에서 설립되었다. 하남, 강서, 사천, 복건, 광둥, 강소 등에 교회들이 형성되어 있고 비교적 발달된 유형의 교회이다. 외국교회나 선교사들과는

관계를 단절한 독립교회이다. 오순절 운동을 통해 자립교회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는 대만에서 크게 형성되어 있다.

중화 기독교회: 1927년 상해에서 발족되었다. 북경, 천진, 제남, 청도와 남방의 광둥 등에서 형성 발전되었다. 외국 선교단체 및 그들이 세운 교단들과의 연합체로서 현재 자립, 자양, 자전을 강조하고 있다.

중화 기독교 협진회: 1922년 상해에서 조직되었다. 외국 선교단체와 교단이 참여하여 설립하였으며 후에 정치 참여 문제로 순수한 연합운동이 변질 되었다. 이 문제로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 모임에서 탈퇴하였고, 이 모임은 신 중국건설 이후에 삼자에 참여하였다.

예수 가정배경의 교회들: 1921년 산둥 태안에서 징텐잉에 의해 시작된 단체이다.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고 주로 농촌에서 전도활동을 했으며 화북, 산서, 섬서, 양자강 주변 농촌까지 확대되었다.

집회소: 1928년 니튀성(위치만니)에 의해 상해에서 설립되었다. 기독교 집회소 또는 지방교회라 불린다. 기성교회를 기독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영은교회: 1910년 하나의 종파로 부르게 되었으며 1932년 북경의 무목사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 성령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기독교회당: 1925년 왕밍따오에 의해 설립되었다. 자립, 바른 신학, 성경원칙을 세우고 그 실천 방안으로 순교정신, 정교분리, 교회토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출삼: 삼자교회에서 나온 신자들이 구성한 교회들이다. 현재 중국 전역에 상당히 많이 있다.

해외교회나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독립 가정교회: 많은 해외의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중국의 도시 중심으로 독립적 가정교회 유형의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대학생, 지식 엘리트 그룹, 사회 전문가 그룹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다시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성격을 지닌 기요파와 오순절 계통의 영은파로 분류할 수 있다. 자립교회 운동이나 토착교회는 주로 지식인들 중심으로 도시에서 이루어졌으며 오순절 계통의 신앙은 주로 농촌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박화목 2004:18-21).

이상은 중국 교회의 신앙배경과 조직에 내용이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중국 교회는 지금 부흥의 가속페달을 더욱 밟고 있다. 그리고 발전하고 있다. 물론 내부적으로 신학적 취약함과 성경적 교회관 정립 그리고 이단들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나 중국의 기독교는 이미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줄 정도로 성장해 가고 있다.

지금의 중국교회와 지도자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교회의 역사적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의 중국교회와 지도자들이 걸어온 길이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중국 교회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없이는 현재의 중국교회와 지도자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점에서 본 논문에서 중국교회의 역사를 살펴 보았다.

다음에서는 중국교회의 선교적 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교회의 선교적 도전

중국은 인구나 땅 면적에 있어서 거대한 나라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땅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인구가 2020년에는 18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구의 93퍼센트는 한족이며 북방 중국어가 국가 공용어 이다. 크게는 55개 종족의 다른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램 2000:22).

중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 하고 있다. 가정교회 년 성장률은 12.5-17.5 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거의 매일 3만 명의 중국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는 통계이다(폴 헤터웨이 2005:30). 이것은 세계 최고의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이 추세라면 20-30년 후엔 수 억 명의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중국 교회가 세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는 대목이다. 중국 교회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또 세계 속에 그 힘과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국가라는 배경도 또한 중국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부분 모두 이미 미국과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마지막 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시장을 기대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의 세계 지배력은 점점 더 가시화가 되고 있다.

중국인은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세계 속에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민족이다. 중동의 많은 나라에도 수많은 중국인들이 사업과 노동자로 이미 진출해 있다. 이것은 선교적 좋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중국의 지리적 환경을 보면 중국은 수많은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세계선교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소위 북위 10-40 창문과 이 논문에서 좀더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는 동경 120-30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지리적 근접성은 복음의 마지막 과업으로 남아 있는 이슬람 지역에 대한 중국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 외부적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Pax Sinica’를 꿈꾸며 중화주의 재건을 노리고 있다. 지금 세계 속의 중국의 힘은 실로 막강하다. 중국은 1978년의 개혁 개방우후 연평균 9%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향후 2025년까지 12퍼센트 이상의 지속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중국기업은 식품, 의류, 전자제품, 철강,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가격 경쟁의 우위를 내세워 세계시장을 석권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IBM 등 세계적인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 2005년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8500억 달러를 넘어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1위가 되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예측 기관들은 202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2025년이나 2030년이 되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도 세계 최강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김대동 2006:50-52).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최대규모의 경제대국으로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의 큰 외교정책의 위기는 중국의 도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되었다.

전 세계에 중국인이 없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중국인들은 이미 세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북 남미, 유럽, 아시아 전역, 중동국가, 아프리카에 이르기 까지 중국인이 살고 있다. 중국인을 부르는 몇 가지 호칭이 있다. 화교(華僑)는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중국인을 말하고 화예(華裔)는 거주 국에 귀화한 중국인을 의미하는 호칭이다. 두 호칭을 포함하여 해외에 이민한 중국인을 통칭하여 화인(華人)이라고 한다. 전 세계로 이민한 중국인은 약 3천만 명에 이른다. 그 중 1세대는 모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3세대에 이르고 있다.

화교들은 거주 국 사회에 가능한 완전히 융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화교들 가운데 상업인 이나 기업가들을 특별히 화상(華商)이라고 하는데 화상으로서 세계 500대 재벌에 진입한 사람도 매우 많다. 이들은 화교 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세계에 퍼져있는 화상들이 2년에 한 번씩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화상대회(WCEC)가 있다. 이 대회는 1991년부터 시작하여 각 나라를 돌며 개최하고 있는데 해외 화교사회의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경제분야 외에 기독교에서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연합기구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1976년 ‘세계화인 복음화 사역 연락센터’가 설립되어 해외화교 기독교계에 의미 있는 전환을 가져 왔다. 순수하게 전 세계에 있는 화교 교회지도자들이 조직한 이 기구는 근 30년 간 세계 화교 교회의 성장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고, 선교 비전을 심어 주었으며, 각 나라에 퍼져 있는 화교 교회로 하여금 세계선교사역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왔다. 또한 세계 각 국의 선교기구와 함께 선교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류전명 2004:42-44). 최근의 중국인들의 중요한 해외이주 원인 중의 하나는 유학이다. 미국에만 15만 명의 중국 유학생과 교수가 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 세례를 받았다. 1989년 중국 톈안먼 사태를 주도해 21명의 긴급 수배자 명단에 오른 반체제 학생이었던 정보리는 1991년에 중국을 탈출하기 전에 기독교인이 되어 지금은 미국에서 중국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는 해외 중국 유학생의 20퍼센트가 기독교인이 되었을지 모른다고 추정하고 있다(데이비드 아크만 2005:32). 이처럼 세계 속에 비상하는 중국의 힘과 디아스포라 중국인 자원은 중국 교회를 세계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섭리로 볼 수 있다. 세계선교에 있어서 중국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교회 지도자들의 바르고 균형 있는 리더십이 더욱 요청된다 하겠다.

위에서 중국교회의 선교적 도전을 언급한 것은 중국교회의 역사와 선교적 도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지도자의 리더십 개발에 있어서 선교적 리더십 개발과 도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세계 도처에

중국인이 흩어져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은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국내 복음 사역을 하다보면 결국 중국 안의 수십 개의 소수민족들이 국경 밖의 나라와 민족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점을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가정교회 지도자 개발과 훈련에 있어서 선교적 리더십 개발이 중요한 점이다. 아래에서는 중국 교회 지도자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중국교회 지도자 이해

필자는 중국에서 가정교회 지도자들과의 깊은 교감이 있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복음을 위해 가족마저 희생하여야만 하는 그들의 결단에 깊은 감동을 가졌지만 그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만나면서 한편 안타까움이 있었다. 얼마나 아빠가 복음 전도자 혹은 지도자일 경우 한 쪽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주로 다른 지방에서 일년 내내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 가정교회 지도자는 순회 사역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 아이들은 결국 시골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손에 길러 진다. 가족이 다 흩어져 살다 보니 결국 가정 안에 큰 문제가 생겨 복음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문제를 조금이나 해결해 보려고 필자는 도심에 보호처를 만들어 시골에 있는 지도자 자녀들 10여명을 모아 돌보면서 도시의 학교를 다니게 하였다. 이것은 부모들이 도심을 지나갈 때 자주 자녀들을 만나 볼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다. 중국 지도자들의 희생정신은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더불어 균형있는 지도력을 갖게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중국 가정교회 안에서 지도자 양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또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점은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리더십 개발과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가정교회 지도자 양성 과정

중국교회는 그들의 방식대로 지도자를 양성해 왔다. 공산주의 체제의 감시와 핍박속에서 지도자를 훈련하여 교회를 세워가게 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칭찬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현대 중국교회의 빠른 변화와 환경을 고려할 때 균형있는 리더십 개발과 훈련이 필요하다. 필자는 중국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리더십 개발과 훈련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태국 치앙마이에 지도자 훈련원을 세워 사역을 감당해 왔다.

중국 가정교회에서는 어떻게 지도자를 양성해 왔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가정교회 지도자 양성과정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일대일 제자 양육 방식이다. 이것은 중국교회가 주로 사용해 왔던 방식이다.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훈련과정이다(주피득 1999:28). 중국내 외국인 선교사들도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공산국가에서 다수 보다는 개인별 만남을 통해 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은 라디오를 통한 선교방법이나 통신과정의 훈련방법이다. 사람들이 쉽게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여러 지역의 다수의 사람들을 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인격적 교감이 없는 지도자 훈련이라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순회사역을 통한 단기 교육이다. 2~3일이나 1주일 정도의 시간을 통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중 교육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도 단기간의 효과는 있으나 지도자의 일생을 내다보며 지도해야 하는 지도력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혹은 해외에서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합숙을 하면서 리더십 훈련을 하는 방법이다. 필자가 사역에 참여하기도 했던 방법이다. 함께 장기간 합숙하면서 삶과 사역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는 방식이라 하겠다. 일대일 리더훈련과 더불어 함께 병행할 수 있으면 중국가정교회 리더십을 바르게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필자가 판단하고 있는 방법이다. 중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지도자 훈련 방법은 신학교 과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학교는 비정규식 비밀 신학과정을 말한다. 즉 3개월 집중 전도훈련 그리고 2년간의 전도실습 다시 신학교로 돌아와 6개월간 성경권별 학습을 받고 다시 목회현장에서 3년간 실습을 한다.

사역지는 기도 가운데 정하게 되고 두 명이 짝을 이루어 함께 사역을 한다. 다시 돌아와 3개월 동안 조직신학과 목회학을 학습한다. 지도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가정교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서 훈련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신학과과정에서 리더십 훈련의 문제점은 이미 만들어진 과정에 순응하는 훈련이다 보니 개개인의 은사를 개발시키는 훈련이 부재하고 오직 사역에 집중하는 리더십 훈련이라는 점이다(장령링 1998:20). 또한 훈련 등급에 따른 상하계급의식이 가정교회 안에 존재하여 깊은 유대감을 깨뜨리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중국 가정교회와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언급하기로 한다.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점

지금 중국교회는 많은 성도를 보유하고 있고 또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급부상할 정도로 부흥했다. 그러나 이런 외적 환경에 반해 삼자 교회와의 대립, 신학적 문제, 지도자 수의 부족 특히 지도자 생애 전반을 다루는 균형 있는 리더십 훈련의 부재는 중국교회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중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 좀더 살펴보기로 한다.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와의 갈등문제

중국교회는 1949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세력에 의해 신앙과 신학과 교회 모두가 통제 되어왔다. 삼자교회든 가정교회든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특별히 1950년대 초부터 1978년 개혁개방 때까지 존립을 위하여 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자치(自治)·자전(自傳)·자양(自養)의 삼자원칙을 기독교 관리 원칙으로 제정하면서부터 중국기독교는 철저히 통제되어 서방의 교회들과의 교류가 단절 되었다. 중국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전통적인 신학과 서구의 발전된 신학이나 기독교 긴 역사를 접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중국화가 가속화 되면서, 기독교 전통의 신학은 거부당했다(Chao 1995:62). 역사적 관점에서 또 한 가지 문제는 가정교회와 삼자교회의 오랜 대립이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가정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삼자교회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 하에 있다. 이들의 대립은 중국이 공산화 된 1949년

이후 특히 ‘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가 정식으로 성립된 195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립 구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정부의 종교정책에 절대적 지배를 받고 있는 삼자교회는 기본적으로 전도나 해외선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바른 목양교육의 결핍

중국교회는 체계적인 성경교육이나 신학교육을 필요로 한다. 현재 가정교회는 계속 증가하고 부흥하고 있다. 한 마을이나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져 몇 명의 믿는 자들이 한 가정집에 모여 집회를 시작하면 20-30명은 금방 모이게 된다. 그 가운데 제일 열심인 사람이 인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인도자 혹은 지도자의 지도력에 따라 각 교회의 수준이나 영적 형태가 달라진다(정요한 1994:86).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믿음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하였다. 그러나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며 단지 개인 체험만 가지고 신자들을 지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는 지도자 자신도 신학교육이나 크리스찬 리더십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목양교육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문제들이 중국교회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목양교육의 결핍은 이단의 침투가 쉬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도자 수의 부족 문제

중국 가정교회 안에는 지도자들의 수가 심각하게 부족하며,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지도자들이 많다. 중국교회는 신학기관이 부족하고 때문이다. 공인된 삼자 신학교가 22개 있으나 대부분 역사도 길지 않고, 학생모집에 많은 제약들이 있으며, 도서관이나 체반 시설들이 열악하고, 교수요원들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절대 부족하다. 가정교회는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아래 놓여있다. 가정교회를 위한 신학교 또는 성경학교는 해외 화교들과 외국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신학교들과 그리고 가정교회 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기 성경 훈련반(培訓班) 등이 있다. 이 또한 공개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8,000만 명에서 1억에 이르는

중국교회 성도들을 위한 목회자를 수급하기에는 심각하게 부족한 숫자이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대부분의 가정교회 사역자들(同工)들이 훈련 받을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다. 양적인 면에서 부족한 현상과 아울러서 목회자들의 수준도 높지 않은 것이 또한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신학원(신학교) 교수의 역량이 취약하고, 교육수준도 높지 않으며, 신학서적이나 자료들도 부족하여 양질의 신학교육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지도자 수의 부족은 자칫 교회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강한 군사로 세워져야 할 성도들이 유약한 병사로 방치 될 수 있어 나약한 신도들만 많아 질 우려가 있다(천레이 1999:111-112). 결과적으로 중국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며 목회할 목회자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보강해주는 일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교회간 연합과 교제의 어려움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간 뿐만 아니라 가정교회 서로 간에도 중국정부의 통제 및 핍박으로 인해 성도 간에 교제를 갖지 못하며, 교회 간에도 교류가 쉽지 않다. 교회간 연합과 교제가 차단된 상태가 지속되면서 가정 교회 단체의 특정 지도자나 계파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서로 간의 의견을 적대시하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 전도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로 인해가정교회의 전도활동도 조직적이지 못하고 폐쇄된 조건 속에서 진행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빈틈을 이용하여 이단들이 가정교회 내에 침투하여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목회실제에 대한 행정과 인식 부족

중국에 복음이 전해진지 수백 년이 흘렀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로서의 인식이나 이해는 전반적으로 미미하다 할 수 있다. 이것은 필자가 중국의 충칭시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또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협력하면서 발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에서 지역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대화 하는 중에, 이들의 대부분은 목회 실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경우에 교회와 지도자들은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고 있었지 심방, 주일학교, 년중 계획, 향후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 그리고 교회 행정에는 관심이 결여되었다. 물론 가정교회가 처한 환경이 이를 정당화 할 수도 있다. 즉 정부의 핍박과 감시가 있기 때문에 목회나 교회 행정에 집중하기가 아직은 이르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지도자는 목회 실체와 행정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중국 교회의 선교 행정을 예를 들어보면, 가정교회 단체나 일부 교회는 이미 진지하게 중국 내에 있는 1억에 가까운 소수민족을 향하여 타 문화 선교를 하고 있으며, 해외에 선교사를 보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진행되고 있는 선교는 적절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재정 후원이 없으며, 타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이유로 매우 짧은 기간에 중도 귀국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운동이나 방법들이 중국교회들에게 전반적으로 파급되지 않았고, 선교에 대한 강력한 도전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로 국한되었다. 교회에서의 선교교육이나 동원사역은 미미하며, 혹 이미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기구나 교회가 있기도 하지만, 선교사 파송과 관리에 있어서 아직 조직적이거나 장기적이 못한 문제가 있다.

지도자들의 리더십 역량의 부족

하남성의 가정교회 지도자인 쉬형제는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한 후 백투예루살렘 운동을 펼치며 중국교회를 선교에 동원하는 일들과 더불어 해외에서 선교사들을 훈련하여 이슬람지역으로 보내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2004년 쉬형제가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치앙마이 킹덤빌더 훈련원을 방문하였다. 한 때 하남성에서 수백 만 명의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명성에 걸맞게 70세 가까운 그에게서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러나 그와의 대화 고백 속에서 가정교회 시니어 지도자들과 현재 지도자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리더십의 갈등을 알게 되었다. 중국 가정교회 시니어 지도자들은 온갖 핍박과 고초를 몸으로 버텨낸 세대들이지만 개방적 사회주의를 택하여 자본주의의 맛을 보기 시작한 젊은 지도자들은 시니어 지도자들이 강조하는 희생적 삶과 전통적 지도방식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신세대 지도자들은 현대적 문화접근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구세대의 지도력을 구식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신세대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다. 시니어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좀처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과 교회 안의 나이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지도력을 좀처럼 지지하지 않는 점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도자의 길을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들이 신세대 지도자들의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고충들이다.

이것은 가정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겪고 있는 공동체 문제만은 아니다. 중국 가정교회 안에 전반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문제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급변하는 시대를 읽지 못하고 급변하는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교회 지도자 문제, 자녀들 문제, 핍박이 아닌 개인의 안락을 추구하는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그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지도력이 뒷받침이 못되고 있는 형국이다. 시니어 지도자들은 희생만을 강조했지 한 지도자 전 생애를 조망하면서 체계 있게 리더십을 훈련하는 과정에 대한 인식 이 부재하였다. 이것은 곧 중국교회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리더십 훈련의 부재는 중국의 가정교회뿐 아니라 그들이 파송한 중국인 선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과만을 요구하고 있지 정작 중국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겪는 정서적 어려움이나 가정 안에서 문제 그리고 선교사의 인격과 삶이 바탕이 되는 전인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선교지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중국으로 되돌아 가는 선교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 리더십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위에서 여러 각도에서 중국 가정교회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보았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인 서청은 지도자 훈련이 긴급함과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현재 중국교회에 시급히 요구되고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는 효과적인 지도자 양육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천안문 광장의 집회는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중국 교회 발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지도자의 양육은 중국교회 발전의 승패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역이다. (서청 1999: 18)

이처럼 중국 가정교회의 미래를 조망해 볼 때 결국 지도자가 중요하고 지도자 양성과 리더십 훈련이 매우 중요함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필자는 이런 중국 교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국교회와 지도자들을 훈련하여 건강한 지도자로 세워 그들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고 더 나아가 세계선교에 공헌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태국 치앙마이에 킹덤빌더라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원을 열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필자가 담당했던 훈련원에 대해 살펴보고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요약

제3장에서는 중국 가정교회의 이해를 위해 역사와 현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교회의 역사

중국 역사에는 오랜 동안 중국선교의 발걸음들이 있었다. 많은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과 고난과 순교로 이어진 그 선교역사의 토대가 있었기에 오늘날 중국교회의 부흥이 가능한 것이다. 중국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다. 지금의 중국교회와 지도자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교회의 역사적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의 중국교회와 지도자들이 걸어온 길이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중국 교회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없이는 현재의 중국교회와 지도자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점에서 본 논문에서 중국교회의 역사를 살펴 보았다.

선교적 도전

중국교회는 세계선교에 공헌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위에서 중국교회의 선교적 도전을 언급한 것은 중국교회의 역사와 선교적 도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지도자의 리더십 개발에 있어서 선교적 리더십 개발과 도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가장교회 지도자의 문제점

그러나 중국교회는 대내외 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외부로는 핍박과 세속주의의 유혹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신학적 문제와 특히 지도자들의 지도력 문제가 중국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지도력에 따라 공동체를 세우기도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런 중국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건강한 리더십을 갖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기 위해서는 리더십 개발과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제 4 장

태국 치앙마이 킹덤빌더(KBTC) 지도자 훈련원의 현황

치앙마이 KBTC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훈련센터가 위치한 지리적 위치와, 치앙마이가 속한 태국의 역사와 현황을 설명하겠다.

태국 일반현황

치앙마이 킹덤빌더 지도자 훈련원이 속해있는 나라와 지역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는 것은 훈련원을 이 지역에 세운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종교의 자유나 훈련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기후와 물가 문제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태국의 일반현황에 대해 먼저 알아 보기로 한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 속해 있는 인구 95퍼센트가 불교도인 국가이다. 태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위치: 동남아시아 육지부, 안다 만과 태국 만에 접해 있다. 서쪽으로 미얀마, 동쪽으로 라오스와 캄보디아, 남쪽으로 말레이시아와 접해있다.

총 면적: 51만 4000제곱킬로미터

기후: 중부, 북부-열대 사바나(건기와 우기), 남부-열대 계절풍

지형: 서부, 북부-산악지형, 동북부-고원, 중부-평야, 남부-산과 평야혼합

자연재해: 가뭄, 홍수, 지하수 고갈로 방콕 주변 평야의 침하

인구: 약 6천 600만 명

주요민족: 타이족 75퍼센트, 화교 14퍼센트 기타 11퍼센트

종교: 불교 95퍼센트, 이슬람 3.8퍼센트, 기독교 0.5퍼센트, 힌두교 0.1퍼센트, 기타 0.6퍼센트 중요한 것은 불교가 국교는 아니며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국왕은 반드시 불교도여야 한다.

경제: 1인당 국민총소득: 8,000달러

산업별 생산량: 농수산업 12퍼센트, 공업39퍼센트, 서비스업 49퍼센트(안민기, 이현숙 2008:26-27).

위의 내용처럼 태국의 일반적인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태국은 불교도가 90퍼센트가 넘는 지역이고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태국이라는 타국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중국 내에서 중국인 지도자 훈련을 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즉 자국중심적이기 쉬운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해외에서 지도자 훈련을 하게 되면 타 문화 속에서 특히 불교가 강한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에 자기 중심적, 자국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리더십 훈련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기에 태국은 가장 적절한 지도자 훈련 장소라고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치앙마이(ChiangMai) 의 현황

치앙마이는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북쪽으로 700km 떨어진 차오프라야 강의 지류인 뽕강 기슭에 있다. 치앙마이는 태국 제2의 도시이자 북부 제1의 도시이다. 교통, 문화, 역사의 중심지다(안민기, 이현숙 2008:476). 치앙마이는 주변 미얀마, 라오스, 인도,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선교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관문도시이다. 그래서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나(Colorado Springs) 올랜도(Orlando)의 선교기관 수만큼이나 많은 선교기관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해서 선교사역의 아시아 허브라고 보아도 손색이 없다. 선교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Thailand Chritian Directory 2009:372-386) 치앙마이 안에서 많은 선교적 네트워크와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이 가능한 배경에는 태국정부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치앙마이 안에 소재하고 있는 기독교 선교기관들이 모든 종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임을 의미한다. 기독교의 자유나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주변국 라오스나 미얀마와는 차별이 되는 부분이다.

치앙마이 킹덤빌더 리더십 훈련센터사역 현황

치앙마이 킹덤빌더 훈련원 목적

필자는 중국에서 직접 교회를 개척하여 8 개 정도의 셀교회를 세웠고 지도력을 위임하였다. 교회는 결국 현지인이 담당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선교사는 잠시 보조 타이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조연자가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교회개척 사역과 더불어 중국 충칭시의 가정교회와 협력 사역도 하면서 큰 그림을 보게 되었다. 지도자 개발과 훈련을 통해 더욱 건강한 교회 지도자를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특히 균형있는 리더십 개발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원래는 중국 내에서 리더십 개발과 훈련 사역을 시작했지만 중국 공안당국의 감시와 개입으로 필자는 더 이상 중국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가 되었다. 여러 정보를 수집하면서 태국 치앙마이가 최적의 훈련원 장소라고 보았다. 치앙마이는 많은 선교기관들이 아시아 선교본부를 두고 있어 선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선교적 교류가 용이하고, 국제공항이 있고, 중국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고, 물가가 저렴하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주변국가와는 다르게 기독교에 적대적이지 않은 환경이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결론을 내리고 훈련 장소를 정하게 되었다. 치앙마이에서 중국 지도자 리더십 개발과 훈련사역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다.

필자는 세계 안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가정교회의 미래를 내다 보면서 중국 교회와 지도자들을 훈련하여 선교적 안목과 건강한 리더십을 갖춘 건강한 지도자로 세워 그들로 건강한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고 더 나아가 세계선교에 공헌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태국 치앙마이에 킹덤빌더라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원을 열게

되었다. 훈련생들은 보안문제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없기에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추천과 중국 내 선교사들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번 4장에서는 필자가 2008년부터 중국 지도자훈련 1기부터 4기까지 그 동안 치앙마이 킹덤빌더 훈련원에서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오게 해서 열심히 훈련해 왔는데 좀 더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운영방법과 훈련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훈련의 한계와 당면한 문제점들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훈련원 설립의 배경이 된 비전

그 동안 태국 북부지역을 조사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선교적 시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시작하게 될 지도자 훈련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과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하였다. 이 지도자 훈련 사역을 통해 중국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살아나고, 중국가정교회가 살아나고, 다시 중국 가정교회가 세계선교에 공헌하여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영원한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기를 소망해 보았다. 태국 북부지역인 치앙마이에 중국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원을 세운 것은 이 지역이 중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역사적 고리 때문이다.

태국북부지역을 리서치 하면서 중국대륙과 라오스 국경 그리고 태국북부지역을 따라 다시 국경지역인 미얀마를 통해 인도를 잇는 사역을 볼 수 있었다. 오늘날 중국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지역들은 선교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의 근원지가 모두 이 실크로드영역 안에 있다. 기독교 복음 전파의 3대 장벽인 이슬람, 힌두, 불교의 큰 세력들이 바로 이 실크로드 지역에 버티고 있다. 세계의 미전도 인구 중 90퍼센트가 이 실크로드 주변과 중국 변방에 위치한 여러 나라에 살고 있다(해터웨이 2005:130). 프레드 마커트가 지적한 것처럼 이 미전도 종족 그룹은 얼굴 없는 대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친밀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인 것이다(Wagner, Peters & Wilson 1995:17). 또한 이 지역에 이슬람의 심장부가 있고 종교적 장벽들이 있다. 1년에 500불도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연명하는 가난한 사람들 수억 명이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다.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버티고 있어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다(1995:12-15). 이들의 종교는 민족적 역사, 문화, 생활 등등 다양하게 얽혀져 있어 사람의 세계관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공격적 적대감을 갖게 한다. 거대한 인구, 종교적 장벽, 세계 최대 미전도 종족들과 낮은 복음화율, 가난, 특히 이슬람세력의 강성 등 선교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바로 실크로드 지역이다.

이 중요한 선교적 전략의 중심에 실크로드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중국과 중국 교회가 있다. 그러나 이 비전의 중심에는 중국 가정교회와 지도자들이 있다. 필자는 결국 이 비전은 중국 가정교회가 감당할 몫이라고 보았고 또 이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중국 가정교회가 건강히 바로 세워져야 하고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균형있고 건강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21세기 선교는 중국교회의 선교시대이기에 중국 가정교회와 건강한 지도자 양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은 필자가 팀 동료와 함께 태국 북부지역 치앙마이에 킹덤빌더 지도자 개발 훈련원을 열게 된 동기가 되었다.

킹덤빌더(KBTC) 훈련원의 발전 과정과 훈련 현황

지금까지 킹덤빌더 지도자 개발 훈련원(KBTC)이 위치한 태국과 치앙마이의 일반적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KBTC의 발전과정과 훈련 현황을 살펴보려고 한다. KBTC의 훈련 목적과 1차에서 4차까지의 과정,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필자는 세계 안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가정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중국교회와 지도자들을 훈련하여 선교적 안목과 건강한 리더십을 갖춘 건강한 지도자로 세워 그들로 건강한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고 더 나아가 세계선교에 공헌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태국 치앙마이에 킹덤빌더라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개발 훈련원을 열게 되었다. 그 동안 KBTC는 5단계의 과정이 있었다.

1 단계, KBTC 태동기

KBTC 설립은 원래 2005년 중국에서 시작된 계획이었다. 필자는 당시 중국 충칭지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 선교사의 신분으로 일할 수 없는 공산권 지역이기에 당시 현지에서의 나의 신분은 충칭한글학교 교장이었다. 한글학교 건물에는 게스트 룸이 있어서 중국 내 선교사님들이 충칭을 들릴 때 머물곤 했다. 이곳을 방문했던 쿤밍의 박다윗, 장화평, 시안의 박요한 선교사들과 비전을 나누던 중 KBTC를 위해 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2006년 쿤밍에서 1기생 10명을 받아 6개월 과정의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리더십 훈련을 실시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

2 단계, KBTC 1기 훈련사역

2006년 운남성 지역과 길림성 지역으로부터 10 명의 훈련생들이 모집되어 성경, 전도학, 제자훈련, 공동체 생활 훈련에 집중하였다. 1기생은 쿤밍에 거주하셨던 박다윗 선교사와 장화평 선교사 두 분이 집중 강의를 하였고 시안의 박요한 선교사와 필자가 협력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보안문제를 고려할 때 한 건물에서 장기간 합숙훈련을 하기 어려워 댐을 이용하여 차로 근교로 이동하여 차에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장시간의 강의와 합숙훈련에 익숙해 있어서 오히려 그들을 지도하는 선교사들이 감동을 받곤 하였다. 훈련 재정은 훈련생들과 팀 안에서 모금을 통해 준비된 재정으로 충당하였다. 훈련생들은 모든 강의와 훈련에 목말라 했기에 스폰지처럼 빨아들였다.

KBTC 1기 훈련은 무사히 마쳤지만 처음 시도한 지도자 리더십 훈련이라 시행착오도 있었다. 1기 훈련 과정에도 클린턴 리더십 이론은 적용하지 않았고 한 인생 전반을 다루는 리더십에 대한 강의는 없었다. 지도자 가정 문제에 대한 부분도 간과했다. 당시는 오직 전도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리더십 훈련이었다.

훈련 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티벳(시장자치구)에서 온 장족(티벳인)부부와 어린 딸이었다. 이들은 진행되었던 정규 훈련이 아닌 별도의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형제 이름은 둥턴이었다. 티벳 가정교회 지도자였다. 티벳은 라마불교의 본고장이다. 이 형제는

라마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형제이다. 동족으로부터의 핍박과 공산당으로부터의 핍박을 견뎌내야만 했던 상황 속에 놓여 있다가 쿤밍으로 피신을 내려와 지도자 훈련원에 오게 되었다. 이 가족은 다시 고향 땅 티베트로 돌아갔고 필자와 팀원을 초청하였다. 이 초청에 필자와 박다윗 선교사가 응했고 우리는 해발 3500미터에 위치한 티벳 라사를 방문하여 비밀 가정교회 집회 장소를 들러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였다. 필자는 해발 5200미터 탕글라산맥을 넘어 32시간 버스를 탔고 또 기차를 타고 수십 시간에 걸쳐 집으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여전히 튼튼 형제가 장족현지인(티벳인)가정교회 지도자로서 고향에 남아 목숨을 걸고 목회와 선교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리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3 단계, KBTC 2기 훈련사역

2기 훈련사역은 원래 필자가 있었던 충칭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필자와 팀원은 충칭시 모처에 숙소를 계약해 놓고 이미 지원한 훈련생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중국 공안 쪽에서 알게 되었고 필자는 감시를 받기 시작하였다. 중국공안(경찰국)에서 외국인이 현지 가정교회 지도자 그룹과 만나 교류하는 것은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안이다. 결국 2기 훈련을 책임지기로 한 필자는 이민국의 조치로 3주안에 중국을 떠나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때 필자와 팀에게 예수전도단 소속 인도 선교사 출신인 최바울 선교가 태국 치앙마이를 소개해 주었고 필자는 육로를 통해 치앙마이를 답사하고 리서치를 통해 치앙마이가 최적의 훈련 장소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필자는 2008년 2월에 박요한 선교사 가족과 함께 치앙마이로 이주하게 되었고 2월 말부터 2기 KBTC 훈련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2기 훈련생들은 중국인 아닌 태국 치앙마이에서 충칭지역과 시안지역에서 온 10명으로 시작되었다. 중국인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적 안목을 열어 주는 것도 지도자 훈련원이 추구하는 부분이기게 치앙마이 훈련원은 선교적 리더십 훈련에 적합한 장소였다. 훈련원 건물은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단독주택을 렌트하여 사용하였다. 집세는

약 500불 정도였다 방이 4칸이고 넓은 마당이 있어 훈련장소로 적합했다.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건물이었다.

필자는 리더십 강의와 더불어 선교역사와 기독교 역사 과목을 맡아 강의하였다. 그리고 다른 과목들은 중국에서 섭외된 강사들이 와서 섬겨 주셨다. 동료 박요한 선교사님은 예배와 생활지도 부분을 담당하였다. 중국 쿤밍지역에서는 팀 동료 사역자 박다윗 선교사가 지원자들을 우선적으로 받아 한 주간 예비 훈련을 실시 한 후 치앙마이로 훈련생들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셨다. 2기 훈련 재정의 50퍼센트는 박요한 선교사 후원교회였던 미국의 한인교회가 감당하였고 나머지는 팀원 선교사들과 훈련생들이 충당하였다.

훈련원 첫 주는 2박 3일의 밀림 트래킹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밀림 산 중에서 개개인이 그 동안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야기 하다가 울고 웃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훈련 끝에는 내적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예수전도단에서 오랜 세월 내적 치유를 담당하신 경험이 있으신 강사 분이 담당했다.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 보고 치유 받는 시간이었다. 중국 지도자들이 훈련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훈련 소감을 묻는 인터뷰 시간을 갖는 것으로 2기 훈련은 마무리가 되었다.

4 단계, KBTC 3기 훈련사역

3기 훈련은 2010년에 열렸다. 훈련생들은 좀더 다양한 지역에서 오게 되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력이 있는 회족자치구 출신 지도자가 아내와 함께 참여하였고 운남성의 가정교회 소속 지도자 부부도 참석하였다. 3기는 부부포함 8명이 참여하였다. 3기는 치앙마이 소재 다른 훈련원과 좋은 강의나 특별활동을 함께 공유하는 시도를 하였다. 결과는 좋았다. 훈련에 하나 더 추가 된 것은 기술을 배우는 과목이었다. 한 주간은 도너츠 기술을 배워 연마하는 시간을 만들어 비정규 훈련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날 도너츠 1000개를 만들어 현지 태국 교회를 방문하여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메티 목사님에게 병원 전도용으로 전달하는 이벤트를 하였다. 태국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 보면서

중국교회와 다른 부분을 경험하게 하였다. 지도자 훈련 사역을 도와 미국선교사도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였고 태국소재 화교 교회 지도자를 초청하여 리더십 교육에 참여하게 하였다. 싱가포르에서 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는 게리청(Gerry Cheong) 선교사도 리더십 개발 부분에 참여하였다. 훈련을 마무리 하고 중국으로 육로로 가는 도중에 필자는 함께 라오스로 건너가 중국인 시장에서 노방전도를 실시하였고 중국인 한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중국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타국에서 중국인을 전도하는 경험을 갖도록 계획한 것을 실행한 것이었다. 이렇게 3기 훈련이 종료가 되었다.

5단계, KBTC 4기 훈련사역

2014년 4기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리더훈련을 진행하였다. 인원은 26명으로 늘어났다. 장소 문제 때문에 치앙마이 한인교회 교육관 신건물과 예배실을 이용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4기 교육에 추가된 과목은 기존 훈련과목 이외에 영어회화 과목이었다. 치앙마이 거주 영어권 출신 선교사와 국제학교를 나온 선교사 자녀가 투입되어 가르치게 했다. 4기의 특징은 상해와 베이징에서 온 지도자들이 80퍼센트 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기수들에 비해 학력이나 생활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1기 훈련생은 타 지역 선교사들에 의해 추천된 예비 지도자들로 주축이 되었고 약간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추천한 사람들도 있었다. 훈련 장소는 중국이었다. 2기 훈련부터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실시 하였고 필자가 길러낸 제자 중에 3 명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충칭시 지역 가정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추천된 예비 지도자와 지도자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3기 훈련생은 중국 여러지역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었다. 4기 훈련생은 상해와 북경지역 등 부유한 도시에 기반한 가정교회에서 온 지도자들로 20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다른 기수와 다른 점은 해외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있어서 태국 주변국을 방문하여 현지 교회 탐방과 단기선교를 경험하였다는 점이다. 1기에서 4기까지 중국지도자 리더십 훈련을 진행하면서 다른 목회적 시각과 선교적 시각을 갖도록 강조하였다. 대부분 훈련을 마친 지도자들은 중국에서 가정교회를 이끌고 있다. 일부는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다시 가정교회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훈련 목적

세계 안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가정교회의 미래를 내다 보면서 중국 가정 교회와 지도자들을 훈련하여 건강한 지도자로 세워 그들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고 더 나아가 세계선교에 공헌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훈련원 핵심 가치

성경, 기도, 섬김, 영혼사랑, 성육신적 삶, 가정, 융통성, 연합을 훈련원 핵심 가치로 삼았다.

모집대상

선교적 목회나 선교사를 지망하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가정교회에서 추천한 차세대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집 방법

중국 가정교회 추천, 중국내 선교사들의 추천을 통하여 모집하였고 1기 때는 주로 사천성 지역에서 모집 되었고 2기~4기는 중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모집이 되었다.

오리엔테이션

훈련생들이 도착하면 2박 3일 밀림 트레킹을 통해 함께 걷고 머물면 함께 먹고 그리고 한 명씩 시간 제한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나누게 하였다. 본격적인 교육과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서로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원했기 때문이다. 오리엔테이션은 밀림 트레킹을 통해 진행 되었다. 리더십 훈련의 목적과 전체적 진행에 대해서 인지를시켰다.

교육과 훈련 내용

훈련 내용은 성경, 선교, 역사, 실천적 생활로 이루어져 있다. 성경훈련은 성경통독과 강해로 구성되어 있다. 훈련은 리더십 훈련, 제자훈련, 전도훈련,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선교적 교회, 공산권, 이슬람권, 불교권, 회교권 선교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 훈련 부분은 세계교회사와 중국 교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실천적 생활 훈련은 내적치유, 영적 전쟁, 성육신적 삶, 공동체 훈련, 건강한 가정세우기, 생존 수영강습, 영어회화, 악기 배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과

아침 경건회를 훈련생들이 돌아가며 인도하되 매일 해당되는 묵상 말씀을 근거해서 진행하였다. 경건회가 끝나면 각자 간단한 아침운동과 세면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한다. 식사는 매일 두 명이 조를 짜서 준비하게 하였고 식사 후에 훈련생들이 함께 식기를 닦았다. 오전 강의가 보통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점심 먹기 전 30분은 중보기도를 한다. 점심식사 후 보통 3시까지 자유시간이고 3시부터 5시까지 영어, 악기 수업이 매일 번갈아 진행된다. 저녁식사 후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강의가 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개인시간을 갖고 11시 취침한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저녁은 태국 선교단체 소유의 과수원 숲에서 철야기도를 한다. 토요일에는 개인시간과 장보기가 있고 치앙마이 주변 교회나 기독교 기관 방문 또는 야외 나들이 시간도 주어진다. 주일 공동 예배 시에는 훈련생들이 돌아가며 설교 및 예배 인도를 한다.

함께 공동체로 있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또 개인들의 성격과 단점들이 들어나 공동체 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규정을 지키는 부분에서, 사소한 물건관리 부분에서, 성격이 강한 지도자가 말로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주는 부분에서 등등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 훈련은 일상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부터 이루어 지기에 스스로 성숙하게 갈등을 관리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도록 격려한다. 이런 갈등해결을 통해 지도자들은 의사소통 기술과 갈등조정 리더십, 섬김의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 가끔 공동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이럴 때는 필자와 팀 동료 선교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도 한다.

아웃리치

모든 훈련과정이 마치면 조를 편성하여 태국 주변국에 1~3주간 아웃리치를 다녀온다. 조장^의 인솔 하에 각 팀은 본인들이 정한 나라와 지역으로 흩어진다. 주어진 날짜까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매일 듣는 성경을 통해 통독을 해야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조장은 매일 SNS를 통해 상황 보고 한다.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한다. 현지 교회를 찾아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것은 중국 가정교회의 선교적 눈을 넓혀주려는 목적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킹덤빌더 훈련생들의 지도자 개발훈련에 대한 설문과 결과

킹덤빌더 지도자 개발 훈련원에서는 1기에서 4기까지 이 훈련원을 통해 지도자 개발 훈련을 받은 훈련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지도자 개발 훈련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당신의 생각은?

1. 지도자 개발 훈련의 적절한 기간은?
2. 중국문화를 고려할 때 선호하는 훈련형식은?
3. 중국 교회 상황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훈련영역은?
4. 지도자 개발 훈련시 훈련분위기는?
5. 영성훈련에서 중요한 훈련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6. 인격훈련에서 중요한 훈련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7. 사역훈련에서 중요한 훈련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8. 생활훈련에서 중요한 훈련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9. 지식훈련에서 중요한 훈련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위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도자 개발 훈련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당신의 생각은?

<표 1>

지도자 개발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결과

답안	답안내용	1기 (10명)	2기 (10명)	3기 (8명)	4기 (20명)	총48명 결과
1)	필요	7	8	7	15	37
2)	중국내 신학훈련으로 충분	1	1		2	4
3)	성숙하면 불필요	2	1	1	3	7

결과: 대부분 훈련생들은 지도자 개발 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부지만 중국내 신학훈련으로도 충분하다고 답한 사람도 있었고, 이미 성숙한 지도자라면 지도자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다. 종합해 볼 때, 지도자 개발 훈련은 꼭 필요한 것이며 이것은 중국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2. 지도자 개발 훈련의 적절한 기간은?

<표 2>

지도자 개발 훈련의 적절한 기간에 대한 결과

답안	답안내용	1기 (10명)	2기 (10명)	3기 (8명)	4기 (20명)	총48명 결과
1)	2주	1	1		3	5
2)	1개월	2	2	2	4	10
3)	3개월	6	5	5	11	27
4)	6개월	1	2	1	2	6

결과: 지도자 개발 훈련 기간에 있어서 훈련생들은 3개월 과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답했다. 물론 더 짧은 과정이나 6개월 과정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결과를 볼 때 3개월 과정으로 훈련기간을 정하되, 때에 따라서는 짧은 과정과 더 긴 과정을 설치해서 맞춤형식으로 기간을 정해 보는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임을 설문 2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한다.

3. 중국문화를 고려할 때 선호하는 훈련형식은?

<표 3>

중국문화를 고려할 때 선호하는 훈련 형식에 대한 결과

답안	답안내용	1기 (10명)	2기 (10명)	3기 (8명)	4기 (20명)	총48명 결과
1)	세미나식	2	2	2	5	11
2)	학교수업 방식	3	2	1	3	9
3)	공동체적 통합훈련	5	6	5	12	28

결과: 중국 문화를 고려할 때 선호하는 훈련 형식으로는 공동체적 통합훈련 형식으로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답했다. 이것은 중국 가정교회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다.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가정교회는 비밀리에 공동체로 모여 예배모임을 가지고 있고, 신앙훈련과 지도자 훈련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지도가 개발 훈련에 있어서 공동체적 통합 훈련은 지도자들의 인격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4. 중국 교회 상황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훈련영역은?

<표 4>

중국 교회 상황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훈련영역에 대한 결과

답안	답안내용	1기 (10명)	2기 (10명)	3기 (8명)	4기 (20명)	총48명 결과
1)	영적훈련	3	2	3	5	13
2)	가정생활훈련	1	2	1	3	7
3)	사역훈련	3	3	2	5	13
4)	인격훈련	2	2	2	3	9
5)	지식훈련	1	1		4	6

결과: 중국교회 상황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영역에 영적훈련과 사역훈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결과를 꺾박받고 고난받는 중국교회의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중국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고난과 꺾박 중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영적훈련을 더 우선시 여기고, 어려움 중에서도 사역을 확장해 나가야 하기에 사역훈련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4번 설문결과는 사역에 있어서 인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자 개발 훈련 중에 이 부분을 더욱 훈련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도 말해주고 있다.

5. 지도자 개발 훈련시 훈련분위기는?

<표 5>

지도자 개발 훈련시 훈련 분위기에 대한 결과

답안	답안내용	1기 (10명)	2기 (10명)	3기 (8명)	4기 (20명)	총48명 결과
1)	자유 분위기	2	1	2	7	12

2)	적당한 규율이 있는 분위기	5	8	6	13	32
3)	강요식 분위기	3	1			4

결과: 대부분 훈련생들은 지도자 개발 훈련에 있어서 적당한 규율이 있는 분위기를 선호하고 있음을 5번 설문 결과는 말해 주고 있다. 중국내 가정교회에서는 엄격한 강요식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중국인들이 어려서부터 공산당 일당체제에 대한 순응교육을 장기간 받다보니 강요식 교육 방식에도 상당히 길들여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훈련생들은 훈련을 받으면서 지나친 자율 분위기나 지나친 강요식 훈련 분위기가 바람직 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적절한 내부 규율의 율타리(분위기)안에서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훈련 분위기라는 점을 위 5번의 설문결과는 말해 주고 있다.

6. 영성훈련에서 중요한 훈련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표 6>

영성훈련에서 중요한 훈련분야에 대한 결과

답안	답안내용	1기 (10명)	2기 (10명)	3기 (8명)	4기 (20명)	총48명 결과
1)	기도	3	3	3	7	16
2)	성경공부	2	3	3	5	13
3)	헌신과 희생	3	2	1	5	11
4)	정직과 거룩	2	2	1	3	8

결과: 위 설문을 통해서 중국교회 지도자 훈련생들에게 있어서 기도와 성경공부는 영성훈련에서 중요한 분야로 확인되었다. 필자가 경험한 중국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한결같이 장시간 기도하는 것과 성경공부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중국 교회 지도자들의 이런 영성의 장점은 격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위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 훈련생들에게 있어서 정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한 영성, 균형있는 영성훈련에 있어서 정직도 중요한 부분이기때 지도자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7. 인격훈련에서 중요한 훈련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표 7>

인격훈련에서 중요한 훈련분야에 대한 결과

답안	답안내용	1기 (10명)	2기 (10명)	3기 (8명)	4기 (20명)	총48명 결과
1)	섬김	3	2	2	3	10
2)	사랑과 용서	3	3	3	7	16
3)	거룩한 삶	3	2	2	5	12
4)	연합정신		1		2	3
5)	정직	1	2	1	3	7

결과: 인격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사랑과 용서, 거룩한 삶, 그리고 섬김의 순서로 훈련생들은 답했다. 필자는 위 결과를 당연한 결과로 보았다. 그러나 정직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설문 7번의 인격훈련의 결과와도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중국은 13억이 함께 산다. 중국인들은 나름대로의 생존방식을 갖고 있다. 적절한 눈속임은 사회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명품을 베끼거나 음악, 영화, 소프트 웨어를 복제하는 것에 조금의 머뭇거림이 없는 사회이다. 위 내용은 제한적이지만 필자가 경험한 중국사회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직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도 물론 있다는 점을 안다. 하지만 필자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중국내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생존방식으로 살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도자 개발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정직훈련도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꼭 훈련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8. 사역훈련에서 중요한 훈련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표 8>

사역훈련에서 중요한 훈련분야에 대한 결과

답안	답안내용	1기 (10명)	2기 (10명)	3기 (8명)	4기 (20명)	총48명 결과
1)	전도와 교회개척	5	4	4	9	22
2)	말씀사역	3	3	2	5	13
3)	구제와 봉사	2	2	1	3	8
4)	심방과 상담		1	1	3	5

결과: 사역훈련에 있어서 훈련생들은 전도와 교회개척을 가장 우선시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말씀사역으로 답했다. 심방과 상담은 낮은 순위였지만 중국이 급속히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도시 전체가 바뀌고 있다. 이것은 사회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기독교 상담은 앞으로 중국 교회의 미래를 내다 볼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아직은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지만, 상담분야는 지도자 개발 훈련에 중요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9. 생활훈련에서 중요한 훈련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표 9>

생활 훈련에서 중요한 훈련에 대한 결과

답안	답안내용	1기 (10명)	2기 (10명)	3기 (8명)	4기 (20명)	총48명 결과
1)	가정생활	2	2	1	6	11
2)	재정훈련	2	1		3	6
3)	자기관리	4	5	6	8	23
4)	대인관계	2	2	1	3	8

결과: 생활훈련에 있어서 훈련생들은 자기관리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가정생활로 보았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아이들을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택에 맡기고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1년에 한 두번 자녀를 볼 수 있다. 사역에 매진하다보니 가족의 희생이 따른다. 그러나 장기간 남편이나 아내가 사역자라면 한 쪽은 생계를 책임진다. 때로는 일자리를 찾아 타 지방에서 장기간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 가정생활이 파탄으로 치닫는 경우를 보게 된다. 고무적인 부분은 설문 9번에서 생활훈련에 있어서 가정생활 훈련이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으로 나온 것이다. 지도자 개발 훈련 프로그램에서 가정생활 훈련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부부관계, 중국 목회자와 자녀와의 관계 부분을 다루는 것은 중국교회와 지도자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또다른 방법이다.

10. 지식훈련에서 중요한 훈련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표 10>

지식훈련에서 중요한 훈련분야에 대한 결과

답안	답안내용	1기 (10명)	2기 (10명)	3기 (8명)	4기 (20명)	총48명 결과
1)	외국어 습득	1	1		3	5
2)	신학지식 습득	5	4	4	8	21
3)	직업과 비즈니스	3	3	2	5	13
4)	사회,문화	1	2	2	4	9

결과: 지식훈련에 있어서 훈련생들은 신학지식 습득을 가장 우선시 한다는 답을 했다. 중국 가정교회 내 신학훈련은 질적인 면에 있어서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양질의 신학지식 습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설문 10번에서 특이한 부분은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직업과 비즈니스에도 관심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자비량 방식이다. 9번에서 필자가 언급했듯이 생계를 목회자 부부 중에 한 명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비록 최근에 이르러서야 일부의 도시 가정교회가 그들 헌금의 일부분을 목회자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목회자들이 생활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기에 자연스럽게 목회자들이 비즈니스나 직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라고 본다. BAM(Business As Mission) 즉 비즈니스 선교과목을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중국 지도자 개발 훈련 과정에 넣은 것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라고 본다. 물질이나 비즈니스 때문에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 야성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것도 지도자 개발 훈련원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에 있어서 한계와 당면한 문제

필자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원을 치앙마이에서 진행하면서 초기에 많은 보람을 느꼈지만 지도자 훈련을 진행하면서 한계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올바른 진단과 평가가 있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운영했던 중국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원 사역을 아래의 질문을 통해 진단과 평가를 해 보기로 한다.

훈련을 할 때 마다 훈련 목적에 적힌 대로 성취하고 있는가? 무엇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 안되고 있는가?

훈련의 목적은 세계 안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가정교회의 미래를 내다 보면서 중국 가정 교회와 지도자들을 훈련하여 건강한 지도자로 세워 그들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고 더 나아가 세계선교에 공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1기부터 4기까지 훈련을 감당하면서 매 기수 마다 훈련의 목적에 집중하려고 했다. 그러나 리더십 개발 중에 사역개발 측면에 치중된 경향이 있었다. 기본 3개월 과정을 진행하는 중에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강사들 대부분이 리더십 전반에 걸친 접근 보다는 목회사역 기술 전수에 치중한 경향이 많았다. 건강한 지도자 개념을 사역에 더 집중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스파르타식의 훈련도 강행하곤 하였다. 이점은 훈련을 바라보는 운영자간 조율이 안된 부분도 있었다. 필자의 경우 성경의 문맥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중히 여긴 반면 또 다른 동료선교사는 성경다독을 중시 여겨 여타 상당한 시간을 성경통독에 집중케 하려는 계획이 있어 훈련자들 내부 안에서 훈련 방향에 대한 갈등이 있기도 하였다. 이점은 강사 섭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피 훈련자들을 고려하기 보다는 훈련원

운영과 사역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질적인 교육과 훈련이 부족했다.

훈련원 핵심 가치: 성경, 기도, 섬김, 영혼 사람, 성육신적 삶, 가정, 융통성, 연합을 훈련원 핵심 가치로 삼는데 이것들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는가? 무엇이 장애였는가?

훈련원의 핵심 가치가 훈련 기간 동안 훈련생들 안에 뿌리 내리도록 의도하였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성경말씀 훈련, 기도훈련, 섬김 훈련, 연합 훈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가정이 사역에 포함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일단 훈련생들이 부부가 온 경우 아이들을 친척에 맡기고 왔고, 어떤 경우는 부부 중 한 쪽만 온 경우도 있었다. 충분한 재정 준비가 안된 이유도 있었고 또 훈련원에서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준비 되지 않은 점도 있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지도자 훈련은 어느 한 팀이나 개인들이 하기 보다는 중국교회와 선교기관 그리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선교사 그룹들이 함께 연합하여 운영해야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모집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장애였고, 보완되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모집 방법은 처음에는 알고 있는 선교사들과 관계가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모집이 되었다. 어떤 경우는 훈련을 받고 배우려는 뜻 보다는 쉴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지도자들의 경우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미온적이어서 타 훈련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했다. 물론 쉽다 필요하기에 이런 경우 따로 쉽고 회복을 위한 지도자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지도자들을 모집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오리엔테이션은 충분히 잘 전달 되었는가? 훈련원들이 얼마나 잘 따라 오는가? 무엇을 어떻게 더 잘 해야 하겠는가?

오리엔테이션은 대체적으로 잘 전달이 되었다. 훈련생들은 훈련 기간 동안 대체적으로 잘 따라왔다. 학습의지나 참여의지는 매우 높았다.

중국의 문화와 중국인의 기질과 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훈련을 진행하였는가?

훈련 진행자들은 한국사람들이고 피 교육생들은 중국인이었다. 이점에서 중국문화나 중국인의 기질 그리고 중국교회의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한국적인 상황과 문화 기반에서 훈련을 진행해 왔다. 훈련원 운영자 모두가 중국에서 선교사 경험이 있었지만 강사진들 80퍼센트가 한국인들인 점은 반드시 개선 해야 할 훈련원이 갖고 있는 약점이었다.

훈련자들 스스로가 성품이나 훈련원 운영에 있어서 잘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는지?

훈련과 교육에 있어서 끼치는 영향력 때문에 훈련자들이 매우 중요하다.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는 자주 교육생들과 충돌하였다. 피 교육생들을 군대 조교처럼 지도하려고 했던 점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우월감을 갖고 중국 지도자들을 하대하는 일들이 종종 발견 되었다. 훈련자가 성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성품 훈련 부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교육과 훈련 내용은 잘 전달되고 있는가? 언어에 대한 이해도는 문제가 없는가? 훈련생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이 가장 그들에게 적합하게 느껴지는지? 적용이 잘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

교육과 훈련 내용 전달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필자를 포함한 훈련원 사역자들은 중국어 기반으로 사역을 감당했지만 한국에서 오는 강사들 때문에 효과적인 강의 전달을 위해서 조선족 통역사가 스텝으로 동역했다. 훈련 내용 중에는 제자훈련 강의와 타 문화 교육 그리고 내적 치유 과목, 아웃릿치(4기 실시) 과목들이 가장 호응이 좋았다.

일과는?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 효과적인 일과를 위해서 변화를 주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

일과 부분에서 더 변화를 주어야 할 부분은 독서 부분이라고 판단 되었다. 리더십 관련한 충분한 도서가 준비가 안되었고 일과 중에 독서의 시간이 충분히 제공 되지 않았다.

아웃리치는? 1-3 주간 다녀오면서 어떤 내용을 하는 가? 어떤 부분이 힘든 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 할 수 있을까?

아웃리치는 4기 때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중국 지도자들에게 세상을 보는 관점을 더 넓혀 주기 위한 목적과 선교적 시각을 열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것이었다. 매일 일지를 쓰게 했는데 현지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날 누구를 만났는지? 주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또 그 지역의 경제, 정치, 교육, 종교 중심지에 가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느낀 점들을 쓰게 했다. 팀원들과 역할 분담을 하면서 매일 매일 함께 미션을 수행하게 하였다.

아래에서는 훈련원 사역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훈련원 사역의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몇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균형있는 통합적 전인적 훈련의 부재

공식훈련을 통해 인식적인 목표달성에 치중한 면이 있어 훈련생들에게 따라 오기만을 강요한 부분이 있었다. 클린턴은 “교육의 효과는 필요한 정보전달과 더불어 비공식 훈련을 통해 감성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식 훈련, 비공식 훈련, 무형식 훈련 등 세가지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해야 함”을 말한다(클린턴 2009:82). 훈련에서도 태도(Being)와 지식(Knowing)과 행동(Doing)의 전인적 통합 훈련이 부족했다. 효과적인 지도자 훈련을 위해서는 중국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훈련의 주체를 구성하여 지도자 훈련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망된다. 또한 비록 짧은 훈련 기간 동안이지만 영감있는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영성과 인격까지 질적으로 깊이 있게 변혁(transformation) 시킬 수 있는 훈련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먼저 훈련자가 하나님안에서 아름다운 성품을 가꾸어 나가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영감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개인별 맞춤형 훈련의 부재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 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한 환경에 처하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윌라드

2000:45)라고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하나를 소중하게 대하시고 독특한 각자의 환경을 섭리하시어 이끌어 오셨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필자가 운영했던 훈련원에서는 훈련생들 간 교육적 배경의 차이와 지역적 배경의 차이를 간과했다. 훈련생들은 중국 가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들과 예비 지도자들이지만 교육적 수준과 배경이 다 달랐다. 고졸이 있는가 하면 대졸이 있다. 농촌기반의 가정교회 지도자와 대도시 기반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훈련생으로 와 있었다. 강의와 훈련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개인별로 달랐다. 이점은 훈련의 한계를 말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훈련생 별 맞춤형 제한적 도제교육과 각자의 은사를 인식하고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 진행한 훈련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은사개발 프로그램 부분은 시행하지 않았다. 훈련생들이 대부분 20~30대였다. 물론 40대와 50대도 있었다. 훈련생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인생 발전단계에 있어 1단계(주권적 토대)를 걸쳐 2단계(속사람 성장) 및 3단계(사역 성장)의 초기에 해당하는 과정을 지나고 있었다. 훈련원은 이들을 위한 적합한 지도자 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했다.

중국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자들은 중국의 사회와 문화와 민족적 기질 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중국인 지도자나 예비 지도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잘못된 동기를 바로 잡아 주고 자율적인 훈련 분위기 속에서도 목적인 훈련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대한의 훈련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생들에게 내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중국 지도자 훈련을 위해서는 중국교회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맞게 상황화된 중국적 훈련 교과 과정(curriculum)을 개발하되 영성 훈련, 인격 훈련, 생활 훈련, 사역 훈련, 지식 훈련의 각 영역에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생들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훈련 영역들을 선별하여 교과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훈련의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중국적 평가 기준과 도구를 개발해야 하고 훈련생들이 평생 교육의 개념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의 습관을 함양시켜야 할 필요성도 인식하게 되었다.

지속적 후속 관리의 결여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 1기에서 4기를 훈련하면서 훈련 과정 자체 이수에 집중했다. 훈련 이후 훈련생들이 현장으로 돌아간 이후 피드백이나 재교육 또는 멘토링 부분을 시행하지 않았다. 배운 부분을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평가를 통해 후속조치를 해야 지도자들로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점이 많이 부족했다. 이처럼 지속적 후속관리의 부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다.

문제점 해결 방안의 필요성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필자는 아래와 같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1)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은 훈련의 주체 면에서 중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외국 선교사들 등 주요 훈련의 주체로서 연합적으로 실행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중국교회가 주도권을 가지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2)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리더십 훈련의 개방성 면에서 서구 및 비서구 교회가 축적해 온 훈련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통합하는 지도자 훈련이 되어야 한다

3)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리더십 훈련의 고유성 면에서 중국 가정교회에서 온 훈련생들이 실제로 필요한 훈련영역들의 우선성과 그 내용이 중국의 교회와 신학교 상황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의 문화적 상황에 상황화된 리더십 훈련이 되어야 한다.

4) 훈련생들에 대한 이해 면에서 중국인의 문화적 특성과 심리학적 기질을 고려한 지도자훈련이 되어야 한다.

5) 훈련의 형식 및 방법론 면에서 공동체 생활을 바탕으로 인격과 지식과 사역을 통합하는 전인적 훈련이 되어야 한다.

7) 훈련의 재정원칙 면에서 훈련에 필요한 재정을 중국교회 스스로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8) 훈련의 중점적인 면에서 성품개발과 균형 있는 리더십 훈련에 초점을 맞춘 훈련이 되어야 한다.

9) 훈련의 전략성 면에서 중국교회와 지도자들이 그들의 장점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8) 지도자 훈련자들이나 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중국교회를 중국 주변의 나라들과 아시아 불교 문화권 선교와 더 나아가 힌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등 전세계 선교에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전망하고 그것을 위해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질적으로 훈련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9) 중국 훈련생들이 ‘평생 교육’의 개념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의 습관을 함양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지도자들의 영적, 인격적, 사역적, 생활적, 지식적 훈련 영역을 포함한 전인적 영역에 걸친 좋은 서적들과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하여 훈련생들로 하여금 훈련기간 동안 많은 책을 읽게 하여 그들의 지적 훈련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니 도서관을 확보해야 한다.

10) 일반적인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뿐 아니라 중국 교회 지도자들의 복음사역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부업) 교육, 건강/위생 교육, 컴퓨터 교육, 음악/스포츠 교육, 영어 교육, 상담, 제자 훈련, 타 문화 현장 실습 등의 기타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도 힘써야 한다.

이 같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들이 앞으로 여러 지역에서 세워질 다양한 훈련기관들의 보다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훈련 커리큘럼 개발 등에 활용되어 중국의 문화와 교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성장해 온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나 예비 지도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전인적인 리더십 훈련을 받음으로 그들 속에 내재된 장점들은 보다 잘 개발되고 부족한 면들은 보완됨으로 하나님께서 중국교회 위에 내려주신 독특하고 풍부한 은사들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각 지역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을 성취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위에서 평가한 치앙마이 지도자 훈련원 사역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5장에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리더십 이론을 통해 찾아보기로 하였다.

요약

제4장에서는 필자가 사역했던 치앙마이 킹덤빌더 리더십 개발 및 훈련센터 사역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필자는 세계 안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가정교회의 미래를 내다 보면서 중국교회와 지도자들을 훈련하여 선교적 안목과 건강한 리더십을 갖춘 건강한 지도자로 세워 그들로 건강한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 더 나아가 세계선교에 공헌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태국 치앙마이에 킹덤빌더라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개발 훈련원을 열어 리더십 훈련을 실시하여 왔다.

훈련원 사역 평가와 해결 방안 모색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 1기에서 4기를 훈련하면서 훈련 과정 자체 이슈에 집중했다. 훈련에서도 태도(Being)와 지식(Knowing)과 행동(Doing)의 전인적 통합 훈련이 부족했다. 비록 짧은 훈련 기간 동안이지만 영감있는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영성과 인격까지 질적으로 깊이 있게 변혁(transformation)시킬 수 있는 훈련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먼저 훈련자가 하나님안에서 아름다운 성품을 가꾸어 나가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영감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음을 진단하게 되었다.

훈련생 별 맞춤형 제한적 도제교육과 각자의 은사를 인식하고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 진행한 훈련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은사개발 프로그램 부분은 시행하지 않았다. 훈련생들이 대부분 20~30대 였다. 물론 40대와 50대도 있었다. 훈련생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인생 발전단계에 있어 1단계(주권적 토대)를 걸쳐 2단계(속사람 성장) 및 3단계(사역 성장)의 초기에 해당하는 과정을 지나고 있었다. 훈련원은 이들을 위한 적합한 지도자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했다.

훈련 이후 훈련생들이 현장으로 돌아간 이후 피드백이나 재교육 또는 멘토링 부분을 시행하지 않았다. 배운 부분을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평가를 통해 후속조치를 해야 지도자들로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속적 후속관리가 잘 실시되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필자는 이 문제점의 해결 방법으로 로버트 클린턴이 제시한 리더십 훈련 이론을 살펴 보기로 하였다.

제 5 장

로버트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 이론 이해

필자는 치앙마에서 진행해 왔던 리더십 훈련을 로버트 클린턴의 지도자 부상 이론에 근거해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로버트 클린턴의 지도자 부상 이론의 관점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처한 현지 상황에서 리더십 개발과 그 동안 진행해 왔던 리더십 훈련에 바른 평가와 지침 바탕 위에서 바르고 균형있게 리더십 훈련이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로버트 클린턴의 리더십 이론을 필자가 사역했던 치앙마이 지도자 훈련원에 적용해야 할 이유는 클린턴의 리더십 이론이 평생에 걸친 지도자 훈련 개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품과 은사개발 분야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리더십에 도전을 주기 때문이다. 필자가 지도했던 리더십 훈련은 지도자 평생개념 부분과 은사개발 분야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부분이 미약했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필자는 리더십 훈련의 첫 일환으로 훈련생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밀림을 2박 3일 간 함께 걸으며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면서 한 사람씩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 왔는지 인생 폴스토리를 나누게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전 인생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단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로버트 클린턴의 지도자 부상이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그의 전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끄시고 지도자로 세워 가신다”라고 말한다(클린턴 2011:37). 즉 필자가 만났던 예비 지도자 혹은 지도자의 인생 전체는 결국 지도자를 만들어 가시는 지도자 훈련 혹은 리더십 훈련과정이었다는 것을 로버트 클린턴의 리더십 이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지도자 만들기 과정에 잘 반응하고 따라가서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지도자가 되면 좋겠지만 통과해야 할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많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한국에서도 어릴 적부터 필자가 배우고 보고 자랐던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재물욕심, 권력남용, 성 스캔들, 가정불화 문제로 한국 사회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클린턴은 지도자들이 잘 마무리 못하도록 방해하는 7가지 장애물과 잘 마무리하는 지도자들의 6가지 특징들 그리고 잘 마무리 하는 것을 돕는 5가지 촉진법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이 부분은 5장에서 로버트 클린턴의 리더십 이론을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지도자로 잘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돕는 것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개발에 관한 필자의 논문이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이다. 로버트 클린턴(J. Robert Clinton)의 리더십 출현 이론은 지도자의 사역의 성공보다도 인격의 성숙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품에 기초하지 않는 사역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점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을 하면서 마음에 가장 많이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하다. 중국 사람들은 자국 중심적 사고가 강하다. 그리고 가정교회 스타일의 신앙생활 체계가 있다. 많은 경우에 순회 전도자의 삶이 몸에 배어있어 가정은 뒤로하고 오직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니 사역과 삶의 균형이나 타인의 연약함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필자가 중국 지도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최고 지도자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지도자의 대화를 통해 순교만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가정교회의 정서를 읽을 수 있었다. 그 동안 하남성 지도자가 이끄는 단체를 통해서 많은 중국인 선교사들이 이슬람 국가로 파송 되었다. 대개 중국인 여성 선교사들이 파송 되는 경우가 많다. 파송 예배를 드리고 보내는 것으로 교회는 사명을 다했다고 자족한다. 파송된 선교사들과 더 이상 연락이 안 되면 순교한 것으로 여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균형있는 지도력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가 더 분명해 진다. 필자도 선교사의 신분으로 중국과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는 중국인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입장에서 하남성 지도자의 말에 감동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발언으로도 여겨졌다.

하나님께서 희생만을 강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선교현지의 문화에 적응하도록 훈련해야 하며 또 다른 지도자를 바르게 양성할 수 있도록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이끄심 그리고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섭리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건강한 지도자가 건강한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고 건강한 지도자가 결국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3개월을 합숙하다 보면 많은 갈등이 터져 나온다. 인격보다는 누가 더 오래 기도하고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읽는가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인격과 성품의 부분에 대해 훈련 받은 경험이 부재하기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의 가치와 삶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살았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인격의 성숙과 성품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은 중국 가정교회의 건강한 미래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지도자가 지도자 양성에 관심과 열정이 없다면 그는 정체를 맞은 지도자라고 클린턴은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리더십 개발이란, 정규적인 훈련과정에서만 아니라 생의 전 과정에서 계속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본 논문의 목표인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리더십 개발”을 돕기 위해 클린턴의 지도자 개발이론은 어떤 방면으로든지 이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중국의 가정교회의 리더십 개발을 위하여 클린턴의 리더십 출현 이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클린턴의 리더십 출현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 이론

로버트 클린턴은 ‘지도자 평생 개발론에서’ 지도자 개발 이론의 핵심을 말했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생의 전반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도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도자들을 일으키시고 개발 하신다는 것이고, 리더십 발전은 지도자의 반응에 따라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클린턴 2011:37). 사람은 살아가다가 어떤 시간에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난다. 그것은 감정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육체적인 아픔으로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주위에 가까운 사람을 잃는 아픔을 직면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혼돈이 오고, 침체가 오며, 물질을 통해 유혹을 받기도 하고, 성적인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일로 사건을 만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사건을 직면하면서 어떤 과정을 지나게 된다. 과정을 통과하는 기간은 모호하고 길게 느끼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어 반응을 부정적으로하여 자기를 탓하고,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고, 책임전가를 남에게 하고, 직면한 어려움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했더라도 그 과정을 통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반응으로 반응 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지도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

로버트 클린턴은 시간선이란 틀을 사용하여 지도자의 과거와 현재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보여 주고 있다(클린턴 2011b:48). 지도자의 발전단계과정의 변화는 사역 시간선의 발전 단계와 거의 비슷한 시기와 맞물린다. 각 발전단계가 바뀔 때 마다 나타나는 특성은 단계에 따라 과정의 변화, 각 단계의 마무리는 그 단계를 마무리 짓는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발전단계에 따라 영향력 행사의 범위도 바뀐다는 것이다. 초기발전단계에서는 인성개발과정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나타나는 성품을 말한다. 남에게 사려 깊은 모습, 혹은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돕는 것 좋아하는 등, 인성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기회가 없이 자란 사람들에게는 결핍 부분 때문에 성장 후에도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게 되고, 사건을 직면하는 태도도 다르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더 큰 그릇이 되고, 푸근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 어떤 일을 직면하면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도 한다. 지도자의 훈련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과 과정 그리고 반응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역과정은 능력과정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를 구분 짓는 두 번째 요소는 경계선 과정이다. 경계선 과정에는 위기, 진급, 새로운 사역,

중요한 새 이론의 학습, 특별한 체험,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남으로 삶이 변화하는 일, 주님의 인도를 받는 신비한 체험, 지리적 이동 등의 포함된다. 필자도 크게는 세 번의 경계선을 경험하였다. 첫 번째는 결혼과 자녀 출생이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교회를 섬기다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온 가족과 함께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타 문화 사역을 시작한 것인데 특히 두 번째 경계선은 고향과 조국을 떠나 낯선 나라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인생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귀고 전도하여 양육하는 과정 속에 필자는 하나님의 깊은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 필자에게 있어서 세 번째 경계선은 선교지에 나온 지 9년 만에 첫 안식년을 갖게 된 것인데 필자는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교수님들로부터 귀한 배움의 기회를 가지면서 지난 사역을 정리해보며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선교의 새로운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등처럼 지도자의 인생에 나타난다고 클린턴은 말한다(클린턴 2011a:85).

하나님께서서는 잠재적 지도자의 전 생애를 통해 계속 다듬어 가시고 발전시켜 나가신다. 그 이유는 지도자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클린턴은 영적 권위는 인격에서 흘러 나오는 감화력으로 보고 있다. 즉 사람의 존재와 인격에서 영향력 또는 감화력이 흘러 나온다는 것이다(2011a:92).

아래에서는 지도자의 삶에 놓여 있는 과정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로버트 클린턴은 지도자의 전체 삶을 분석해 본 결과 삶의 과정은 주권적 토대, 내적 성장, 사역 성장, 생의 성숙, 수렴과정, 회상, 또는 축제의 단계인 제 6단계가 있다고 말한다. 또는 기초과정, 인성 개발 과정, 사역 과정, 수렴 과정, 인도 과정 등으로 보기도 한다(2011a:83). 그러면 각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단계: 주권적 토대

하나님은 개성적인 성품 형성, 그 동안 겪은 경험들, 그리고 시기적 사건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성품과 인성 그리고 가치관들이 형성되게 하시는데 이것들을 결국 하나님께 사용하실 것이다(J. 로버트 클린턴 & 리차드 W. 클린턴

2016:52). 필자가 만난 한 지도자는 중국내 소수민족이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지만 중국 내 가난한 서민층들과 특히 소수민족들이 겪어야만 했던 사회적 불이익 등이나 빈부격차에 대한 반감으로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해 늘 불만을 갖고 폭력의 방법으로 사회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었다.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가정교회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는 오직 복음운동으로만 사람과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였다. 이제는 중국 안에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만을 고대하고 있다는 그의 고백을 통해 이 지도자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었다.

2단계: 내적 성장

회심경험은 1단계와 2단계의 경계선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또한 주님을 향한 헌신을 결단하기도 한다. 내적 성장 단계에서는 기도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중요성을 배우면서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예비 리더는 지역교회나 신학교를 통하여 정규훈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을 배우면 사역이 지경이 넓어 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시 반복되는 시험을 거치게 된다. 로버트 클린턴은 내적 성숙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중점을 두고 계시는 것은 ‘지도자의 속사람의 개발’임을 말한다(클린턴 2011a:56).

내적성장이 되는 1 단계 2 단계 중에 인격을 다듬는 과정 중에서 지도자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도자로 하여금 진실성 검증, 순종 검증, 말씀 검증, 믿음 검증을 직면하게 한다. 네 가지 검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진실성 검증

“하나님께서서는 지도자의 역량을 확장시키는 기초로 진실성 검증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내적 확신들과 외적 행동들 사이의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종류들로는 유혹, 상환, 가치검증, 충성, 인도하심, 사역 비전에 반하는 갈등, 리더십 반발,

박해 등이 있다”(클린턴 2011b:181). 요셉은 성적 유혹을 이겨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우상숭배의 유혹을 이겨냈다. 진실성 검증을 통해 지도자의 지도력은 한층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진실성 검증의 예를 들어본다면,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번 진실성 검증을 직면하게 된다. 어떤 때는 누가 거스름을 더 주었을 때에, 투명하게 거스름이 생각보다 더 많이 왔으니 분명하고 정직한 태도로 돌려 주는 것은 진실성 검증에서 통과한 것이다.

순종검증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순종의 면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먼저자신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지도자 개발 초기에 학습되고 평생을 통해 반복된다. 순종검증의 종류에는 소유하기, 배우자 선택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두는 것에 관한 학습, 사역에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기꺼이 신뢰하고 붙드는 것, 용서하기, 무언가를 고백하는 것, 계속되는 잘못을 바로잡는 것 등이다. 순종과 복종의 시험을 받을 때 지도자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순종할 때는 주께서는 더 많은 진리들을 깨닫게 도우신다(클린턴 2011:182-183). 필자도 여러 번 순종에 대한 점검을 받았다.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교회건축 헌금을 약정했다. 그 해 말까지 헌금하기로 했지만 낼 수 있는 재정이 내게는 없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작성헌금을 할 수 있는 재정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교회 청년부 한 선배로부터 함께 울릉도에 가자고 제안을 받았다. 그 선배의 고향이 울릉도였는데, 농장일을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선배를 따라 울릉도에서 한 달 반을 열심히 일하며 지냈다. 울릉도를 떠나던 날 선배님의 친 형으로부터 격려금을 전달 받았다. 물론 일한 대가 이기도 했지만, 내게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던 돈이었다. 그 액수는 필자가 그 해까지 약정한 교회건축 헌금액수를 조금 초과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미련 없이 그 주일에 약정한 헌금을 냈다. 그 외에도 많은 순종의 시험을 거치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다. 당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고향과 가족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였다. 요나는 니느웨성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결국 어려운 시련을 겪고서야 순종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였다. 필자는 진실성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본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실천하고 성도들로 실천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 본다. 이것은 불신으로 가득 찬 중국사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는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 검증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를 받는 능력은 리더십의 근본이 되는 특성이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확인해 주는 기능에서 나온다.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고 이해하면서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져야 한다. 지도자들은 평생을 거쳐 삶, 사역, 인도하심, 성품형성을 위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이 말씀 검증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잘 들을 수 있게 되고 진리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 준다(클린턴 2011b:187-188). 지도자는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연구해야 한다.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 기아 상태가 되어 말씀이 허공을 치게 되고 영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말씀 검증은 마치 겨울에 살얼음 위를 걸듯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피며 나가야 함을 말한다.

믿음 검증

지도자는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다. 그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지도자들은 이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야 한다. 믿음의 검증은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믿음의 첫 걸음을 옮기도록 하면서 그 성취를 보게 하신다. 지도자는 이 초보적인 걸음들을 통해 더 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즉 작은 걸음이 큰 걸음이

된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믿음의 검증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실재와 신실성이 시험되고 진실임이 보여질 수 있으며 후에 보다 큰 문제들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주시려는 초기 도전 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검증들은 믿음에 대한 자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임을 인식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통찰,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는 반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입증되는 결과들”이라고 말한다(클린턴 2011b:200). 필자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기도 중에 큰 비전을 보았다. “성령의 파도를 타라! 성령의 파도를 타라! 이 음성이 강하게 느껴졌다. 당시에 중국 중경시 인구는 3500만 명 이었고 선교사는 전체 다섯 가정 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다. 당신 초임 선교사로써 그곳에 먼저 오신 선교사님들로부터 주말 한글학교 교장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중경시에는 마땅한 국제학교가 없었고 필자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 현지 중국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선교사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함께 격려가 필요한 때였다. 필자가 기도했을 때, 성령님은 주말 한글학교 교장직을 수락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령의 파도를 타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중경시 최초의 주말 한글학교 교장직을 수락했다. 일단 토요일 오전 집집마다 돌아가며 모임을 가지며 아내와 함께 아이들에게 한글, 미술, 음악, 성경을 가르쳤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중에 중경 한글학교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등록이 되었고,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어 별도의 공간을 갖게 되었다. 선교사 신분으로 복음전도가 어려운 지역에서 필자는 공식적으로 한인학교 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중국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을 만나 친구를 사귀고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 중경시 최초의 한글학교 안에 중경시 최초의 한인교회가 세워졌다. 당시 교장이었던 필자와 부교장 역할을 해 주셨던 김바나바 선교사님과 함께 홍콩에서 중경으로 사역지를 옮겨 사역을 하고 계셨던 정아브라함 선교사님을 찾아가 한인교회 담임직을 부탁 드렸고 정아브라함 선교사님은 중경시 첫 한인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 한인교회를 통해 중경시 첫 한인회장이 배출되었고, 한인신문사도 창업되었다. 필자가 당시 중경시 유일한 기관장이었던 터라 주중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국가간

행사협조 요청을 받고 당시 김하중 대사님과의 귀한 만남도 세 차례를 가지게 되었다. 대사님은 중경 한인교회가 중국 정부로부터 비준을 받도록 도움을 주셨다.

선교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은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셨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중경 땅에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셨고 믿음으로 그 파도를 탈 때, 중경 최초의 한인학교, 한인교회, 한인회장, 한인신문사를 세워 영적 기지들을 만들게 하셨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인성개발검증은 지도자의 선한 영향력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인성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초가 된다. 무엇보다도 인성개발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도 필수적 이라고 하겠다.

3단계: 사역성장

잠재적 지도자 들은 사역에 진입하여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타인에게 전하게 되는데 과거에 받기만 했던 삶을 벗어나 이제는 주는 삶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다(클린턴 2011a:126-127).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인격에 기초한 사역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Being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살아오면서 어떤 획기적인 일을 직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 없이 돈을 열심히 벌면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표로 살던 사람이 가까운 사람을 상실하고 나서 인생의 목표가 돈이 아니라 좀더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하고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자신이 돈을 가지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졌는데,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도 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의지했던 돈도 허망하게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면으로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내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과정이 있다. 그것은 기초사역 개발과 은사개발이다. 하나님은 지도자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초청을 통해 지도자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훈련을 통해 기술과 영적 은사들을 발전시켜서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향상 시키시고, 관계학습을 통해서 유대 관계 안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며, 분별을 통해 지도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영적 원리들을 깨닫도록 도우신다. 하나님은 지도자로 이런 과정을 통해 지도력을 개발하고 발전하도록 도우신다(2011a:127).

필자가 중국에 있을 때 아직 소그룹 셀 개척 경험이 없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아직 셀 공동체 없는 캠퍼스에서 셀 공동체를 설립할 것을 권면하였다. 6개월 후에 새로운 캠퍼스에 보낸 두 명의 제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20 여명이 전도되어 셀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제자들을 찾아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술들을 전수하였다.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갔다.

클린턴은 사역 단계를 초기사역, 중기사역, 후기사역, 마무리 사역(유종의 미) 등 네 단계로 구분했는데 각 단계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럼 각 단계에서 어떤 지도력 개발이 이루어 지는지 살펴 보도록 한다.

초기사역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만들어 가면서 먼저 인격부분을 다듬어 주신다. 성품개발은 사역보다 우선한다. 중국인은 한 자녀만 낳아 기르다 보니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약하고 이기적인 경향이 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안전하고 배부르면 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필자가 중국에 살면서 흔히 경험했던 것은 버스터미널이나 택시 승강장 또는 기차역에서 줄을 서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줄을 서 있어도 갑자기 한 무리가 옆으로 치고 들어와 매표직원에게 손을 먼저 내민다. 택시 승강장에서 줄을 서 있다가 차례가 되어 택시를 타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줄도 안 서고 택시 안으로 쏙 들어가 앉아 버린다. 중국에 13억이 살기에 나름 생존법칙이라고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부터 작은 것부터 결단하지 않으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없다. 훈련원에서 지도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인성개발에 대한 도전이다.

초기사역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직한 사람을 택하여 해야 할 일을 주시고 도전하심으로써 사역은 시작된다. 과업이 성취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면,

도전은 사역에 잠재적 지도자가 새로운 과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눈 뜨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감에 반응하는 과정을 말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통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 오는 기쁨은 도전이 주는 핵심들이다(클린턴 2011a:128). 과업이란 개인이 받은 은사들을 사역의 현장에서 활용하고 사용하여 성실히 순종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이다. 과업은 또한 시작과 끝, 책임과 평가가 수반되는 임무를 말한다(2011a:131). 초기사역단계에서 과업을 부여하는 가장 큰 목표는 잠재적지도자를 개발하는 것이다. 잠재적 지도자는 과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거룩한 과업을 이루겠다는 열정을 갖게 된다. 이처럼 초기사역에서는 리더십의 헌신과 성품이 형성되며, 사역의 경험을 갖게 되면서 삶의 목적을 깨닫고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발견하고 알게 된다.

중반기 사역

중반기 사역을 통해 지도자는 삶의 목적이 더욱 선명해 지고,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확인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된다. 사역을 통해 축적한 통찰력으로 어려움을 돌파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 하기도 한다. 사역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역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클린턴 2011a:129). 일반적인 사역기술을 습득한 뒤 중반기 사역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영적 은사(적성발견과정)들을 발견하여 확신을 가지고 사용하는 일이다.

필자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했을 때 중경지역에서 가장 큰 가정교회 그룹과 협력사역을 한 경험이 있었다. 이 그룹 안에는 최고 지도자가 있었고 그 지도자와 함께 70여 명의 협력 지도자들이 있었다. 10만 명의 성도들을 관리하다 보니 많은 리더들을 필요로 했다. 필자가 만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은 대단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리더십 개발 부분이었고 특별히 은사개발 부분이였다. 지도자 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은사를 개발하고 또 그 은사에 맞게 배치하여 사역 역할을 맡기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정교회에서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으면 질적 성장에 큰 장애가 될 수 있겠다는

진단을 내렸다. 어느날 한 지도자가 찾아왔다. 그는 중국 전체 가정교회 그룹들이 공동으로 훈련하는 선교사 훈련에 참가하여 1년 여 동안 훈련을 마치고 이라크로 파송을 받아 나갔지만 6개월 만에 선교사역을 포기하고 돌아 오고 말았다. 이 지도자는 필자가 함께 협력했던 가정교회 그룹에서 상위 지도층에 있던 지도자였다.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었지만 은사나 기술적인 부분 심지어 문화정착에 대한 훈련과 개발 없이 나간 것이 문제였다고 스스로 진단하였다. 필자가 경험한 또 한 예는, 필자의 신학 대학원 동기가 한국 인천지역에서 개척하여 교회를 섬긴 지 8년이 되었을 쯤 필자는 그 교회를 방문하여 주일예배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다. 교인은 9명 정도였다. 교회 성도님 대부분이 친인척 관계의 사람들이었다. 교회가 있는 건물은 매우 시설이 낡았고 청결하지도 못했다. 동기 목사는 주중에는 택시회사에서 일하고 토요일과 주일에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예배 후에 동기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를 발견하였다. 은사개발과 목회개발에 대한 의지의 부재가 문제점이었다. 동기 목사는 그냥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다. 필자가 경험했던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나 한국교회 지도자들 또는 선교사들 모두 영적 은사를 알고 개발하여 은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면 이들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되고 사역이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내다본다.

리더십 개발에 이처럼 중요한 은사개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흔히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기 쉽다. 그리고 특정 교단이나 특정 단체를 떠올려 경계하려는 다소 편협한 사고에 갇힐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 연관이 되어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부터,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일반은총의 선물을 누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클린턴의 은사론은 큰 공감대를 만들어 주고 있다.

클린턴은 영적 은사와 더불어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자연적 재능들과 삶의 과정에서 습득된 기술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속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클린턴 2014:14).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능력, 기술, 재주, 적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배워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기에 그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기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사와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습득된 기술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잘 활용하게 된다. 또한 청지기적인 관점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의 열브나 비유는 은사에 대한 청지기적인 책임의식을 잘 말해 주고 있다. 클린턴은 특히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확신을 가지고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자연적 재능이나 습득된 기술들이 이런 영적 은사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 재능이나 영적 은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의도적으로 습득하는 가운데 평생에 걸쳐 계속 발전시키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점을 강조한다.

치앙마이 지도자 훈련에 참여하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클린턴의 부상이론에 따르면 경계선 국면에 해당할 수 있다. 경계선 국면에는 위기, 진급, 새로운 사역, 중요한 새 이론의 학습, 특별한 체험,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삶이 변화하는 일, 주님의 인도를 받는 신비한 체험, 지리적인 이동 등이 포함된다. 지도자들 훈련원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그러나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키우고 인격과 행동이 나선형을 이루면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향발전 표본(클린턴 2011a:235)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자는 지도자들이 각자의 은사 발견과 함께 그 은사들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후기 사역

관계학습과 통찰은 성숙사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계인데 관계학습단계에서는 권위문제가, 통찰력 단계에서는 영적 싸움, 정체장애, 그리고 사역 철학이

나타난다(클린턴 2011a:156). 그럼 각 단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어떻게 성숙 시키시며, 지도자들이 인내를 통해 리더십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유대 관계 학습단계

지도자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기존의 조직 안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역을 만드는 것도 배워야 할 것이다. 유대 관계 학습 안에는 권위통찰, 관계통찰, 사역갈등, 지도력에 대한 반발 등 네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순종훈련이라 한다(클린턴 2011a:157).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통하여 지도자에게 사역현장에서 권위를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주신다. 권위를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도자가 영적 권위야말로 지도력의 주요기반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지도자는 먼저 권위에 순복 할 줄 알아야 한다. 권위에 순복 하는 경험이 없는 지도자는 지도력 개발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다(2011a:158).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 지도자에게 순종의 의미는 주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여 자기의 전 생애를 그에게 맡기는 것이다(김병삼 2007:47).

관계통찰 과정이란 지도자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면 둘 다의 경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관계에 대한 원리를 터득하는 지도자는 발전의 전환점을 이룬다(클린턴 2011a:165).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행사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종종 유발된다. 사역갈등과정이란 지도자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배우는 교훈들이 있는데 갈등의 퇴치, 갈등해소방안을 위한 방편이므로 지도자가 이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은 지도자의 지도력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2011a:166).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갈등의 종결이다. 물론 다 아물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종결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2011a:167). 이 단계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지도자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역을 통해 이루시려는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사역 성숙단계에 있는 지도자는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함은 매우 중요한 지도자 훈련 원리이다(2011a:168).

순종 훈련의 네 번째 과정인 ‘지도력에 대한 반발’은 사역갈등의 특수한 경우로써, 지도자가 반발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 더 깊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지도력에 대한 반발은 지도자의 끈기, 분명한 비전, 그리고 믿음을 시험하며, 대개는 순종훈련의 과정들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잊어버리는 것은 권위문제, 관계, 갈등과 어울려 있어서 추종자들은 그 동기에 대해 잊어버리거나, 문제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갖기 때문이다(2011a:169-170).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복잡 다양한 과정을 사용하여 속 사람의 성숙을 도모하시며 그 어려움을 이기게 도우신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성숙시키기 위해 영적 요소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신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보이는 세계의 배후에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2011a:171). 지도자는 전 생애를 통해 믿음, 기도, 영향력, 그리고 신령한 체험 및 사역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영적 세력을 분별하는 기능을 필요로 한다.

필자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을 할 때, 한 중국 여성 지도자가 훈련에 참여할 때였다. 훈련 초기에 성격은 차분해 보였고 훈련 일정에 잘 참여하였다. 그러나 3개월 합숙하는 동안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금요일이면 훈련 생들과 함께 야외 근교에 있는 태국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농장을 방문하여 나무 밑에서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날 우연히 이 여성 지도자 옆에서 기도하게 되었다. 무언가 이상한 점이 감지되었다. 필자는 대적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 순간 그 여성 지도자가 귀신에 잡혀 있음이 드러났다. 필자는 다른 훈련생들과 함께 이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윽고 귀신은 떠나가고 자매는 온전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에 감정 기복은 거의 사라졌고 정상적인 감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나중에 이 지도자는 자신의

삶을 나누는 자리에서 가끔씩 자살하고픈 생각이 스쳐 지나가곤 했다고 한다. 불우했던 과거가 떠오를 때 더욱 그러한 생각이 스쳐지나 갔다고 하였다. 지도자가 눈에 보이는 세계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에 깊이 동의 한다.

4단계: 생의 성숙

성숙 단계는 지도자가 사역을 하는 중에 만족을 주었던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단계이다. 삶의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게 되는 단계이다. 또한 성숙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고립, 위기, 갈등들이 새롭게 해석되고 이해된다. 지도자의 성품이나 인격들이 사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존재로부터 사역이 흘러 나옴을 깊이 인식하는 단계가 성숙의 단계이다. 존재는 결국 하나님과의 교통이 기초된 삶에서 만들어 진다. 클린턴은 이점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사역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클린턴 2011a:80).

선교사로 15년 사역하는 동안, 선교사들 안에 사역이 우선이 되어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가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 필자는 중국에서 태국으로 사역지가 재배치되었다. 태국 정착 초기에 필자는 태국 시니어 선교사님들을 찾아 다니며 조언을 구했다. 필자가 만났던 한 분은 태국의 선교사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조언해 주셨다. 태국에서 1년을 살면 타 선교사와의 마음의 담벼락이 1미터가 쌓이고, 10년이면 10미터가 쌓인다는 것이었다. 실제 필자가 만났던 선교사 두 분은 초기에 함께 팀으로 선교사역을 하다가 사역 때문에 갈라서 지금까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로 살아 가고 있었다. 한국교회 안에서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선교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성품에 기반한 사역 보다는 일 중심으로, 사역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보다 앞서는 삶 때문에 리더십이 부정적으로 행사되어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일들은 선교지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품에서 사역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온다는 클린턴의 말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나 한국 선교사 그리고 한국 교회 지도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강조점이다.

고립: 지도자는 예기치 않은 상황들, 즉 질병, 위기, 갈등이 포함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영성개발 과정에서 지도자가 이런 고립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인성개발을 위해 계획해 놓은 특별한 시간인 것이다. 고립기간은 지도자의 상황 성장 표본으로 인도하는데 곧 과거를 평가하면서 인격의 단계로 이끌어 가는 기간이다. 이것은 지도자를 성숙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지도자는 생애 중에 여러 번 사역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며, 그 원인은 위기, 징계, 섭리적인 환경, 질병 또는 자신의 선택 등이다. 그러나 이 고립의 기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간이 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체험하는 계기가 된다. 셸리 트레비쉬는 클린턴이 서문을 써준 그의 책 ‘고립’에서 고립에는 4가지 과정이 있다고 보았다. 즉, 발가벗기기 단계, 하나님과의 씨름 단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증진단계, 미래를 바라보는 단계 이다(트레비쉬 2011:99). 그리고 고립의 과정을 통해 지도자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 오며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보았다(2011:103). 그리고 고립의 3가지 열매로 내적변화, 영적변화, 사역적 변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립 중에 자기 발전을 강화시키는 방법 6가지를 제시 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정적인 존재로 지으셨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 그 감정을 일기에 쓰거나 친구 또는 배우자와 나누라. 하나님께 아뢰라 2, 지난 사역과 하나님을 기억하라. 즉 사역 중에 가장 뛰어났던 분은 무엇이었는지? 언제 사역을 가장 즐겼는지? 사역에서 가장 자유함을 느낀 때는 언제였는지?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지금도 당혹스럽게 하는 갈등이 있는지? 사역에서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타고난 재능, 습득한 기술, 성령의 은사를 포함한 은사가 무엇인지? 3, 하나님께서 고립에서 반드시 건져 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라. 4, 당신에게 전망을 주고, 함께 동감해 주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를 모셔라. 5,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6, 고립을 포용하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고립에서 옮겨주실 때까지는 거기 머물기로 결단한다. 고립 중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로 결단한다. 하나님께서 고립을 사용하여 지도자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당신의 사역 동기와 건강한 사역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이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보라”(2011:121-142). 트레비쉬의 고립에 대한 이해는 클린턴의 고립에 대한 이해와 맥락이 같다 하겠다. 클린턴은 이 고립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데, 즉 고립과정은 사역의 연장선에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일반적인 사역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는 시기로 정의하며, 일상 사역 중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클린턴 2011a:241). 로버트 클린턴이 제시한 고립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겪을 수 있는 과정이기에 지도자 훈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한다.

갈등- 갈등과정은 그것이 무엇 때문이든지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믿음을 발전시키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며, 인간관계나 사역자의 관계에서 분별력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갈등을 사용하여 지도자의 성품의 조절의 필요를 지적해 주신다. 이 과정에서의 강조점은 갈등에 대한 분별력을 배우는 것보다 잘 조화된 인격을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갈등은 비록 부정적인 의미가 따르는 말이지만,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긍정적인 면을 향유하지 못한다(2011a:243-244). 이처럼 갈등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자극시켜 지난 일을 반성하고 상향 발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방편이라는 것이다.

위기: 위기과정이란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압력을 받는 때로서, 생명이나 재산이나 생의 수단이 위협받을 때, 여러 종류의 갈등에 휩싸여 있을 때, 긴급한 변화가 모색 되어야 할 때, 내적인 혼란, 질병, 하나님의 성품이 강하게 기대되는 상황, 하나님의 인도나 특별한 간섭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 핍박 등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시험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가르치는 기회로 사용 하신다. 필자가 선교사로 15년 사역하는 동안 국경지역에서 강도를 만나 어디론가로 끌려 가다가 동료 선교사님과 함께 극적으로 탈출한 적이 있었다. 그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 택시가 오지 않는 곳인데 무조건 뛰기 시작했다. 마침 극적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 한 대가 우릴 보게 되었고 우리는 그 택시를 타고 그 위험한 지역을 탈출할 수 있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에 의지하며 위기과정들을 지나왔다. 이

위기과정에는 재정적인 부분과 가족의 건강상의 위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좌절의 순간 그 끝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

일생 동안 지속되는 훈련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도자의 성숙함양을 위해서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난다. 존 스토틀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런 의미에서 성숙이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했다(스토틀 2010:52). 저자는 일생 동안 지속되는 훈련을 통해 지도자는 계속 성숙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고 본다. 어느 한 단계에 제한 될 수 없다. 그것을 기타과정이라고 부른다. 이 과정은 지속적이며 모든 단계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인도과정과 기타과정이 무엇인지 살펴 보기로 한다.

인도 과정

인도함을 받는 과정은 지도자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다(클린턴 2011a:193). 한국사회 안에 대형교회들이 큰 비난을 야기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성도수가 수만 명에 이르는 교회들이다 보니 문제가 터지면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하겠다. 그 중 한 가지 사건은 S 교회(가명사용)건축 문제이다. 처음부터 수천억에 이르는 교회건축 프로젝트를 한국사회는 반대하였다. 기존 건물도 상당히 큰 규모였다. 심지어 은퇴하신 전임 목사는 교회 건축에 강하게 반대하였다는 점이 언론에서 알려 지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건물 신축을 강행하였다. 국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강행을 하였다. 건물이 완공이 되었지만 결국 민원이 제기되어 수천억짜리 교회 건물 일부를 허물고 원상복귀 하라는 법원의 1차 판결이 내려졌다. 원상복귀에 드는 비용만 수백 억원이 든다고 한다. 한국사회는 이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교회가 법을 어기고 편법으로 건축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것에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난과 원성을 듣고 있다. 그러나 그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다는 것이었다. 지도자가 야망에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잘못된 분별과 결정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섭리적 만남-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가능성을 키워 주기 위해, 특별한 쟁점에 대해 지침이나 통찰력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향으로 지도자를 이끌거나 사역 기회를 새로 열어주기 위해서 중요한 시기에 어떤 의미 있는 인물을 만나게 하시는데 이것을 섭리적 만남이라고 클린턴은 말한다(클린턴 2011a: 197).

멘토(Mentor)- 토니 호스폴은 그의 책 ‘영적 멘토링’에서 멘토링은 다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멘토링은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더 큰 그림을 보여주며, 영혼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총체적으로 관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돕고 잠재력을 발견하여 그것이 잘 발휘되도록 도전한다고 보았다(호스폴 2016:30). 클린턴은 멘토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다. 클린턴에게 있어서 멘토링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나누어 줌으로써 능력을 부여하는 관계적 경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기 적절한 조언, 적시에 필요한 안목을 제공하는 편지, 책, 혹은 정보와 다양한 자료, 재정적 지원, 멘토를 능가하여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 멘토는 때로는 젊은 리더들을 후원하기 위해 자신의 명성에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기도 한다. 리더십의 여러 역할에 대해 본을 보여주면서 닮도록 도전한다. 리더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결해 준다. 리더들의 자신감, 지위, 신뢰성을 높여주기 위해 그들과 함께 공동사역을 한다(J. 로버트 클린턴 & 리처드 W. 클린턴 2013:57).

즉 멘토링 과정이란 한 사람이 잠재적 지도자를 돕는 과정들과 그 결과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섭리적 만남의 특별한 경우이다. 하나님은 잠재적인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개발하는 일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섭리하신다(클린턴 2011a:199). 잠재적 지도자가 사역초기에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잠재적 지도자의 발전 속도를 빠르게 해주며, 일생 동안 따를 수 있는 모범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중복확인- 중복확인 과정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시켜주시는 특수한 인도를 말한다(2011a:202). 중복확인이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결정에 직면한 지도자라면 중복확인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복확인이 진행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지도자가 사역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말씀을 꼭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향을 제시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향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확인해 주실 때이다. 결론적으로 중복확인은 지도자의 중대한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과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뒷받침해 준다(2011a:203-204).

부정적 상황을 통한 성장- 하나님은 지도자로 하여금 다른 떡이 더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게 만드시면서 다음 단계를 향해 나가는 동기가 되게 하신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부정적인 사건, 사람, 갈등, 핍박, 경험들으로써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흥미를 가지고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요소를 말한다. 지도자들이 이런 부정적인 과정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서 자기 개발이나 발전을 향한 진보나 사역의 지경을 넓이는 열정 없이 살아가 다음 단계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2011a:206). 하나님은 지도자를 성장시키기 위해 때론 부정적인 사건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육신적 행동- 주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단계를 걸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자라나는 지도자들에게 육신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육신적 행동이란 지도자가 생활 중에 어떤 지침을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에 대해서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서둘러서 실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결정은 대개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되며 결국 사역과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육신적 행동과정을 몇 번 경험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체득할 수 없는 분별력을 얻게 된다(2011a:208). 클린턴은 지도자의 육신적 행동 이라는 과정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나게 해서 분별력을 강화 시켜 주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확증- 하나님의 확증은 지도자가 다시 한번 인정받는 특별한 체험이다. 지도자는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사역이 가치 있는 일이며,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러한 내적 확인은 지도자의 삶에 새로운 동기부여와 함께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이것은 지도자의 영적 권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때로는 외부사람이 추종자들에게 지도자가 영적 권위가 있음을 확증시켜주는 경우도 있다(2011a:212).

기타 과정

다른 사람의 생애에 나타난 교훈을 자신의 삶을 위한 지침으로 만드는 과정인 간접경험은 간접학습 이라고도 부르는데 간접경험과정의 목적은 독서를 통해 삶과 사역에 적용할 하나님의 교훈을 습득하는데 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은 대부분 광범위한 독서를 하는 사람이며, 글에서 삶에 필요한 교훈들을 뽑아낼 줄 아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2011a:215). 이러한 독서를 통한 간접경험은 모든 발전 단계에도 추가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말씀- 말씀과정이란 지도자가 자신의 사역지침, 헌신, 결단, 개인의 가치체계, 영성 형성, 영적 권위 또는 사역철학 수립 등의 토대가 될 말씀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지도자의 특성이기 하다. 이와 같이 말씀과정은 인도함의 모든 단계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인성개발 단계에 나타나는 말씀과정은 말씀검증으로 성품을 형성하거나 시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역단계에서의 말씀과정은 영적 권위를 형성하고, 영적 성숙을 도모하며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주며, 또 사역 철학 수립에도 영향을 준다. 이처럼 지도자는 전 생애를 통해서 말씀과정을 갖게 된다. 반대로 정체된 지도자에게는 말씀과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2011a:216-217).

위기- 위기는 지도자로 하여금 가장 어려운 시기, 삶의 중요한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예비해 놓은 해결책으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가르치신다(2011a:218).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지도자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훈을 잘 배운다면 훗날 삶의 수렴단계에 갔을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갈등- 갈등과정이란, 지도자의 모든 삶의 갈등상황에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고, 지도자 개인의 삶과 사역에 깊은 통찰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갈등과정은 다른 과정과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훈련의 촉진제 역할을 해 준다. 갈등과정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은 주로 사역기술 진전과정, 사역도전, 믿음도전, 권위분별, 지도력에 대한 반발, 고립화, 인도과정 등이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갈등의 해결책과 회피책, 갈등의 창조적인 사용법, 갈등에 대한 분별력, 다른 과정을 위한 촉진제로서의 갈등을 보는 안목 등을 배울 수 있다(2011a:220).

5단계: 수렴과정

수렴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맞는 은사의 옷을 입고 은사에 맞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여 그 사역을 극대화 시키는 단계이다(클리턴 2011a:58). 이 시기에 자신의 은사에 적합하지 않은 사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시기에는 인격에 있어서 성숙함이 있고 또 사역에 있어서도 성장이 나타나는 절정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격 개발이 안돼 있거나 그 지도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나 시스템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어떤 사람은 유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그 역량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도자 한 사람만 바뀌어도 공동체가 살아나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한다. 그래서 클린턴은 수렴단계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책과 역할이라고 말하면서 생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바르고 지속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였다(2011a:81). 지도자는 다양한 사역을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유종의 미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클린턴은 그의 공동저서인 ‘*인생개발의 주기에 따른 리더십 개발*’이라는 책에서 레이목사의 말을 빌려 선종(유종의 미)미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해 언급하였다. 즉 재정, 권력, 교만, 성, 가정,

정체기, 감정 및 심리적 상처 등이 지도자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속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도자에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부분에 크게 동감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선종하는 삶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도 언급 했는데, 6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끝까지 하나님과의 개인적 생생한 관계를 유지한다. 2.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삶에서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통해서 배운다. 3. 성령의 열매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나타낸다. 4. 삶에서 진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본다. 5.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궁극적인 공헌을 남긴다. 6. 사명의식을 확신하면서 성취되는 것을 보며 살아간다. 그러면 선종의 삶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클린턴은 말한다. 1. 현재의 사역을 평가하고 평생사역에 넓은 안목을 갖는다. 2. 영적 갱신을 기대한다. 3. 영적 훈련을 받는다. 4. 배우는 자세를 유지한다. 5. 멘토들을 갖는다. 선종하는 리더들 주변에는 10-15명의 멘토들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J. 로버트 클린턴 & 리처드 W 클린턴 2016:24-26). 지도자의 좋은 끝맺음, 이것은 클린턴 리더십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신이 가진 은사를 바탕으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집중하는 것이 수렴단계이다.

또한 지도자라면 하나님을 통해 얻어진 경험에서 나온 사역 철학을 가지고 있다(클린턴 2011a:265). 분명한 사역 철학이 있게 살아가는 것과 철학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다. 사역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깨닫게 된다. 하지만 사역철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하게 된다. 하찮은 일을 하면서도 가치를 느끼는 것은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예를 들어, 필자는 신학교 재학시절에 성경전체를 관통하는 성경 파노라마를 손동작을 통해 배운 적이 있다. 다 배우고 외우고 나니 너무 좋은 사역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졸업 후에는 다 잊어 버렸다. 필자가 그 때 얻은 철학은 배운 것은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시기부터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었다. 필자는 가장 어려운 시절 기도를 통해 위로 받았고, 소망을 얻었고 또 다양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다. 그래서 얻게 된 철학이 “어려우면 기도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라 그리고 즐거우면

찬송하라”였다. 인생 경험에서 축적된 지혜를 삶과 사역에 적용해 나갈 때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 갈 수 있다고 클린턴은 말한다.

6단계: 회상의 단계

회상단계는 전체 생애를 통해 사역의 열매와 성장이 함께 어우러져 인정을 받는 단계이다. 또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간접적인 영향력이 발휘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도자들이 맺어온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발휘되면 사람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르고 싶어 한다. 지도자들에게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 쌓인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클린턴은 이 단계에서 주의 해야 할 과제는 없다고 말하면서, 지도자는 일생 동안 발전을 도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클린턴 2011a:82).

요약

제5장에서 필자는 로버트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 이론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로버트 클린턴은 ‘지도자 평생 개발론에서’ 지도자 개발 이론의 핵심을 말했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생의 전반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도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도자들을 일으키시고 개발하신다는 것이다.

리더십 발전은 지도자의 반응에 따라 이루어 진다. 클린턴이 말하는 지도자의 삶의 과정은 주권적 토대, 내적 성장, 사역 성장, 생의 성숙, 수렴과정, 회상, 또는 축제의 단계인 제 6단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잠재적 지도자의 전 생애를 통해 계속 다듬어 가시되, 지도자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면 그리스도의 영향을 발휘하게 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 클린턴은 인격에서 영향력 또는 감화력이 흘러나온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은 사역 보다 중요하다. 잘 마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선종(유종의 미)미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해 언급하였다. 즉 재정, 권력, 교만, 성, 가정, 정체기, 감정 및 심리적

상처 등이 지도자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속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도자에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부분에 크게 동감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선종하는 삶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도 언급 했는데, 6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끝까지 하나님과의 개인적 생생한 관계를 유지한다. 2.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삶에서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통해서 배운다. 3. 성령의 열매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나타낸다. 4. 삶에서 진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본다. 5.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궁극적인 공헌을 남긴다. 6. 사명의식을 확신하면서 성취되는 것을 보며 살아간다. 그러면 선종의 삶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클린턴은 말한다. 1. 현재의 사역을 평가하고 평생사역에 넓은 안목을 갖는다. 2. 영적 갱신을 기대한다. 3. 영적 훈련을 받는다. 4. 배우는 자세를 유지한다. 5. 멘토들을 갖는다. 선종하는 리더들 주변에는 10-15명의 멘토들이 있었다.

6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 사례에서 배운 리더십 원리와 로버트 클린턴의 ‘지도자 부상이론’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개발과 훈련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6 장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바람직한 리더십 개발전략

필자는 서론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여 제자를 삼아 선교 하고자 하는데, 제자 삼는 과정에서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문제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제자 삼아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선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깊은 생동감 넘치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 때 존재로부터 영향력이 흘러나와 사역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서 영적권위를 갖고 바른 지도력을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도력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 풀러신학교 박기호 교수는 지도자 훈련의 필요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그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 하실 때 함께 생활하며 삶의 현장에서 본을 보이며 훈련(On-the-job training)시키셨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오늘날 훈련없이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지도자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목회 지도자들을 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박기호 2005:239).

그래서 필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성서적, 신학적, 선교적 그리고 상황적 이해를 바탕으로 리더십 훈련을 하여, 선한 영향력을 갖춘 지도자로 세워 이들로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케 하여 중국 가정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세계 선교에 공헌하게 하는 것으로 삼았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개발하고자 할 때 자신의 생의 전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발해 가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리더십 개발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한 학습이라는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지도자의 삶을 출생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고 계신다. 이처럼 리더십

개발은 지도자의 생의 전 과정에서 계속 진행되고 이루어 진다는 사실은 클린턴의 리더십 이론의 중심 골자이다.

리더십 개발의 바른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발전 단계를 의식하고, 리더십을 개발해 주시려는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보임으로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그들은 채너교육을 받고, 공산훈련을 받고, 다양한 선택보다는 상명하달의 관계 속에서 자기 윗 사람을 보면서 앵무새처럼 답습해 왔다. 그러나 이런 중국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출생부터 삶의 지금까지의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속에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며 인생전체를 바라보고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총체적 지도자 발전 단계를 인식하게 하는 것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중국 가정교회 리더십 개발전략에 있어서, 클린턴 이론이 갖고 있는 유용성이며, 구체적인 리더십 개발을 기대하게 하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앞에서 살펴본 리더십의 이론을 바탕으로 네 가지 방향의 지도자 개발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네 가지 리더십 개발 전략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도자 평생 개발 개념을 적용하여 훈련한다.

둘째, 은사를 개발하여 지도력 개발을 돕는다.

셋째,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 도전한다.

넷째, 선교적 삶과 선교적 교회를 향해 도전하고 훈련한다.

다음에서 네 가지 리더십 개발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지도자 평생 개발 개념을 적용하여 훈련한다

지도자들이 시간선을 따라 자신의 전체를 조망해 보고 평가하면서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앞으로 준비하고 훈련하고 개발해야 할 리더십 부분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로버트 클린턴은 ‘지도자 평생 개발론에서’ 지도자 개발 이론의 핵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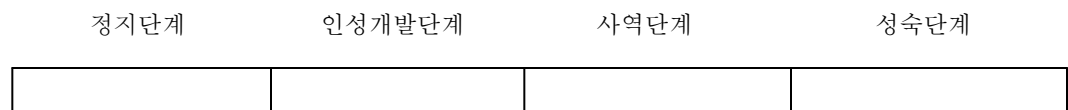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의 전반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도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도자들을 일으키시고 개발 하신다는 것이다(클린턴 2011b:37). 지도자 훈련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도자 평생개발 개념이라고 본다. 지도자가 자신의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삶 전체를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삶과 사역은 열정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가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GMTC라는 해외선교사 훈련원에서 25기로 타문화 선교 훈련을 받았을 때, 제일 처음에 배운 것 중 하나가 지도자 평생 개발 관점을 이해하고 실제로 시간선을 그려 보면서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삶과 사역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역현장에 투입되어 9년을 지내다가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다시 시간선을 그려 보게 되었다. 시간선을 보면서 긍정의 시간과 뼈아픈 고통과 시련의 시기가 반복해서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부정하고 싶은 시간과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 필자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필자는 큰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 중 한가지 사건은 필자는 선교지로 파송되었을 때 수석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다. 교회는 전적으로 후원을 약속해 주었고 후원 개발은 못하게 하였다.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교회가 보내주는 선교 후원금은 기초생활비도 안되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믿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감내했다. 그러나 4년 뒤에 교회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3개월 만 후원하고 주파송 후원관계를 끊는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고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지금까지 힘들지만 잘 버텨왔고 선교사역에 소중한 열매들이 한창 맺어 질 때였다. 후원 만료 시간이 다가 오면서 필자는 더욱 마음의 고통과 중압감을 느끼게 되었다. 금식을 선포하고 모처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은 필자의 마음을 보여 주시면서 하나님 보다 후원교회 목사님을 더 의지했던 부분을 깨닫게 해 주셨다. 필자는 회개를 하였고 주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위로를 해주셨다. 그리고 새벽에 생생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서 필자는 텅 빈 어느 교회 강단 앞에서 무릎꿇고 앉아 울고 있었다. 그때 저 뒤편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울고 있는 필자에게 걸어오더니 어깨에 손을 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왔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늘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생생한 꿈을 통해 필자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다. 3개월 뒤에 주파송 관계는 정리되었지만 필자의 마음에 원망은 사라졌다. 그리고 신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채우시고 이끌어 오셨다. 예기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와 재정을 공급해 주셨다. 필자도 시간선을 통해 삶을 조망해 보게 되면서 삶의 국면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이끄시는 섭리와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된다. 또 앞으로 나갈 방향과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을 깨닫게 된다.

시간선을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시간선



시간선에 따른 필자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정지단계가 1982-1987 라고 본다. 그 이유는 1982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1987년 대학입학하기 전에 나의 삶 전체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성개발단계는 1985-1995년으로 보았다. 고등학교 재학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사회경험을 하는 과정 동안에 말씀훈련, 설교, 책, 다양한 지도자들과의 만남, 다양한 경험을 통해 주님은 인성을 개발시키셨다. 사역단계는 1995-2013년까지로 보았다. 고아원, 장애인 선교, 교회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선교사역이 포함되어 있다. 성숙단계는 2013-2018년 현재까지로 보았다.

클린턴이 말하는 시간선 안에는 정지단계, 인성개발 단계, 사역 단계, 성숙 단계가 있다. 이것을 J. 로버트 클린턴과 리처드 W. 클린턴이 그들의 공동저서 *인생 주기에 따른 리더십 개발*에서 밝힌 리더십 개발 개요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역의 기초(16~26년):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성품이 형성되고 사명에 대한 단초가 제공된다. 영적 형성이있고 성품개발이 있다. 사명 준비를 하면서 작은 책임에서 큰

책임 있는 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잠재적 지도자가 긍정적 반응을 하면 사역의 확장으로 이어지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교정의 시간이 따른다. 또 이 단계에서는 초기 영적 은사가 나타나고 기술을 더 습득하게 되면서 리더는 비슷한 은사를 가진 리더들을 끌어 모으기도 한다.

초기 사역(5~12년): 이 단계에서는 리더십 헌신과 리더십 성품이 형성된다. 실습하면서 배우며, 삶의 목적에 대한 암시가 주어지고 은사가 나타난다. 사역적 형성과 영적 형성이 함께 나타난다. 리더십 헌신, 권위통찰력, 갈등과 위기, 은사발견, 인도의 과정이 진행된다. 사명 계시가 있고 더욱더 큰 책임 있는 사역으로 이동한다. 지도자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사역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교정으로 이어진다. 초기 사역 단계에서는 영적 은사와 은사 세트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한다. 리더는 비슷한 은사를 가진 다음세대 리더들을 끌어 모은다.

중기사역(8~14년): 이 단계에서는 삶의 목적과 은사와 주요 역할이 확정되고 사역의 통찰력에 대한 돌파구가 이루어 진다. 갈등과 권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다. 사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진다. 영적, 사역적, 전략적 형성이 이루어 진다. 사역의 통찰력, 리더십 반발, 도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고, 행위 중심에서 존재(됨됨이)중심으로 변환된다. 사명이 계시가 되고, 계속된 성실성으로 잠재력이 최대한 개발된다. 시험은 믿음의 도전으로 움직여 간다. 후기 영적 은사가 나타난다.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리더십 선발을 위해 유유상종의 원리가 도움이 된다.

후기사역(12년 이상): 이 단계에서는 이상적인 역할로 움직여 나간다. 효율적인 사역이 효과적인 사역이 된다. 사역이 절정에 이른다. 궁극적 공헌이 명확해진다. 전략적, 영적 형성이 이루어 지고, 영적전쟁, 깊은 역경, 능력과정이 진행된다. 효율적 사역에서 효과적인 사역으로 변환되어 간다. 사명 계시 및 사명 성취가 이루어 진다.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된다. 시험은 이제 잠재력의 발휘로 움직여 간다. 매우 성숙한 은사를 사용하게 되고 리더십 개발을 위해 유유상종의 원리를 강력하게 사용한다.

마무리 사역(유종의 미): 이 단계에서는 평생 사역이 통합된다. 궁극적 공헌이 개발된다. 가치관을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전수한다. 영적, 전략적 형성이 이루어 진다.

사명의 성취가 있다. 사역이 마무리 사역으로 전환된다. 성실한 삶의 열매를 거둔다(J. 로버트 클린턴& 리처드 W. 클린턴 2016:116-117).

은사를 개발하여 지도력 개발을 돕는다

로버트 클린턴이 말한 시간선의 관점에서 보면 치앙마이 지도자 개발 훈련원에 입소하는 훈련생들 대부분은 그들의 인생 발전 단계에 있어 주권적 토착와 속사람 성장 단계를 거쳐 3단계인 사역성장 초기에 해당하는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비춰볼 때, 훈련생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애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고 자신의 생애 가운데 주어진 자연적 재능들, 습득된 기술들, 영적 은사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해 왔는지를 평가해 보도록 지도자 훈련 과정에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도자 훈련은 훈련생들에게 세 가지의 기초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부분이다. 둘째는 일반은총과 전인적 성장에 대한 의식, 셋째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책임있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필요한 성경적 기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강의, 세미나, 면담 등 다양한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또 지도자 훈련원은 은사 개발에 대한 동기유발을 촉진시켜야 한다. 즉 지도자 훈련원에 입소한 중국 지도자들은 왜 자신들이 은사 개발에 대한 자각을 해야 하고 은사 개발이 그들의 삶에 왜 중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생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생 전반에 대한 통합적이면서 거시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훈련생들은 사역자로서 클린턴의 지도자 부상 이론과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공하는 이론을 이해하고,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의 삶의 시간선에 따른 전 과정을 단계별로 계획해 보며 그것에 기초한 사역 구상과 지도자 경력 개발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될 때 은사 개발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얻게 될 것이다. 치앙마이 지도자 개발 훈련원에서는 클린턴의 지도자 부상 이론을 지도자 훈련 과정에 주입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중국 지도자들이 평생에 걸쳐 자신을 개발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그대화시키는 것을 격려하고자 한다.

지도자 개발 훈련원은 피 교육생들에게 은사 개발의 모델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필자가 클린턴의 지도자 부상이론을 통해 얻은 교훈이고 적용점이다. 즉 중국 지도자 훈련생들이 은사에 대한 인식을 갖고 훈련기간 동안에 자신의 은사들을 활용해 보도록 격려받는 것과 공동체의 지체들이 서로 각자의 은사들을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훈련생 본인들이 은사확인과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갖고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훈련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자세를 가지면서 인격과 행동이 나선형을 이루며 성장하는 상향발전 표본에 적합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한 삶 자체가 훈련생들에게는 은사개발에 대한 도전의식을 주게 될 것이다.

로버트 클린턴의 은사 개발 이론을 다시한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클린턴의 은사 개발론에 따르면 지도자의 잠재력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로 구성된 은사 집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 영적은사가 은사 집합의 세가지 요소이다(J. 로버트 클린턴 & 리처드 W. 클린턴 2014:19). 타고난 재능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능력, 기술, 재주, 또는 적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들은 무언가를 성취케 하는 요소들이다. 습득된 기술은 태어난 후에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배우고 연마해서 습득된 재능, 기술, 재주 또는 적성도 여기에 속한다. 영적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독특한 능력을 말한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능력을 의지하여 사역을 하게 하신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 성령의 은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전도, 섬김, 선교, 구제, 신유,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등 등 많은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여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은 진행된다. 이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수여된다. 사람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6-11절에 보면,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 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복음 사역자들이 사명을 감당 하기 위해서는 교회 직분자들이 각자의 사명과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성령의 은사가 필수적이다. 성령의 은사없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은사를 베드로 전서 4장 10절-11절에 근거해서 크게 나누어 보면, 말씀의 은사와 행위의 은사로 나눌 수 있다. 베드로 전서 4장 10-1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나 영적은사는 성도 각자가 갖고 있는 타고난 자연적 재능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은사집합의 주요 개념들 안에는 핵심요소, 은사의 혼합, 은사 꾸러미, 주도적 은사, 은사의 투영 등이 있다. 핵심요소는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 영적 은사 중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두가지 은사들 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타날 수 있는데 이 은사를 가리켜 핵심요소라고 한다(2014:238). 다른 두 가지 은사는 우세한 은사를 지원하여 은사의 역할을 강화한다. 중요한 것은 세가지 은사 모두 지도력을 돕는 요소들이다. 이 지배적인 은사가 나중에 나타날 수 도 있다. 또는 지배적 은사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두 은사의 협력적인 시너지를 못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이 핵심 요소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지도자 개인의 리더십 개발에 무척 중요하다. 치아마이 지도자 개발 훈련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인해주고 개발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은사의 혼합은 지도자 사역 기간 중에 어느 특정 시기에 사용되는 영적 은사의 집합을 말한다. 은사 꾸러미는 은사 집합중의 한 가지 은사가 탁월하게 개발되고 다른

은사들이 이 은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화를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를 일컬어 은사의 꾸러미라고 부른다. 주도적 은사는 지도자의 은사 혼합이나 은사꾸러미 중에서 지도자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은사를 말한다. 은사의 혼합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으며 사역의 유형에 적합한 은사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2014:70).

하나님은 지도자의 일생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간섭하시고 도우신다. 이 때문에 지도자들이 은사를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래야 책임의식을 갖고 은사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3개월 이상 시간을 투자하여 치앙마이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개발 및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고 중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겨진다.

은사의 투영은 자신에게는 그 은사가 없는데 그 은사가 좋아서 혹은 그 은사를 가진 지도자를 좋아하거나 존경해서 그 은사를 모방하기도 하고 또 마치 그 은사를 소유한 것처럼 하면서 사역에 힘쓰는 것을 말한다. 또는 지도자들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지도자에게 있는 동일한 은사를 소유한 것처럼 여기고 사역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은사의 투영에 속한다. 이럴 경우 자칫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맹목적으로 지도자를 따라하려다가 결국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무시하거나 발견을 못하고 인지를 못하거나 인지를 했어도 개발을 못하는 경옥 그렇다(2014:74).

이것을 치앙마이 지도자 훈련원에서 적용해 보면, 훈련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사역의 현장에서 효과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즉 훈련생들로 하여금 각자가 자기들의 은사가 발견되었던 사건들과 시기를 작성해 보게하는 것이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지도자 훈련 기간동안에 처음 발견하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은사를 재확인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은사 발견의 시간선을 작성하면서 정리하다보면 자신들의 삶 전체에 간섭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은 장차 효과적인 지도력 발휘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로버트 클린턴이 말하는 시간선에 따른 은사개발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1-14세의 나이를 말하며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보는 단계이다. 2단계는 6-22세의 나이에 해당하며 기본적인 기술습득의 단계이다. 3단계는 16-21세의 나이에 걸쳐 영적 은사의 징후가 나타난다. 4단계는 16-28세 사이에 보완적인 은사 개발의 시기이다. 5단계는 20-25세 나이에 걸쳐 드러난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 6단계는 30세 이상 정도의 나이에 해당하는데 잠재된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다. 7단계는 25-40세에 해당하는데 부가된 은사들이 발견되고 개발된다. 8단계는 30-40세에 속하면 은사 혼합이 형성되기도 한다. 9단계 역시 30-40세에 해당하며 은사 집합이 나타난다. 10단계는 30-50세를 가리키는데 진보된 기술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11단계는 35-50세에 해당하는데 은사 꾸러미가 나타나는 단계이다. 12단계는 45-65세에 해당하는 단계인데 수렴현상이 나타난다(2014:81). 모든 지도자들이 이 시간선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시간선을 작성하다보면 자신들의 과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또 향후 자신들의 지도자 개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도자는 자신들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합적인 시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도자들이 지도력은 사역의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 현장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위에서처럼 클린턴의 은사 개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이것은 치앙마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도자 개발 및 훈련사역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일깨워 주었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은사를 발견과 개발을 도와 이들이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돕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매우 중요한 공헌이라고 본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 도전한다

한 때 한 시대를 풍미했고 대표했던 유명한 지도자들이 돈, 권력, 성적인 문제로 잘 마무리 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는 일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구약성경에서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안에는 무수한 지도자들이 언급되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잘 마무리한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리더십의 형태는 족장, 제사장, 선지자, 왕, 사도, 복음 전도자, 교사 같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었다. 어떤 지도자는 암살 당하였고, 어떤 지도자는 전쟁에서 죽기도 하였고, 더러는 지위를 박탈 당하기도 하였다. 즉 초기에 몰락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어떤 지도자들은 초기에는 지도력을 잘 발휘 했는데 말년에 초라하게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다. 어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을 충성되게 완수하지 못하여 바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유종의 미를 잘 마친 지도자들이 있다.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생동감 있는 관계를 유지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합한 삶을 살았다(클린턴 2015:29-31). 로버트 클린턴은 그의 책 ‘유종의 미’에서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여섯 가지 장애물에 대해 언급했는데 즉 재정의 오용과 남용, 권력남용, 교만, 부적절한 이성관계, 가정문제, 비전과 열정의 상실을 지도자로 하여금 아름다운 끝맺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보았다(2015:39-41). 그런가하면 끝맺음을 잘하는 지도자의 특징도 여섯가지로 보았는데, 첫째, 끝까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생동감 있는 관계를 유지한다. 둘째,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통해 배우며, 특히 삶의 경험을 통해 계속 배운다. 셋째, 삶에서 성령의 열매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나타낸다. 넷째,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본다. 다섯째, 하나 혹은 더 많은 영적 유산을 남긴다. 여섯째, 사명의식을 점차적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의 일부나 전부가 성취되는 것을 본다.

하나님께서서는 한 사람의 리더의 삶을 평생에 걸쳐 전생애를 걸쳐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준비시키시고 그 리더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지도자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사명을 점차적으로 완성해 가신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도자는 이런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2015:61-66). 클린턴은 지도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강화수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가 말한 강화수단은 첫째, 지도자들이 평생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사역을 평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도자들은 반복적인 갱신을 기대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과 확신을 경험해야 한다. 또 갱신에 대해서 열린 자세가 있어야 하고 결단해야 한다. 로버트 클린턴은 특히 30대 중반, 40대 초반 그리고 50대 중반을 주목하면서 갱신이 필요한 시기인데 영적 훈련이 약하면 갱신보다는 과거 경험과 기술에 의존하여 정체되기 쉬울 수 있음을 경고했다. 셋째, 절제훈련, 학습, 예배, 축제, 봉사, 기도, 친교, 고백, 순복, 청빈의 삶, 하나님 음성듣기, 안식 실천, 영성일기 쓰기 등 다양한 종류의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넷째, 평생을 걸쳐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타인의 삶과 독서들을 통해서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멘토들과의 아름다운 소통과 관계를 통해서 실패의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고와 적절한 조언을 받는 멘토링이 필요하다. 10~15명의 멘토를 주변에 두는 것은 지도자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것으로 보았다(2015:44-57).

유종의 미를 위한 중국 지도자들의 지도력 개발을 돕기 위해 필자는 아래와 같이 중국지도자 지도력 개발 종합 지침서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건전한 개인생활의 중요성을 유지하라: 말씀과 주께 대한 열정을 유지, 찬양과 감사의 생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 2) 교회 공동체를 향한 헌신의 마음을 유지하라
- 3) 정서적 안정감을 확보하라: 정서적 개발에도 힘써라
- 4) 평생을 통해 겸손히 배움의 자세를 가지라
- 5) 삶의 균형을 유지하라: 사역, 가정, 삶, 인간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갖도록 노력하라
- 6) 건강도 돌보고 관리하라: 영양관리,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질병 예방에도 힘써라
- 7) 자기 개발에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라: 일주일, 한달, 1년, 5년, 10년 단위의 개발 목표를 적고 실천하라

8) 건강 관리를 하라 : 정신적 태도와 신체적 건강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신다. 위험신호를 잘 보라. 먹는 음식을 조심하라. 정기적으로 운동하라. 우리 신체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조깅, 자전거, 수영, 걷기, 구기, 체조, 매달리기 등 운동은 정신력도 강화시킨다. 적당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라.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목표를 조정하라.

9) 영성 관리를 하라: a. 순종/묵상 - 주 1/2일 or 1달 2회, b. 공부/경전 - 주 1/2일 OK, c. 겸손한 분량, d. 하나님 왕국의 가시화,

10) 시간을 관리하라: 주간, 월간, 연간 계획표를 만들어 실천하라

시간 낭비의 요인들-

(시간 낭비 요인 낭비적응 낭비많음에 대한 자가 진단표)

회의(지나치게 많은 회의) 1 2 3 4 5 6 7 8 9 10

조직(복잡한 조직) 1 2 3 4 5 6 7 8 9 10

갑자기 온 손님 1 2 3 4 5 6 7 8 9 10

과대한 업무량 1 2 3 4 5 6 7 8 9 10

불분명한 업무분담 1 2 3 4 5 6 7 8 9 10

불분명한 목표 1 2 3 4 5 6 7 8 9 10

전화 1 2 3 4 5 6 7 8 9 10

비조직적인 일처리 과정 1 2 3 4 5 6 7 8 9 10

원리원칙 (지나친) 1 2 3 4 5 6 7 8 9 10

상관-명령을 함부로 하는 1 2 3 4 5 6 7 8 9 10

너무 많은 정보나 재료 1 2 3 4 5 6 7 8 9 10

미루는 버릇 1 2 3 4 5 6 7 8 9 10

과도하게 하려는 태도 1 2 3 4 5 6 7 8 9 10

습관적인 일 1 2 3 4 5 6 7 8 9 10

설명을 잘 듣지 않고 하는것 1 2 3 4 5 6 7 8 9 10

거절하지 못하는 것 1 2 3 4 5 6 7 8 9 10

잘 조직되지 못한 것 1 2 3 4 5 6 7 8 9 10

불필요한 편지 1 2 3 4 5 6 7 8 9 10

정돈되지 못한 책상, 부엌 1 2 3 4 5 6 7 8 9 10

위임하지 않는 것 1 2 3 4 5 6 7 8 9 10

분명한 목표가 부족한 것 1 2 3 4 5 6 7 8 9 10

어디에 무엇을 두었는지 모르는 것 1 2 3 4 5 6 7 8 9 10

계획하지 않고 하는 일들 1 2 3 4 5 6 7 8 9 10

기타

시간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법-

낭비요소 발견한다

그 원인을 규명한다

시간 낭비를 계속 했을 때 오는 영향을 고려한다

시간 낭비 요소를 제거했을 때 유익을 헤아린다

낭비요소 제거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

우선순위 정할 때 고려할 점-

(*) 비 효과적인 방법

하고 싶기 때문에 먼저하는 것 (취향에 따라)

과거에 습관대로 하는 것

압력에 따라하는 것

전화온 데 전화하고, 편지온 데 편지하는 것

손에 잡히는 것부터 해 나가는 것

(*) 효과적인 방법

기도 (지혜, 하나님의 뜻 구함)

목표선정

방법선택

시간표 작성

예산

실천

평가

계획의 필요성 (어떻게 하나)-

자기와 약속하라

끈질기게 해야 한다

스케줄을 따라 가도록 노력한다

목표를 세우는 법 -

인생의 목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분야: 영적인면, 인격적인 면, 가정적인 면, 사회적인 면

장기목표: 훌륭한 강해가, 건강유지, 자녀대학 준비, 교역자/교회, 자녀/영적사역자
지도자 교제, 아내- 자기사역

단기목표: 신론공부, 운동, 자녀들과 대화, 교회지도자, 서신서 2권 2. 식생활 유의
교육 교제, 상담내용 1권, 계획생활, 절약-가계부, 교역자 교제, 지속적인 하나님, 가정
정돈, 하나님과의 교제, 부부기도/대화

방법: 경건의 시간사용, 매일 아침 5분, 매일 저녁 식사, 매월 1회 서신서 공부,
교역자 모임, 매주4시간 공부, 냉수마시기, 가계부, 예산, 충분한 수면, 교육비 저축, 월 1회
기도원, 매일 시간표 짜고 이행하기, 집청소 1주일 한 번, 매일 기도 점검, 가정예배 매일
저녁에 드리기

11) 학습하고 배우라: Informal / Non-formal의 형태로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다방면에 공부하라

12) 재정관리를 하라

재정관리의 목적-

- a.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드리는 것 잠언 3:9,10,
- b.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 딤후 5:8
- c. 국가세금을 내는 것 롬 13:1-8
- d. 빚을 갚는 것 잠언 3:27,28
- e. 남은 돈 - 하나님께 더 드리는 것
- f 남을 돕는 것 고후 8:12-15
- g. 장래를 위해 예금하는 것 잠 21:20
- h. 나의 만족을 위해 쓰는 것 전 5:19,20

예산 본보기

최우선 순위: 하나님의 사역

가정에 필요한 것: 집에 관한 것 (세, 세금, 부담액, 보험), 소비품 (집), 전기, 수도, 가스 등, 음식, 옷, 교통 (보험, 휘발유, 수리 등), 화장실, 욕실 소비제, 보험, 전화, 오락, 선물, 교육, 청소, 세탁용, 보수비, 휴가비, 기타 잡비, 국가 세금 (세금, 퇴직금)

남은 돈 계산법: 전체수입(Gross) - 최우선 순위 비용 총계 = 남은 돈

남은 돈 쓰는 용도: 하나님의 사업, 다른 사람 돕는 것, 투자 (저금), 나의 만족을 위해 쓰는 것

필자가 위에서 제기한 것들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끝맺음을 돕기 위한 지도자 훈련 지침들이자 6장을 마무리하는 핵심 내용이기 하다.

선교적 삶과 선교적 교회를 향해 도전하고 훈련한다

레슬리 뉴비긴은 그의 책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교회 선교적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교회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즉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심판과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보류 되기에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세상에 대한 정의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세상은 인도, 중국, 아프리카, 러시아, 남아메리카 등 실제의 나라와 민족들을 가리킨다는 것”이다(뉴비긴 2002:165-166)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선교적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말했다. 이처럼 교회는 선교적 본질과 사명을 갖고 있기에 중국 지도자들이 이점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이기도하다. 본 논문 2장에서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의 사례에서 필자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예수님의 리더십의 궁극적 목적은 제자들을 세워 열방에 복음을 전하여 열방을 구원하려는 세계 선교였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선교의 최종 목적을 완성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은 선교사의 가장 완벽한 본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선교적 명령을 전달하셨다. 다음은 복음서에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선교명령이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 18-20).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6-48)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17)

오스왈드 알리스는 지상명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아브라함의 씨인 메시아 왕국을 세계적으로 만든다. 지역, 종족, 민족, 인종의 장벽들은 모두 사라져 버린다. 모든 민족들이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알리스 2002:9).

이처럼 주님은 선교를 명하셨고 복음서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선교명령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교를 명하신 예수님께서 선교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다는 점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해답이라 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선교의 위대한 명령을 전달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의 신약적 근거 자체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선교사와 선교전략의 모델을 갖고 있다. 예수님은 열방을 향한 분명한 선교 목표를 갖고 있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한 민족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결코 멸망하지 않을 성령의 교회를 세울 것을 의도하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임할 그 날을 바라보셨다. 주님의 사랑은 우주적이었다. 그는 세상의 구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다. 그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다. 주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주님의 마음에는 결코 국내와 해외 선교의 구별이 없었다. 예수님에게 선교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것이었다. 선교역사는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 최초의 복음이 담긴 창세기의 역사부터 아브라함과의 축복의 약속을 거쳐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선포된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로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을 통해 12명의 제자를 예수 생명 공동체로 만들어 세계선교를 위한 강력한 모판으로 만드셨고 그들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복음의 역사는 서진하여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 50년 전만해도 선교 불모지에 불과했던 한국은 세계선교에 큰 기여를 하는 나라로 발전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다(강승삼 2002:4).

이 복음은 지금 중국에서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지구를 반 바퀴 돌아 아시아에서 역사하고 있는 복음의 역사는 다시 이슬람의 근원지 중동을 거쳐 복음의 시작점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이다. 복음의 행진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중국교회가 중국선교에서 선교중국으로의 인식 전환을 해야 하기에 중국 지도자 훈련원에서 선교적 삶과 선교적 교회를 향한 도전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피터 와그너는 선교사업의 발전을 4단계로 구분했다. 즉 제 1단계는 불신자에게 가서 전도하여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운다. 제 2단계는 교회를 발전시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친다. 책임을 나누어 가지지만 가능한 한 책임을 선교지 교회에 이양시킨다. 제 3단계는 자문역할을 한다. 선교지 교회가 자율적이 되어 자체의 내부 문제를 돌본다. 이 단계에서는 선교는 자기 동일성을 포기하고 피선교지 교회에 흡수되어 그 교회 지도자 밑에서 일한다. 반면 선교는 교회와 병행한 위치에서 일하여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면에서 교회와 협력한다. 제4단계는 선교지 현지교회가 선교한다. 피터 와그너 박사는 참 선교의 목표는 제4단계이지만 그 동안 선교단체들의 선교전략에 이 부분을 등한시 여겼거나 계획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교는 파송 교회의 당연한 사업으로만 여겼지 피선교지 교회의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와그너 1992:176-177).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 추아 웨한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동안 아시아의 많은 신학교와 성경학교가 선교학을 등한시 한 부분을 지적했다. 피터 와그너의 지적은 중국교회로 하여금 중국선교에서 선교중국으로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고무적인 일은 1970년 대북에서 열린 중국 복음 전도대회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했다. “세계 선교는 중국교회의 사명이다. 중국은 선교 160년 만에 선교사 파송국이 되어야 한다”(1992:177).

중국은 이제 선교중국으로의 전환의 시점에 와있다. 중국은 교회의 폭발적 부흥과 함께 거기에 버금가는 강력한 선교 운동이 일어나 중국교회 전체가 강력한 선교 공동체로 바뀌어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중국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선교적 본질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 없이는 교회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없다. 선교는 교회의 중요한 핵심적 가치이며 교회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 같은 선교에 의해 존재한다.

중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래부터 주신 선교적 본질을 세계 열방과 민족을 향해 마음껏 발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선교적 삶을 실천해야 한다. 이럴 때 중국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의 사명을 감당하여 중국내 선교는 물론 세계 선교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제 2장에서는 성경안에서 리더의 모습에 대해 살펴 보았고 제 5장에서는 로버트 클린턴에 제시한 지도자 부상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중국 지도자 훈련 개발에 대한 전략 4가지를 제시 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필자가 위에서 연구한 지도자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중국 지도자들이 지향해야 할 중국 지도자의 모습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보았다.

1) 큰 꿈을 품은 사람

항상 꿈은 커야 한다. 100이라는 목표물을 향해 활을 당겨야 그 근처에라도 맞지 50이라는 목표를 향해 쏘면 잘해야 50 인 것이다. 큰 꿈을 품어야한다. 하나님은 만사를 가능하게 하신다. 안되면 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지 환경이 나빠서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모든 위대한 역사는 분명하게 품은 선명한 꿈과 함께 시작한다. 꿈은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공짜이다. 영적 지도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꿈을 품은 사람이다. 영적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히 11:1).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사람의 눈에 비친 베드로는 쓸모없는 한낱 어부였지만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뒤흔들 하나님의 위대한 재목이었다. 영적 지도자는 품은 날마다 마음으로 꿈을 그려나 가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꿈과 비전의

사람이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다. 그러나 꿈을 떠받칠 수 있는 지속적 기도와 요동치 않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꿈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 돼야 한다. 지도자는 또한 꿈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잠 23:7; 29:18; 마 28:18-20; 행 1:8; 창 12:1-3).

2) 목표를 정하고 집중하는 사람

큰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만들어 한다.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이다. 지도자는 계획을 선포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3) 지도자는 평생에 걸쳐 지도력을 개발하는 사람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전 인생에 걸쳐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런 평생 개발 관점에서 자기에게 있는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4) 헌신의 사람

영적 지도자는 그 꿈과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 철저히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도자는 목적을 향해 인내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다(골 3:23; 전 9:10; 약 2:20).

지도자는 세월을 아끼며 헌신을 준비한다. 지도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고 처신한다. 지도자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사람이다.

5)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줄 아는 사람

지도자는 자신의 꿈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일에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이해되도록 듣는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인격의 사람

지도자는 말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 투명한 삶의 소유자여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솔직 담백한 인격의 사람이어야 한다. 인격에서 사역이 흘러 나오기 때문이다.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인 사람은 사실 가까이하기 쉬운 사람이었다. 개인적인 허식이 없고, 어떻게 저런 분이 이제까지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놀랄 정도로, 그의 생활양식이 순수하며, 견고한 마음과 우스꽝스러운 유머, 그리고 명랑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직하고 성실(세상과 타협 하지 않는 사람) 하며 속이 환하게 들여다보이는 투명함의 사람이다. 지도자는 신뢰할만하고, 존경할만하고, 믿음이 가는 인격을 가져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퍼져있는 책과 같다(갈 5:25; 살전 5:12-13; 히 13:7, 17).

7)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

지도자는 주변의 사람들을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함께 가도록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영감을 주어 감동케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버튼(칭찬, 격려, 선물. 등...)을 찾아야 한다. 동참하게끔 격려와 용기를 주어야 한다. 자신감을 주어야 합니다. 가능성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

8)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지도자는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가족의식과 사랑의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 공동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좋은 팀을 만들어야 한다. 충성심, 상호신뢰(상하 좌우), 자유함, 동료의식, 성취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상하관계가 아닌 그물식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팀과 공동체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성장의 분위기를 창출해야 한다.

9)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열정의 사람

영적 지도자의 초점은 목표에 있지 장애물이나 절망, 의기소침에 있지 않다.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다. 긍정적인 사고와 열정은 전염이 된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공동체가 모두 흔들린다.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사역에 임해야 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자신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갖기 때문이다. 삶과 사역에 대해 긍정적이고 역동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한다. 문제를 간파하고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직 않았지만 영적 지도자는 오늘의 삶의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느헤미야 6:2-4; 롬 8:28; 빌 4:13).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놀라운 용기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희망과 낙관주의는 영적 지도자가 갖는 필수적인 영적요소이다.

10)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

지도자는 즐거움(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즐기는 태도를 가져라)으로 사역에 임하지 강요나 일의 중압감으로 인해 일하지 않는다. 자신의 약함도 강함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과 회복하심과 치유하심과 새 힘을 얻고 삶과 사역을 누려야 한다. 기쁨으로 내가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11) 삶을 나누는 사랑의 목자

지도자는 얼마나 많은 양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것인가? 라는 질문보다는 왜 하나님은 내게 양들을 맡기셨는가? 나는 무엇으로 양들을 인도할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영적지도자는 생명을 다해 맡겨진 사람을 돌보며 인도하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렘 5:1; 마 25:21, 40).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애를 나누는 사랑의 목자이셨다.

12) 올바른 판단과 명확한 결단 그리고 위임하는 사람

지도자는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싫은 마음을 좋다고, 좋은 것을 싫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한다. 경솔하게 일을 착수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착수해야 한다. 하늘의 복을 원하는 사람은 결정해야 되었을 때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우유부단을 피해야 한다. 우유부단은 더 큰 울무를 놓는 덫이 되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또 다른 지도자를 양성하여 지도력을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성령의 사람

영적 지도자는 성령님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다. 자신의 인격으로만은 다른 이에게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인격으로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영적 지도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모든 삶의 국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는 자이다. 지도자는 삶을 영적인 각도에서 해석하는 사람이다. 무성하고 화려한 말이 부리는 재주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사람이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한다. 바람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 기도와 손과 발과 생각이 닿는 곳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음성에 성령의 사람은 귀를 기울인다. 성령의 사람은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던 바를 믿어야 하고, 그 분이 하시던 바를 해야 하고, 주님이 열망하며 가던 길을 가야한다.

14) 영적, 감정, 육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

지도자는 먼저 소모(Burn- Out)를 경계해야 한다. Burn-out은 영적, 감정적, 신체적으로 완전히 소모된 상태를 말한다. 염려 많으나 성취가 없고, 노력 많으나 기쁨이 없고, 일은 많이 하지 않으나 지치고, 더 이상의 권면도 자신의 내면에 받아들여져 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난다. 원인으로서는 지나친 충성심, 완전 주의적 성격, 지나친 목표, 독점의식 등이 있다.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절한 목표를 세워, 계속적이고 전인적인 공급이 있어야 한다. 때론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되 영혼, 육체를 만드셨다. 심지어 사람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바른 영적 삶을 누리지 못하고서 육적 삶도 건강할 수 없다. 영혼의 건강 없이 육신의 건강도 보장될 수 없다. 육신의 건강 없는 영적 생활도 쉽지 않다. 또한 감정이 건강하지 못하고서 영적 생활도 육적 생활도 건강할 수 없다. 즉 영적생활은 육체와 감정에 영향을 끼치고 육적생활은 영적생활과 감정에 영향을 끼치고 감정은 영적생활과 육적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사람의 영적, 감정적, 신체적 영역을 통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세 가지 영역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전인적인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 기독교는 좁은 종교적 테두리에 국한된 종교가 아니다. 성경은 영적, 감정적, 신체적 모든 영역에 있어 균형을 말하고 있다. 영적, 감정적, 신체적 치유와 회복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지도자는 영적, 감정적, 신체적 탱크의 물이 적정 수준을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장거리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단거리에 다 쏟아 더 이상 경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처하기도 한다. 참된 헌신이 단거리에 그만 에너지를 다 쏟아 더 이상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고갈을 막아야 한다.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는 쉽다. 쉽고 함께 적절한 운동도 따라야 한다.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재산이다. 영적 지도자들은 육체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감정을 위해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여행이,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사랑의 대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커피 한잔이, 어떤 사람에게는 스포츠가,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 감상 내지 연주가, 어떤 사람에게는 연극이나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이, 어떤 이에게는 근사한 식사가, 어떤 이에게는 감동적인 한 편의 글이, 어떤 이에게는 신앙적인 면을 포함한 전인적 상담이 건강한 감정과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삶과 사역을 희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로 호흡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여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을 누려야 한다. 그리고 매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매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삶이 기도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도 이것은 동일하다. 모처에서 일정기간 기도와 말씀묵상 등은 영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도자들이 삶과 사역에 균형이 이루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15)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사람

지도자들은 선교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관점을 갖고 선교적 삶을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은 선교의 선교의 주체자 이시며 지금도 앞으로도 선교를 이끄실 것이라는 분명한 진리를 지도자들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임을 분명히 자각하면서 지도자가 먼저 선교적 삶을 실천하고 또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선교적 삶을 실천해 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즉 담당하는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시켜 세계 선교에 공헌하도록 선교적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지도자 개발에 있어서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잊혀진 제자*도에서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삶의 만족감과 품위와 질을 전혀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은혜와 함께 훈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결실이 맺힌다고 말하면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윌라드 2009:260). 이처럼 필자는 중국 지도자들의 지도력 개발에 있어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심도있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필자가 제6장에서

제시한 중국 지도자 리더십 개발 전략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의 리더십 개발과 훈련에 작은 공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 한 것이다.

다음 7장 결론에서는 필자는 1장부터 6장에서 연구한 내용을 다시한번 요약정리하면서 결론적 제언을 하기로 한다.

요약

제6장에서 필자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리더십 개발과 훈련에 대한 전략에 대해 살펴 보았다.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자 평생 개발 개념을 적용하여 훈련한다.

로버트 클린턴은 ‘지도자 평생 개발론에서’ 지도자 개발 이론의 핵심을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의 전반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도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도자들을 일으키시고 개발 하신다는 것이다. 지도자 훈련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도자 평생개발 개념이라고 본다.

둘째, 은사를 개발하여 지도력 개발을 돕는다.

로버트 클린턴의 은사 개발론에 따르면 지도자의 잠재력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로 구성된 은사 집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 영적은사가 은사 집합의 세가지 요소이다(J. 로버트 클린턴 & 리처드 W. 클린턴 2014:19). 타고난 재능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능력, 기술, 재주, 또는 적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들은 무언가를 성취케 하는 요소들이다. 습득된 기술은 태어난 후에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배우고 연마해서 습득된 재능, 기술, 재주 또는 적성도 여기에 속한다. 영적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독특한 능력을 말한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능력을 의지하여 사역을 하게 하신다.

셋째,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 도전한다.

로버트 클린턴은 지도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강화수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가 말한 강화수단은 첫째, 지도자들이 평생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사역을 평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도자들은 반복적인 갱신을 기대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과 확신을 경험해야 한다. 또 갱신에 대해서 열린 자세가 있어야 하고 결단해야 한다. 클린턴은 특히 30대 중반, 40대 초반 그리고 50대 중반을 주목하면서 갱신이 필요한 시기인데 영적 훈련이 약하면 갱신보다는 과거 경험과 기술에 의존하여 정체되기 쉬울 수 있음을 경고했다. 셋째, 절제훈련, 학습, 예배, 축제, 봉사, 기도, 친교, 고백, 순복, 청빈의 삶, 하나님 음성듣기, 안식 실천, 영성일기 쓰기 등 다양한 종류의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넷째, 평생을 걸쳐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타인의 삶과 독서들을 통해서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멘토들과의 아름다운 소통과 관계를 통해서 실패의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고와 적절한 조언을 받는 멘토링이 필요하다. 10~15명의 멘토를 주변에 두는 것은 지도자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것으로 보았다.

넷째, 선교적 삶과 선교적 교회를 향해 도전하고 훈련한다.

중국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선교적 본질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 없이는 교회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없다. 선교는 교회의 중요한 핵심적 가치이며 교회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 같은 선교에 의해 존재한다.

중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래부터 주신 선교적 본질을 세계 열방과 민족을 향해 마음껏 발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선교적 삶을 실천해야 한다. 이럴 때 중국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의 사명을 감당하여 중국내 선교는 물론 세계 선교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제 7 장

결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늘 중요하게 여겨지면서도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기에 사람들은 변화를 미루거나 포기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 교회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변화가 때론 잠시의 고통을 줄지라도 지도자는 변화를 두려워 말고 맞서야 하며 용기와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참된 변화를 위해 바른 지도력을 개발해야 한다. 필자는 지도자가 바른 리더십을 개발하여 지도력을 발휘할 때 교회의 미래는 밝다는 점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

풀러 선교대학원 박기호 교수는 ASM Bangkok Mission Leadership Forum에서 리더십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정치, 비즈니스, 교육, 종교 심지어 크리스찬 선교분야 등 어떤 기관을 막론하고 그 기관의 성공과 실패가 그 기관의 지도자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리더십 개발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 중 하나였다는 점도 언급하였다(Lovelace 2015:13). 필자 또한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하면서, 지도자 한 개인의 바른 리더십은 한 지역의 예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고 더 나아가 선교적 영향력을 확장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훈련하여 이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도록 돕고 또 이들이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개발과 훈련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요약

본 논문의 주제인 ‘중국 가정교회 리더십 개발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중심과제, 연구 질문들, 연구의 범위, 용어정의, 연구방법, 연구개관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리더십 관한 성서적 관점을 다루었는데 먼저 성경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 구약에 나타난 리더십의 사례를 살펴 보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 나타난 리더십 사례를 다루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리더십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중국 가정교회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았고, 중국 가정교회의 일반적 현황과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현재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특히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삼자교회와의 갈등을 겪고 있고, 양질의 신학교육의 부재, 지도자의 양적, 질적 부족의 문제 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필자는 언급하였다.

또 일부 중국 지도자들이 급변하는 시대를 읽지 못하고, 급변하는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가정교회 지도자 문제, 자녀들 문제, 핍박이 아닌 개인의 안락을 추구하는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그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이것은 결국 바른 지도력이 뒷받침이 못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은 희생만을 강조했지 한 지도자 전 생애를 조망하면서 체계 있게 리더십을 훈련하는 과정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였다. 이것은 곧 중국교회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필자는 진단하였다. 이런 리더십 훈련의 부재는 중국의 가정교회뿐 아니라 그들이 파송한 중국인 선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과만을 요구하고 있지 정작 중국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겪는 정서적 어려움이나 가정 안에서 문제 그리고 선교사의 인격과 삶이 바탕이 되는 전인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중국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선교현지와 중국 신앙공동체 안에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 리더십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필자는 강조하였다. 중국 가정교회의 미래를 조망해 볼 때 결국 지도자가 중요하고 지도자 양성과 리더십 훈련이 매우 중요함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필자는 이런 중국 교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국교회와 지도자들을 훈련하여 건강한 지도자로 세워 그들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고 더 나아가 세계선교에 공헌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태국 치앙마이에 킹덤빌더라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원을 열게 되었다는 점을 3장에서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필자가 사역했던 킹덤빌더 훈련원의 현황을 다루면서 태국과 치앙마이의 일반적 현황도 알아 보았고 또 구체적으로 킹덤빌더(KBTC) 지도자 개발 훈련원 발전과정을 알아 보았다. 여기에는 훈련 목적, 훈련핵심 가치,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모집 방법, 오리엔테이션, 커리큘럼, 일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킹덤빌더 지도자 개발 훈련원에서 1기부터 4기까지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지도자 훈련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서 당면한 문제, 문제점 해결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 보았다.

제5장에서는 리더십 훈련에 관한 클린턴의 ‘지도자 부상’ 이론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개발 훈련에 클린턴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영혼 구원 후에는 신자들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기독교 영적 지도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선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도자 훈련의 핵심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5장에서는 생의 발전과정, 시간 선을 통한 지도자 분석, 내적 성장과 리더십 개발, 사역과 리더십 개발, 지속적인 인도과정, 성숙한 사역, 분명한 사역 철학, 선종(좋은 끝맺음)하는 리더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 보았다.

제6장에서는 제5장에서 다루었던 클린턴의 리더십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 개발 전략을 제시 했는데, 필자는 다음 세 가지를 제시 하였다. 1. 지도자 평생 개발 개념을 적용하여 훈련한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생의 발전과정의 핵심을 살피게 한다. 즉 먼저 영적 리더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개발하기 원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삶이 영적 리더로서 진행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리더십 개발전략의 흥미 있는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의 생애를 시간선을 통해 이해하게 한다. 즉 지도자들로 하여금 생의 발전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생애 분류도표인 ‘시간선’에 의해서 자신의 생애를 분석해 봄으로써, 자신의 생애 속에서 전반적으로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 개발 유형을 이해하게 된다. 2. 은사를 개발하여 지도력 개발을 돕는다. 은사는 타고난 은사, 영적은사, 습득된 기술 등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이 은사 개발 부분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력 개발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열어 주었다. 영적 은사만을 강조하여 자칫 균형을 잃어 버린 지도력이 되기 쉬운데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로 하여금 은사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갖게 하여 평생을 통해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전을 주게 되었다. 3.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 도전한다. 즉 선종(잘 마무리 할 수 있는)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도전한다. 여기에서는 유종의 미를 방해는 장애물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도자들의 특징에 대해 살피면서 유종의 미를 위해 강화해야 할 훈련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필자는 이어서 앞에서 연구한 성경적 리더십과 로버트 클린턴의 리더십 이론을 바탕으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리더십 특징과 리더십 훈련 지침을 제시하였다. 4. 선교적 삶과 선교적 교회를 향해 도전하고 훈련한다. 중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래부터 주신 선교적 본질을 세계 열방과 민족을 향해 마음껏 발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선교적 삶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리더십 개발의 최종적인 목표는 잠재적 지도자들을 선발하고 개발하여, 그리스도께서 쓰시기 합당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배출해 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자신의 리더십을 개발하려는 모든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도전으로써, 지도자들은 각자의 사역현장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여 그들에게 잠재적인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을 개발할 것을 도전해야 한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원하는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영적 지도자로서 보람 있고 성공적인 좋은 끝맺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클린턴 리더십 출현 이론’의 주된 목적은 영적 지도자인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리더십 개발을 통하여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기대를 갖게하는 것이다. 또 일생 배우는 자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개인의 발전을 통한 리더십 개발을 촉진하도록 한다. 또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리더십을 개발해 가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둬으로써, 자신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바라보게 해주고, 지도자의 삶에 용기와 소망이 넘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친히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를 부르시고, 영적인 리더로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전 생애를 걸쳐 개발해 가신다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영적 리더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것은 없다.

제언

세계 선교 현황을 고려 할 때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의 리더십 개발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 이론은 삶과 사역을 시간선 에 따라 정립해 보면서, 많은 발전 과정들을 학습을 통해서 이해하고 사역과 삶에 적용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사역 현장의 힘든 삶의 과정 중에 겪게 되는 고립, 갈등, 위기, 정체현상들은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서는 학습도구가 되고 더 차원 높은 학습의 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립, 갈등, 위기는 우리를 통해 성숙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 가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자책감과 불안감 또는 자기정죄로부터 벗어나서, 성숙의 열매를 위한 인내와 근신을 배우는 발판으로 삼으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배움으로서 위기와 갈등이 주는 긍정적인 방면인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지도자들은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클린턴의 리더십 출현 이론’에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일생을 통하여 계속하여 배우는 자세를 견지할 때 정체현상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점을 고려할 때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리더십 개발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은 절실하게 필요해 진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중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시대의 도전을 포용하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의 리더십을 깨워야겠다는 신념을 갖고 본 논문을 썼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갱신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향한 중요한 걸음이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서 주신 독특하고 새로운 부르심을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리라 믿는다.

필자가 다시 한번 바라는 것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로버트 클린턴이 말하는 4단계(생의 성숙)와 5단계(수렴과정)에 이르러 마침내 6단계(회상)까지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한다. 즉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전 인생에 걸쳐 섭리하시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자기와 같은 지도자를 선별하여 훈련하여 돕고 세운 후 리더십을 이양하고 나서도 영적 긴장을 내려 놓음 없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과 생동감 넘치는 영적 교제를 누려 선종(사역과 삶을 잘 마무리하는)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는 바이다. 이것은 필자가 목적하는 중국 지도자 리더십 개발 훈련의 방향이고 지도자 개발 훈련 전략의 핵심이다.

21세기의 시대 상황 속에서 ‘중국 가정교회 리더십 개발과 훈련’은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부분이다. 이 논문을 통해 얻는 최종 결론은 균형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과 훈련을 통해 중국가정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 개발을 도와 그리스도의 건강한 일꾼을 세우는 것이다.

ENGLISH SUMMARY

TEXT OF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velop an effective contextualized training program and to set the direction for Kingdom Builder Training Center (KBTC) in Chiang Mai, Thailand. The purpose is to develop the leadership of Chinese home church leaders by analyzing the current ministry and applying Robert Clinton's Leadership development theory.

In this paper, I will make some proposals on how to make improvement in context of the china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by employing the findings of biblical, missiological and contextual studies to achieve more effective ways of leadership training.

Background

I believe that in the process of obeying Jesus' earthly commands and ministry, If there is a problem in leadership the gospel ministry will meet big problem. For one leader is important, If he has a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the ministry is strong.

The core of Robert Clinton's leadership theory is "ministry flows from personality. Let's be first personally from myself to live a good life "(Robert Clinton 2011: 58). Is not this the right way for Chinese Church leaders to find? This question became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Purpose of the research

This paper is to build a healthy worker for Christ through the development and training of balanced leadership programs to help the leadership of Chinese home church leaders.

Goals of Research

- 1)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of Chinese home church and leaders.
- 2) Examine the significance of Chinese churches and leaders in world missions.
- 3) Study biblical and missiological perspectives on Chinese home church leader and leadership training.
- 4) Assess the status of the Kingdom Builder training center in Chiang Mai, Thailand.
- 5) Suggest the importance and direction of leadership training for Chinese home church leaders.

The Importance of Research

First, I will look back and evaluate my past ministry, gain deep insight, and find a more efficient and timely leadership training method.

Second, By presenting practical problems to local leaders, they will be able to prevent mistakes.

Third, by understanding the training of home church leaders in China, it will help deepen understanding of Chinese leaders and the Chinese church.

The Central Task of Research

The main task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effective leadership method by examining biblical, missiological, and situational perspectives on leadership training of home church leaders in China.

Research Questions

- 1) What are the current situation of Chinese home churches and leaders?
- 2) What are the biblical and missiological perspectives on leadership training in Chinese home church leaders?

- 3) What is the status of "Kingdom Builder Training Center" in Chiang Mai?
- 4) What are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leadership and development of Chinese home church leaders?

Scope of research

This study firstly focuses on the home churches and local leaders in Chongqing area in China.

Second, this study is limited to myself and the "Kingdom Builder Training Center" in Chiang Mai.

Definition of Terms

1. A home church is a church without registering with the government.
2. The Three-Self Church is a church registered with the government.
3. The Back to Jerusalem Movement refers to the missionary movement of the Chinese home church to "bring the gospel westward to Jerusalem."
4. Mission China means to mobilize the Chinese church to devote to mission.

Method of study

The method of this study will be based on participant observation method, document data, and case study. In this study, my experience of my ministry in Chongqing area in China and the experience of Kingdom Builder training center in Chiang Mai, Thailand are reflected. Literary data collection i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USA and Payap University in Thailand.

Research Overview

This study follows the chapter 1 introductory chapter, and chapter 2 deals with the biblical viewpoint of leadership. First, I will look at examples of leadership in the Old Testament

through Moses and in the New Testament I will look at the true leadership of the Bible as it deals with the examples of leadership demonstrated through Jesus and Paul. Chapter 3, I explain the history of the church in China in order to help the understanding of the home Church in China, and discusses the general situation of the home church in China and the leaders of the home church in China. In Chapter 4, I will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the Kingdom Builder Training Center, which I have been working with, and describe the general situation of Thailand and Chiang Mai, and describ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Kingdom Builder (KBTC). Chapter 5, I focus on Robert Clinton's "leadership development" theory and explore how the Clinton theory provides an important principle to the development of Chinese home church leaders. In chapter 6, based on Clinton's leadership development theory in chapter 5, I will suggest the development strategy of leadership training for Chinese home church leaders. Chapter 7 is the conclusion. While reviewing chapters 1 through 6, I will review the key points of Clinton's leadership development theory and conclude the paper with an emphasis on the usefulness of this theory in the development and training of Chinese home church leaders and their application.

CHAPTER 2

BIBLICAL PERSPECTIVES ON LEADERSHIP

In Chapter 2, I studied at the Biblical view of leadership.

First, leadership train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ategies God uses to expand God's kingdom. Moses, Jesus Christ, and Paul, both of whom we studied through the study of biblical perspectives, were leaders who God cultivated God's Kingdom expansion. Second, God has led and trained through the intervention of the whole life of the preliminary leader in order to raise the leader. All of the trainees in this training course have experienced the process of receiving direct training from God. Third, the trainees recognized the Lord's will, responded positively to the Lord's training process, and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Paul's case turned to be a witness to Jesus Christ while persecuting Jesus Christ, and he became a leader who raised many leaders. Fourth, they prepared preliminary leaders to prepare for the next generation. Fifth, leaders kept intimate fellowship with God throughout their lives. Ministries flowed out of existence and exerted a powerful influence on people and communities.

CHAPTER 3

UNDERSTANDING CHINESE HOME CHURCH

Chapter 3, I explained the history, current situation of Chinese church and problems in order to understand Chinese house church.

Chinese history has long been a stepping for Chinese missions. The revival of the Chinese Church today is based on a foundation of the missionary and believer's history that led to the blood, tears, sacrifices, suffering. The Chinese church is constantly reviving and is being asked to contribute to world missions. However, the Chinese church is facing difficultie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There is persecution and secularism on the outside, and theological problems, especially the leadership problems of the leaders on inside in Chinese churches. The influence of a leader on the community is great. Leadership builds and destroys communities.

I have pointed out that in the face of such a situation in China, leadership development and training are indispensable for China's Church leaders to have healthy leadership and a healthy community.

CHAPTER 4

CURRENT SITUATION OF KINGDOM BUILDER (KBTC) TRAINING CENTER IN CHIANGMAI

In Chapter 4, I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the Chiangmai Kingdom Builder Leadership Development and Training Center ministry that I worked on. And I presented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evaluation of leadership training for the first to fourth stage of Chinese trainees. And in the last part of Chapter 4, I presented the problem of leader development training, the necessity of problem solving plan, and the direction of progress.

I look forward to the future of the Chinese Home Church in the world and train Chinese churches and leaders to be healthy leaders with missionary vision and healthy leadership so that they can build healthy missionary churches and contribute to world missions. And I have conducted leadership training for Chinese church leaders by opening Leadership Development Training Center called Kingdom Builder in Chiang Mai, Thailand.

Evaluation of training center and seeking solutions

I focused on the completion of the training course itself while training, there was a lack of integrated training of attitude (Being) and knowledge (Knowing) and behavior (Doing). Although a short training period, through training of inspirational sermons and teachings, a training system that can transform the qualities of spirituality and personality in depth, the trainer first cultivates beautiful character in God, I have to make sure that some trainers have a problem.

A limited apprenticeship training for each trainee and a program for recognizing, discovering and developing their own gifts should be installed. During the training, the customized gift development program was not implemented. Most of the trainees were in their

20s and 30s. Of course, there were 40s and 50s. Most of the trainees were in the early stage of Phase 2 (inner growth) and Phase 3 (growth of ministry) in their developmental stages. The training center did not provide a suitable leader development program for them.

After the training, the trainees did not give feedback, retraining or mentoring after they returned to the field.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xamine how the students are applying and practicing the learned part in the field of life and ministry, and to follow up through evaluation to help the leaders to grow healthy and sustainable. .

And I decided to refer Robert Clinton's theory of leadership training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

CHAPTER 5

UNDERSTANDING ROBERT CLINTON'S "LEADER SHIP THEORY" IN LEADERSHIP TRAINING

In Chapter 5, I reviewed Robert Clinton's theory of leadership development. Here is a summary.

Robert Clinton, in 'Leader Lifelong Development,' has spoken at the heart of the theory of leadership development, that God intervenes in the life of the leader through various means throughout his life, raises and develops leaders.

Leadership development is based on the response of leaders. Robert Clinton says that the process of the life of a leader is the sixth stage: the sovereign foundation, internal growth, ministry growth, maturity of life, convergence process, recall, or festival.

God continues to refine through the life of a potential leader and has a greater interest in bringing the influence of Christ to a leader so that he can minister with spiritual authority. Clinton says influences emerge from personality. Therefore, personality is more important than ministry. To be a good leader, a leader must live a life of enduring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CHAPTER 6

PROPOSAL FOR LEADERSHIP DEVELOPMENT STRATEGY FOR HOME CHURCH LEADERS IN CHINA

The influence of a leader on the community is great. Leadership builds and destroys communities. I have pointed out that in the face of such a situation in China, leadership development and training are indispensable for China's Church leaders to have healthy leadership and a healthy community.

In Chapter 6, I suggested the strategies for leadership development and training for Chinese house church leaders.

First, leadership training has to be designed for helping lifelong development. Second, leadership training has to be designed for developing gifts. Third, leadership training has to be designed for encouraging leaders to be finished well. Fourth, leadership training has to be designed for challenging leaders to live as a missionary life.

CHAPTER 7

CONCLUSION

In conclusion, I will summarize my research. In addition, I will make some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based on my research.

Summary

This study deals with the biblical view in Chapter 2, and the situational view of the Kingdom Builder Training Center in ChiangMai, which I have worked for chinese home church leaders in Chapters 3 and 4. In Chapter 5 I reviewed Robert Clinton's theory of leadership development. In Chapter 6, I discussed the leadership training development strategies and missiological perspectives. Finally, with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study, In Chapter 7, I provide a proposal to improve its leadership training program with effectiveness and relavance.

Suggestions

First, leadership training has to be designed for helping lifelong development. Second, leadership training has to be designed for developing gifts. Third, leadership training has to be designed for encouraging leaders to be finished well. Fourth, leadership training has to be designed for challenging leaders to live as a missionary life all the time.

인용 문헌(REFERENCES CITED)

- 강병도 편집
2000 톨슨II 주석성경. 서울: 기독 지혜사.
- 강병훈 편저
1992 쉼마 주제별 종합자료백과. 제14권. 서울: 성서연구사.
- 강승삼
2002 “선교연합 운동의 현황과 방향.” *한국선교 KMQ VoL. 1. No.4*, 여름호. 서울: 세계선교협의회.
- 김경진
2000 “사도 행전.” *성서주석* 제36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김대동
2006 “국제정서와 이해와 전망 그리고 중국.” *중국을 주께로* 2월호. 서울: 중국어문선교회.
- 김병삼
2007 *예수님의 리더십 학교*. 서울: 교회성장 연구소.
- 김상복
1987 *교회와 목회자의 리더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 김해연
2006 *한국 교회사*. 서울: 성광 문화사.
- 김진호
1989 *숨겨진 보물 예배*. 서울: 예수 전도단.

- 류전명
2004 “중국 선교를 위한 국내외 화교 교회와의 효과적인 협력방안.” 중국을 주께로 뵙호. 서울: 중국 어문선교회.
- 박기호
2005 *타문화권 교회개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 박화목
2004 “중국 가정교회의 신앙배경과 조직. 서울: 중국 어문선교회.” 중국을 주께로 뵙호. 서울: 중국 어문선교회.
- 서청
1999 “중국교회, 목회자와 신학자의 양성이 시급하다.” 중국을 주께로 5-6월호. 서울: 중국 어문선교회.
- 안민기, 이현숙
2008 *태국*, 서울: Comma' n dot 출판사.
- 이종영
1992 *영적 지도력*. 서울: 새한기획출판부.
- 이장식
1990 *아시아 고대 기독교사*. 서울: 기독교문사.
- 이재환
2007 *미선파서블*. 서울: 두란노 서원.
- 이재범
1988 *성령과 선교*. 서울: 보이스사.
- 인병국
2001 *중국선교 안개걷기*. 서울: 도서출판 서역.
- 임어당
1995 *중국, 중국인*. 서울: 도서출판 장락.

- 주피득
1999 “독립가정교회의 신학사상.” 중국을 주께로 9-10월호. 서울: 중국
어문선교회.
- 장링링
1998 “중국 가정교회의 분파와 지도자 훈련.” 중국교회와 선교 통권 59호, 6월호,
서울: 중국 복음선교회.
- 전가화
1988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서울: 한국 교회 영성원.
- 전호진
1995 *아시아 기독교와 선교전략*. 서울: 도서출판 영문.
- 정요한
1999 “중국 가정교회 선교의 현황과 과제.” 중국교회와 선교 통권 6호, 4월호.
서울: 중국 복음선교회.
- 달라스 윌라드
2009 *잊혀진 제자도*.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 사람.
- 돈 해밀톤
1991 *자비량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정진환 역. 서울: 조이선교회.
- 데이비드 아이크만
2005 *베이징에 오신 예수님*. 김미수 역. 서울: 좋은씨앗.
- 데이비드 왓슨
2009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 로버트 클린턴
2009 *효과적인 리더십 개발 이렇게 하라*. 임경철 역. 서울: 하늘기획.
2011a *지도자 평생 개발론*. 정의정 역. 서울: 하늘기획.
2011b *영적 지도자 만들기*, 이순정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2015 *유종의 미*. 이영규. 서울: 베다니 출판사.

J. 로버트 클린턴 & 리처드 W 클린턴

2013 *멘토링 매뉴얼*. 이영규 역. 서울: 디모데 출판사.

2014 *당신의 은사를 개발하라*. 황의정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2016 *인생주기에 따른 리더십 개발*. 이영규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랄프 윈터와 스티븐 호돈

2009 *미션퍼스펙티브*. 정옥배 역. 서울: 예수 전도단.

로빈 톰슨

1992 *세계선교 출발*. 이득수 역. 서울: IVP 출판사.

로저 E. 헤드룬드

1990 *성경적 선교신학*. 송용조 역. 서울: 서울 성경학교 출판부.

리처드 포스터

2004 *생수의 강*. 박조연 역. 서울: 두란노 출판사.

D. S. 러셀

1991 *신구약 중간시대*. 임태수 역. 서울: 킨콜디아사.

레슬 뉴비긴

2002 *교회란 무엇인가?* 홍병룡 역. 서울: IVP.

빌 도나휴, 러스 로빈슨

2004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 훈련원.

빌 헐

2009 *온전한 제자도*. 박규태 역. 서울: 국제 제자 훈련원.

셀리 트레비쉬

2011 *고림의 축복*. 황의정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오스왈드 알리스

2002 *모세오 경약해*. 최종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구령의 열정*.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

왕쓰웨

2004a “현대 중국 기독교의 큰 숲 조나단 차오.” 중국을 주께로 여름호. 서울: 중국
어문선교회.

2006 “중국선교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이다.” 중국을 주께로 여름호. 서울: 중국
어문선교회.

웨슬리 듀웰

1993 열정적인 지도자. 정중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에드워드 로제

1984 신약성서 배경사. 박창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조나단 루이스

2004 타 문화적 고려. 최형근 역. 서울: 한국 해외 선교회 출판부.

조지바나

1997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Leaders on Leadership). 최기운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0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최기운역. 서울: 베다니 출판부.

2003 팀리더십 파워. 홍영기 역. 서울: 청우 출판사.

조셉 램

2000 중국, 정석영역. 서울: 죠이선교회 출판사.

존 맥스웰& 짐도넨

2010 위대한 영향력. 정성목 역. 서울: 비즈니스북스.

존 맥스웰

2017 리더십 불변이 법칙. 홍성화 역. 서울: 비즈니스북스.

2017 성경에서 배운 21분 리더십. 정성목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존 스토트

1995 현대 기독교 선교. 김명혁 역. 서울: 성광문화쓰사.

1972 참 목자상. 문창수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 2010 *제자도(The Radical Disciple)*. 김명희 역. 서울: IVP.
- 2016 *2016 리더가 리더에게*. 김명희 역. 서울: IVP.
- 찰스 스윈돌
- 1997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김세권 역. 서울: 두란노.
- 2001 *아낌없이 자신을 드린 사람 모세(Moses: A Man of Selfless Dedication)*.
곽철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 천레이
- 1999 “21세기로 발돋움하는 중국 가정교회의 제반 상황과 전망.” *중국을 주께로*
9월호. 서울: 중국 어문선교회.
- 할레이
- 1991 *성서 핸드북*. 박양조 역. 서울: 기독교 출판사. 서울: 이레서원.
- 허버트 케인
- 2002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이재범 역. 서울: 나단 출판사.
- 2007 *세계 선교역사*. 신서균, 이영주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 헨리 블랙커비
- 2017 *영적 지도력*.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출판사.
- Keith R. Anderson, Randy D. Reese
- 2002 *영적 멘토링*. 김종호 역. 서울: IVP.
- 토니 호스프 조셉 램
- 2016 *영적 멘토링*. 정은신 역. 서울: CLC.
- 팀 마샬
- 1999 *지도력이란 무엇인가*. 이상미 역. 서울: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 폴 헤터웨이
- 2005 *백투예루살렘*. 류응렬 역. 서울: 홍성사.

패트릭 존스톤, 제인슨 맨드릭

2005 *세계기도정보*. 서울: 조이선교회 출판부.

피터 와그너

1991 *제3의 물결을 타고*. 변진석, 변창욱 역. 서울: 무실.

1991 *기독교 선교전략*. 전호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Chao, Jonathan

1995 *The China Mission Handbook*. 중국어문선교회 편역. 서울: 두란노.

Cleland, Thom

2000 *모세: 하나님의 리더 훈련 프로그램(A Man of Selfless Dedication)*. 김병국 역.
인천: 예향.

Cobb, Kendall

2009 *Thailand Chritian Directory*. ChiangMai: Actsco.

Coleman, Robert

1987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Old Tappen: Revell.

Latourette, K. S.

1929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New York: The Macmilian Co.

Lovelace, Hoyt

2005 *Leadership Development for 21st Centry Asian Mission*. Burns: Asian Society of
Missionary.

Wilkes, C. Gene

2003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Jesus on Leadership)*. 정인홍 역. 서울: 디모데.

약력(VITA)

지은수는 1968년 11월 4일 충북괴산에서 부친 지명현 모친 박세남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1987년 청주 신흥 고등학교를, 1995년 ACTS 아세아 연합 신대, 2000년 합동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97년에 이민정과 결혼하였고 아들 예성, 예준, 딸 한나가 있다.

2001년 10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목회 사역은 현대교회(1996-1998년)에서 전도사로, 본향교회(1999-2003년)에서 부교역자로 섬겼다. 2002년 GMTCC 선교사 훈련원(당시 원장: 이태웅 박사님) 25기 수료한 후 바나바 선교회 & 합신 총회선교부 소속 선교사로 파송(2003. 2월-2018년 2월 현재) 받아 중국과 태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중국 충칭시에서 선교사역 동안 8개의 셀교회가 세워졌다. 현지 제자에게 위임한 교회는 지금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충칭시 최초의 한글학교에 초대교장으로 위촉되어 선교사 자녀들을 섬겼다. 2008년 선교지 재배치로 태국 치앙마이로 이주하여 중국 지도자 훈련과 중국 예비 선교사 훈련원을 운영하였고 소수민족 교회들의 요청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태국 현지 소수민족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를 섬겨왔다.

현재 지은수는 아세안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예비 리더들을 위한 선교적 리더십과 실제훈련 모델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비전을 가지고 팀 선교사들과 함께 지역 선교부를 만들어 섬기고 있다.